University of Toronto F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MAY 19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DAILY

No.1137 1983년 5월19일(목)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hursday, May 19, 1983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실업인협회 숙원사업 눈앞에 도래

협동조합 7월16일 오픈

도매상 신의상사 45만달러에 구입

담배계정등 명의이전이 조건부

온타리오실업인협회(회장 차선겸)의 창립이래 숙원이던 협동조합이 오는 7월16일 설립, 오픈된다.

1,200여회원상점을 위한 이같은 협동조합설립은 해외 한인교포사상 최초의 일로 알려졌다.

조합은 이윤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서리및 버라이어티 소매상점에게 일반도매상 가격보다 싸게 물건을 공급한다.

또한 빵, 밀크, 봉지, 비닐·백등 조합에 물건을 제조공급하는 부대사업이 육성됨에 따라 교포사회는 새업체의 탄생, 고용증대등으로 더욱 활기를 띨것이 예상된다.

실협은 17일밤 다운타운 할이데이·인에서 가진 이사회(이사장 서준경)에서 집행부와 이사회 소속 분과위원회(위원장 이춘수)가 제안한 기존도매상인 신의상사(사장 문인식) 구매안및 조합추진계획표등을 거의 원안대로 통과, 새 역사의 장을 여는 주사위를 던졌다. 이사 49명중 33명이 참석한 이사회는 신의상사를 권리금 $39만 + 채틀·모기지(장비등 동산에 관한 모기지) $6만 + 재고가격에 구입키로 하고, 1인1주 원칙에 입각한 조합의 주식액면가격을 주당 1천달러로 결정했다.

이 오퍼가격은 신의상사측과 합의된 가격이다.

실협은 이 도매상이 담배구입 어카운트를 가졌고 도매업자협회인 ITWAL(Independent Tobaccoes Wholesaler Alliance Ltd.)의 멤버라는 점, 한인이 소유한 도매상으로서 주고객이 한인상점이기 때문에 조합이 설립되면 타격을 받는 점, 39만달러라는 가격은 큰 돈이긴 하지만 제조업자에게서 받는 리베이트만 해도 연간 9~10만달러이고 담배 업차지(Upcharge)를 안하는데서 얻는 이득을 고려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 수개월에 걸쳐 신의상사와 협상해 왔다.

협회측 계산에 의하면 담배를 1주에 3케이스 파는 회원 3백명이 조합을 이용하면 업차지로 지불할 28만달러, 회원5백명이 이용하면 38만달러를 절약한다고 밝혔다.

이때문에 이번 오퍼는 가장 중요한 담배구입 어카운트와 도매협회회원의 명의이전및 은행융자를 조건으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이춘수 준비위원장은 "이상 3가지 문제는 전혀 어려움이 없는 것이지만 만일의 경우를 대비, 조건으로 했을뿐"이라고 말했다.

도매상이 담배취급허가는 쉽게 받을 수 있으나 담배회사와 거래를 트는 일은 무척 어려운 일이다. 또한 도매협회 회원은 제조업자가 세일할 경우, 구입량에 관계없이 최저 세일가격을 적용받는 잇점이 있다.

문인식씨는 5년전 25만달러를 투자했고 시설비로 10만달러를 지출, 신의상사를 구입, 경영했다. 81년도 계산서에 의하면 순이익은 14만달러였다.

또하나의 한인도매상인 연합상사(사장 김현모)는 최근 캐네디안도매상 콜·앤드·프리쉬(Kohl & Frisch)와 합자했기 때문에 실협측과 흥정하지 못했다.

이날밤 이사회에서 백경락이사는 구입가격을 39만달러대신 35만달러로 주장했으나 거수표결에서 부결됐고 원안은 24대3표로 가결됐다.

애초 흥정때 실협측은 26만달러를 제시했고 신의상사는 60만달러를 주장했었다.

차회장은 "이번 가격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전회원이 협력할 때 부대사업도 활발히 육성되어 한인사회에 대한 기여도 현재까지와는 차원을 달리할것"이라고 말했다.

차회장은 전 회원상점의 1년간 구매량은 3억달러인데 이중 절반이 조합을 이용하고 마진을 3%로 보면 이윤은 450만달러나 된다고 설명했다.

조합은 상점이 파는 물건종류의 약50%를 취급한다.

이사회는 또한 조합의 주식가격을 정관상의 2천달러에서 「모든 회원이 참여해야하고 1회원1주 원칙」인 점을 고려, 가격을 1천달러로 내렸다.

주주는 1차적으로 회원에 한한다.

조합의 위치는 현 신의상사자리인 116 Tycos Dr. (더퍼린 × 에그린톤 북쪽). 실협은 신의상사 임대계약이 8월말 끝나더라도 5년옵션이 있으므로 장소이전은 그때가서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협동조합추진계획표〉

5월16일-22일	오퍼결정, 정관작업, 변호사, 회계사 - 법률문제, 은행관계 접촉, 이사회개최(주식공모조구성)
5월23일-29일	정관작업, 법률문제, 자문위원회의, 청사진작성, 은행관계접촉
5월30일-6월5일	임시총회(명칭, 주식, 배당), 1차주식공모, 홍보활동, 조합장공모 및 직원모집공고
6월6일-12일	1차주식공모, 홍보활동, Line of Credit작업에 따른 협조
6월13일-19일	1차주식공모, 홍보활동
6월20일-26일	1차주식공모, 발기총회및 창립총회 (조합장선정 - 조합장의 권리와 의무) 운영내규작성, 기본관리규정
6월27일-7월3일	1차주식공모마감, 스탁발주, 배달제도연구(품목결정)
7월4일-10일	시설완료, 스탁발주, 배달제도연구
7월16일	그랜드·오프닝

피납 여객기 북경도착

승무원등 12명 탑승

(서울18일=연합) 피납중공여객기가 18일 상오 북경을 향해 떠났다.

이날 상오10시 김포공항을 떠난 영국제 트라이던트 제트여객기에는 12명의 승무원, 기술자, 중공민간항공청(CAAC) 직원들 및 병원에서 총격부상을 치료받은 무전사도 탑승했다.

승객들은 지난 10일 중공측 협상대표단을 이끌고 김포공항에 도착한 또다른 중공기 보잉707편으로 중공으로 돌아갔었다.

한편 북경공항은 18일 서울의 김포공항에 전문을 보내 이날아침 김포를 떠난 피납중공기가 북경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전문을 보내왔다.

◆실업인협회 이사회에서 신의상사 구매안이 가결되기 직전, 이춘수 협동조합 분과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준경이사장(뒷쪽), 앞에 이휘 총 무이사, 이 위원장, 차선겸회장, 조기연부회장. 원내는 신의상사 문인식 사장.

23만달러 책정

이민자 정착기금

유나이티드·웨이(United Way)는 최근 이민자들의 정착을 돕기위한 기금으로 23만달러를 책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금은 각 코뮤니티의 사회봉사기관들에 신청을 통해 배정된다.

유나이티드·웨이는 메트로·토론토지역의 사회봉사기관을 위한 기금모금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한인기관으로는 한인 Y가 유나이티드·웨이의 자금지원을 받고 있다.

유나이티드·웨이가 책정한 이민정착을 돕는 사회사업단체용 기금을 신청하려면 6월말까지 979-2001의 메리·루이스(Mary Lewis)로 연락하면 된다.

10.75%로 하락

1년형 모기지율

토론토 도미니언 은행은 17일 1년형 모기지 이자율은 10.75%로, 2년형을 11.75%로, 5년형을 13%로 각각 인하했다.

그러나 3년형은 12.5%로 종전과 같다.

중공외상 북한방문

평양측우려 진정시키기위해

(서울18일=연합) 중공외상 우쯔엔키안(WuXuenquan)이 5월말 북한을 방문키로 한것은 피납중공기문제를 둘러싸고 남한과 중공이 직접 교섭을 벌인데 대한 평양측의 우려를 진정시키기 위한 것같다고 한국의 한 관리가 18일 밝혔다.

중공 외무성은 17일 우외상이 북한외상 허담의 초청으로 5월말 북한을 방문한다고 발표했다.

이같은 발표는 중공협상대표단이 서울을 떠난지 1주일만에 나온 것이다.

〈오늘의 시세〉

CN$1.00 = 625.31원
CN$1.00 = US81.17센트
금(런던) = $543.00
은(토론토) = $16.63/oz.

한국, 91명 파견

유니버시아드 경기

(서울17일=연합)한국아마추어 스포츠연맹(KASA)은 오는 7월1일부터 11일까지 캐나다 에드몬톤에서 열리는 83년 하계 유니버시아드경기에 91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고 17일 발표했다.

한국선수단은 국제심판과 조사단을 포함한 임원 31명, 선수 6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전종목은 육상, 수영, 배구, 농구, 테니스, 펜싱, 싸이클, 체종등 8종목이다.

한국과 캐나다 관계의 교량이 되는 신문
~토론토 한국일보~

캐나다한국외환은행
KOREA EXCHANGE BANK OF CANADA
•본 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블루어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AST

미도파 백화점
B.536-1692
R.245-3539

현영일
카나다공인회계사무소
444-9341
YOUNG I. HYUN, B.Com., C.A.
Chartered Account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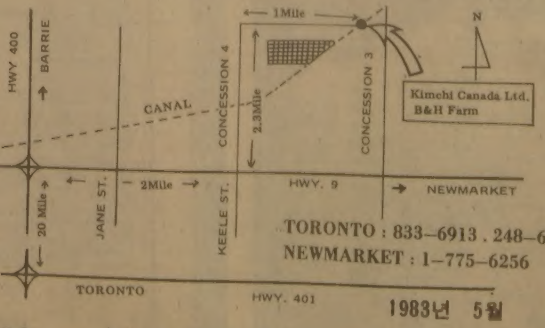
강학수종합보험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은퇴연금
622-5147

은하 보석
ROLEX
대리점
한국화장품
교포유일한 연방정부 귀금속도매및 가공공장 현대숙자업체
오메가시계 45% ~ 50% OFF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개업식에 초대합니다

싱싱한 채소와 짭짭한 밑반찬이 입맛을 돋구는 계절입니다.
본사에서는 교포여러분을 모시고 개업자축 리셉션을 베풀고저 하오니 다수 왕림하시어 교민여러분의 식탁을 풍성케 하고저 하는 새 사업을 격려해 주시고 저희 직원들이 마련한 소찬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일시 • 1983년5월28일(토) 오후1시~5시
장소 • 봉학농장에 위치한 본사공장(지도참조)



TORONTO : 833-6913 . 248-6389
NEWMARKET : 1-775-6256

1983년 5월 일

KIM CHI CANADA LTD 직원일동

저림사 모집에 관한 안내말씀

본사에서는 그동안 저림사 모집에 관한 광고를 여러차례 공고한바 있읍니다.
많은 분들이 응모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하오나, 어느 분을 선별할 수 없어서 최고의 솜씨와 기술을 가지신분을 고용하기 위함과 번거러운 절차이오나 우리의 음식을 5만 교민은 물론, 카나다 복합문화에 기여하기 위한 최고의 질적향상을 위한 방법이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응모자격 : 60세미만의 한국계교포
2. 실기일시 : 1983년 5월21, 22일 양일중 10 : 00~05 : 00 (어느때나 오셔서 5가지 저림류및 장아찌류를 손수만들어 주십시요.)
3. 실기과목 : 김치 • 깍두기류및 장아찌류 5가지
4. 자료제공 : 일체의 기본자료를 본사에서 제공함.
5. 심 사 : 약30여명이 만들어 놓으신 반찬을 감미하고 득점순위를 결정함.
6. 고용및 대우 : 최고득점자 2명은 정규 고용하고, 2명은 파트타임 고용함. 최하 $7.00. 최고 $10까지 우대함.
7. 교통편의 : 교통편의를 위하여 5월21, 22 양일간 아침 09 : 00 정각에 JANE SUBWAY에서 본사차량이 대기함. 5시에 돌아옴.
8. 문의전화 : 공장직통 833-6913, 248-6389(밤)

KIM CHI CANADA LTD

스탠리컵, 아일랜더즈에

오일러스 4게임 연속패배

(유니온데일) 뉴욕·아일랜더즈가 17일밤 금년도 NHL 스탠리·컵을 쟁취, NHL사상 3번째 4년연속우승 기록을 수립했다.

베스트·오브·세븐(Best-of-Seven)경기의 첫3게임을 승리로 장식한 아일랜더즈는 여세를 몰아 강력한 공방을 벌려 제4차전에서도 에드몬톤 오일러스를 4-2로 제압했다.

만오천명의 관중이 모인 이날 경기에서 제1피리어드 시작부터 수세에 몰린 오일러스는 11분만에 트로티어에게 한점을 허용한 후 계속 실점, 3점을 빼앗겼다.

제2피리어드에서 팀을 정비한 오일러스는 실점을 만회하기 위해 착실한 컴비네이션을 구사, 게임 시작 35초만에 그레츠키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은 큐리선수가 득점, 그리고 19분에 메지어선수가 득점, 3-2를 이루었다.

제3피리어드 초반에는 막상막하의 경기를 벌이다 18분50초경 오일러스는 수문장 무그(Moog)선수도 총동원, 공세를 벌이다 허점을 드러내 골리가 없는 틈을 타 아일랜더즈의 모로우선수가 장거리 슛을 날린 것이 골인, 장내는 흥분의 도가니에 빠졌다.

4차전 경기를 참관하기 위해 유니온데일 나소·콜리세움앞에는 낮부터 장사진을 이루었으며 입장 티켓한장에 150달러~200달러에 팔렸고 그나마 구하기 힘들었다.

게임이 끝난후 스탠리·컵을 수여받은 아일랜더즈선수들은 일일이 컵을 선수들에게 돌려가며 축하했으며 열광하는 팬들의 환호에 우승배를 들어 답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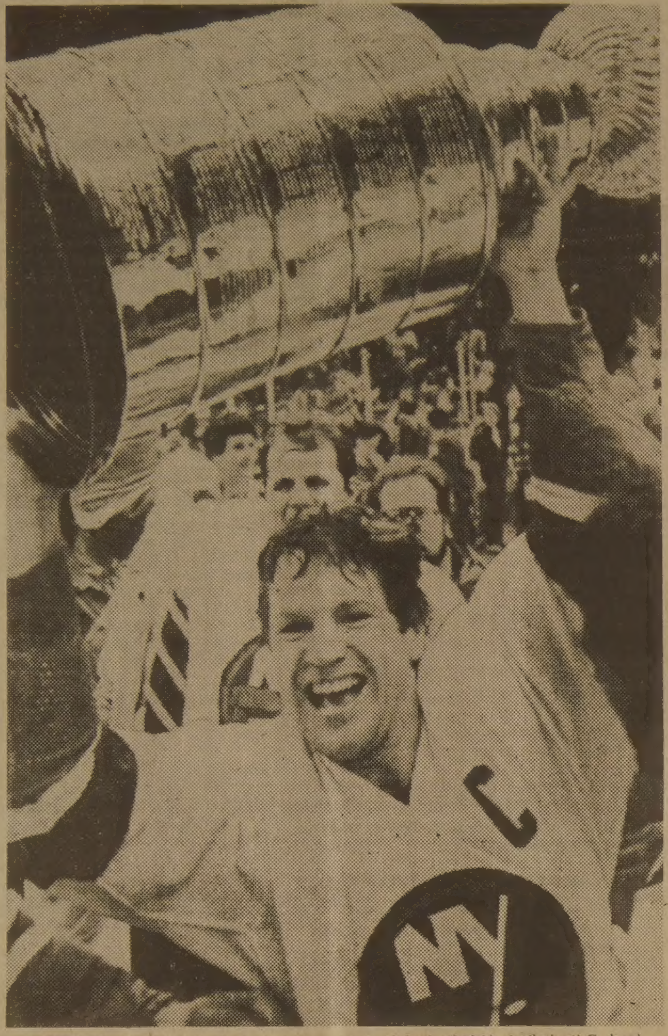
팀코치 알·아버는 선수실입구로 들어가는 오일러스선수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위로했다.

탈의실에 들어선 오일러스선수들은 최선을 다했으나 아일랜더즈가 더 강했다고 칭찬했다.

에드몬톤시민들은 TV로 게임을 지켜보고 비록 패했으나 멋진 경기를 보였고 그들은 훌륭한 선수라고 극찬했다.

아일랜더즈의 4년연속 우승은 미국팀으로는 처음이다. 몬트리얼·캐네디언팀이 1956년도~1960년도에 5년연속우승, 1976~79년까지 역시 4연승을 기록했다.

한편 아일랜더즈의 골리 빌리·스미스선수는 콘·스미티트로피를 수여하는 MVP(최우수선수)에 선정됐으며 스포츠·매가진이 수여하는 Trans Am 자동차를 부상으로 받았다.



◆NHL 뉴욕 아일랜더즈의 주장 데니스·팟빈 선수가 영예의 스탠리·컵을 높이 들고 환호하는 관중에 답하고 있다. 에드몬톤 오일러스를 4-2로 제압한 이날의 승리로 아일랜더즈는 4년연속 우승의 기록을 수립했다.

金聖鍾작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萬5의 사나이 <236>

노파의 증언 ⑦

오토바이 끌어내자 순경은 울상…

마인은 일어섰다. 그리고 선반위에 놓여있는 꿀단지를바라보았다. 어떻게하면 좋을까하고 망설이다가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내렸다.

『그건 뭐 할겁니까?』

동행한 형사가 이상한 눈초리로 그를 쳐다보았다.

『뭐좀 알아볼게 있어요. 이와똑같은 걸 또 하나 살 수 없을까?』

『농협연쇄점 물건이니까 얼마든지 살수 있읍니다.』

『그럼 날이 새는대로 구입해서 선반위에 올려놔요. 할머니가 눈치 못채게 말이오.』

마인은 권형사에게 미리 꿀값에 해당되는 돈을 준 다음 꿀단지를 들고 밖으로 나왔다.

밖에는 훨씬 많은 눈이 쌓여있었다. 그 시간에 차가 있을 리가 없었다. 차가 있다해도 눈이 워낙 많이 쌓여 움직일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그렇다고 눈속을 먼 길을 걸어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눈은 그쳐 있었다.

그들은 지서로 가서 경비전화로 본서에다 차를 한대 급히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전화를 받은 당직순경은 눈 때문에 차량운행이 금지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차는 물론 모든 버스들이 발이 묶여있다는거였다.

『이거 봐요. 지금 그런거 따질 일이 아니란 말이오! 이건 매우 급한 일이야! 아무거라도 좋으니까 빨리 하나 보내요!』

『글쎄, 말이 안된다니까요… 날씨가 하도 지랄 같아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밤중에 거기까지갈려고 하는 운전사가 있어야지요 …있다고해도 가다가 사고라도나면 책임소재가…』

『책임은 내가 지겠소…』

마형사는 버럭 고함을 질렀다. 그러나 상대방은 몰라라는듯했다.

『…하지만 말입니다…저는 당직자로서 사고가 발생했을경우 일차적으로 책임을 져야할 입장으로서…』

『이런 빌어먹을 작자 봤나.』

마형사는 전화를 끊었다.

朴 男 그림

실내를 둘러보다가 그는 밖으로 나가 보았다. 출입구 한쪽에 낡은 오토바이가 한 대 서있었다.

오토바이를 사용하겠다고하자 당직순경은 펄쩍 뛰었다.

『우리 지서의 유일한 교통수단을 가져가버리면 어떻게합니까. 그건 말도 안됩니다. 주임이 알면 난리납니다.』

옥신각신하다가 우격다짐으로 오토바이를 끌어내 시동을 걸자 순경은 울상을 지었다. 뒷자리에 올라타려는 권형사를 밀어내고 대신 지서에서 빈 비닐가방 속에 들어있는 꿀단지를 단단히 비끄러맸다.

그는 넘어지지 않으려고 아주 천천히 오토바이를 몰았다.

오토바이는 눈을 헤치며 그런대로 앞으로 달려가주었다.

한 시간 후 그는 읍으로 들어갔다.

먼저 병원에 들렀다. 김형사는 그때까지 자지 않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어떻게 됐어?』

『모세의 어머니를 만났읍니다.』

『그래?』

김형사의 눈에 감탄의 빛이 스쳐갔다.

마형사는 노파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대충 들려주었다. 이야기를 듣고난 김형사는 놀라움이지나쳐 멍한 표정이었다.

지난해 실업율 12.7%

직장구하기 단념한 사람 포함경우

(오타와) 작년도 캐나다의 실업률은 직장구하기를 단념한 사람들까지 합칠 경우 12.7%라고 캐나다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17일 밝혔다.

통계국은 당초 지난해 실업율을 11%라고 발표했었다.

81년 여름 캐나다의 경제침체가 시작된 이후 의회의원들과 노조지도자들은 통계국이 실업률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비난을 계속해 왔으며 특히 실업률 통계에 "감추어진 실직자" 즉 아예 직장찾기를 포기한 사람들의 숫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비난이 높았었다.

또한 풀타임 직장을 못 구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실직자수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이들의 숫자까지 합치면 실제 실업률은 20%가 넘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북미에서 가장안전

토론토의 TTC

TTC는 미국대중교통협회가 북미에서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시설에 수여하는 실버상(Silver Plaque)을 수상했다.

이 상은 백만명이상이 거주하는 도시의 교통시스템을 대상으로 승객수송과 교통안전기록을 참고로 하여 수여한다.

82년의 경우 TTC는 10만마일 주행중 3.5건의 사고율을 기록했다.

TTC는 지난 16년간 13회에 걸쳐 안전상을 수여받았으며 현재 약3,600명의 운전기사를 고용하고 있다.

골프대회

연합교회주최

토론토한인연합교회 골프클럽주최 연례친선 골프대회가 지난 14일 오전11시45분부터 클레인버그골프클럽에서 열렸다.

47명이 출전한 이날 대회의 입상자는 다음과 같다.

▲챔피언 : 박영철

▲그로스 : 1등-김도헌

2등-이호영

3등-정면

▲Net A조 : 이영현

B조 : 최광훈

C조 : 이영대

▲롱게스트 드라이브(Longest Drive) : 김영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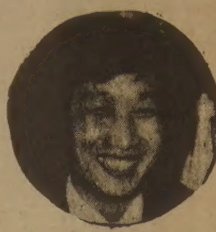
▲니어리스트 투 홀(Nearest to Hole) : 이영현

등이다.

964-6834(B)
226-0375(R)
상업건물및 주택개발
설계, 시공, 기술상담
General Contractor
Daewha Developments Limited
대화개발주
643 Yonge St (3rd fl) Toronto Ont M4Y 1Z9

수난기의 남편들 <1>

김보경



◆김보경박사

이민이란 것이 여성에게도 어려운 것이지만 남성에게 더 큰 시련을 가져다 주는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민이란 여성에겐 혁명기이고, 남성에겐 거세기인것 같기도 하다. 남성이 당하는 외부적인 어려움도 많겠지만 아내와의 관계에서 당할만한 몇가지 조건을 말해보자.

첫째, 남편의 경제권과 결정권이 어느 사이에 탈취된다. 부부가 함께 가게를 경영하는 경우, 아무리 해도 여성이 남성보단 짜임새 있게 장사를 잘한다. 고객과의 거래도 남편보다 낫고, 장부처리도 남편보다 낫고, 물건주문도 여자가 잘한다. 그러고 보니 남편은 점차로 캐쉬어대에서 물러나가 주문된 물건이나 가져와서 진열하고, 쿨룸이나 갔다 왔다 하고, 무거운 짐이나 나르고, 가게바닥 청소나 하는 것이 자기 주임무가 된다.

이렇게 남편은 쿨룸에 서고 아내는 캐쉬어에 서있게 되고 보니 남편이 아내를 찾기보단 아내가 남편을 찾는 경우가 더 허다하다.

"이것 갖다 줘요! 저것 찾아와요."

"이것말고 다른 것 가져와요."

"빨리 줘요."

그러다가 보면

"당신은 어디가 있었소?"

또는

"왜 그렇게 느려요?"

하는 말이 나오게 되고,

"이것 주문해 줘요."

"그건 안팔려요."

하는 등의 말이 나온다.

그리고 일이 바쁘다 보니 남편을 불러도 곱게 부르기 어렵고, 급기야, "미스터 김" 아니면 "여보!"에 시옷자 받침 하나를 더 붙여 고함을 지르게 된다. 아내가 캐쉬어에 있다 보니 자연히 아내의 돈에 대한 태도는 달라져서 옛날같으면 남편과 의논해서 쓸만한 것도 혼자 결정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남편이 일하는 것처럼 나도 일한다는 생각은 남편이 50프로 권리가 있다면 나도 50프로 권리가 있다는 생각을 쉽게 나게 해서 남편에게 지고픈 생각이 조금도 나지 않는 것이다.

그리고 또하나는 남편몰래 돈을 모아 놓았다가 참으로 긴요할 때 쓰겠다는 준비성 있는 여성의 지혜를 동원해서 때로 살짝 살짝 얼마씩을 빼내어 숨겨놓는 일도 생긴다.

그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아내들은 남편에 비추어 교육정도도 낮고, 또 물질적 안정이 되어 다른 큰 야망도 없으므로 남편이 가게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겠다고 하면 온통 난리가 나는 것이다. 그래서 남편은 가게 헬퍼의 위치에 머물게 되고, 이것이 불만스러워 반항하면 할수록 더 시끄러운 변만 보는 것이다.

둘째는, 처가와의 관계이다. 대체로 장인·장모가 이곳에 이주하면 아기도 맡길 수 있고, 집안도 돌보아주리라는 기대에서 남편의 친부모를 일찍 모시기보다 아내의 친부모를 미리 초청하고, 그것도 한 집안, 아니면 가까운 이웃에 거주케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는 처가와 변소는 멀면 멀수록 좋다는 전통적 관습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일단 장인·장모가 오셔서 함께 머물면 남편은 자연히 그 기세가 위축되는 것이다.

장모님이 오신 뒤로 자기 아내가 지어주는 밥 한 그릇 얻어먹기는 더 어려워지고, 비록 좋은 반찬 많이 해서 대접한다고 해도 사위 성미에 딱 맞게할 수는 없는 것이다.

처가댁 부무님이 오신 뒤로는 자연히 아내의 관심이나 대화는 처가에 기울여지기 쉬워서 정작 시가부모나 시동생에 대하여서는 말이 없다.

딸은 자기 부모 고생한다고 남편 몰래 푼돈이라도 집어 드리고, 또 한국에 남아있는 자식 걱정하는 자기 부모 보면 딱하여 캐나다에 데려오거나 돈이라도 부치려고 한다.

이 과정을 겪고 보면 처가댁 일가친척은 조만간에 이웃에 그득하게 되어 남편은 데릴사위가 된 것같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 사위는 백년손님이란 태도는 점차로 없어지고, 오히려 사위가 웃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고 비방하고 어떤때는 사위가 자기 딸 혹사시킨다고 야단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자기 아내와 싸움했다고 해서 처남이나 동서들에게서 위협을 당하기도 한다.

요행히 남편의 부모들이 오게 되는 경우, 또 새로운 사태가 벌어진다. 처가식구 등쌀에 눌려 옴싹달싹 못하고, 또 자기 처에게 경제권까지 빼앗긴 자식을 보면 이런 병신자식 낳았던가 하는 원망이 나오고, 이를 보는 자식이 남편의 위신을 되찾으려고 발버둥쳐도 쉽게 문제가 해결나는 것은 아니다.

일이 이쯤되면 사돈끼리 사위가 못난 사람이니, 며느리가 못난 사람이니 하는 비방이 오고가게 되어, 나중 부부가 서로 좋아진다고 해도 주위에서 잘 살게 놔두지 않게끔 된다.

한국에서 같으면 딸가진 사돈이 스스로 모든 것을 양보하고 물러나게 마련이지만 여기선 딸을 떠나면 당장 안전에 위협을 받으므로 쉽게 떠나지도 못하고, 그간 또 서양풍속을 배워서 딸 가졌다고 설설 맬 것도 없고, 자기딸도 죽어라고 같이 일하는데 딸 가까이 살면 또 안될 것은 무언가 하는 마음도 생기게 된다.

결국 이틈에 끼인 남편만 자기 부모나 형제들에게 체면을 잃고, 아내에게 위엄과 위신을 잃게 되는 것이다.(계속)

골동차 특별전

블랙·크릭·빌리지

블랙·크릭·빌리지는 오는 29일(일) 오전10시부터 오후4시까지 골동차(Antique Car)특별전을 갖는다.

캐나다 클래식자동차클럽의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빌리지내 주차장에 설치된다.

이 기간중에 타운홀의 과학전도 관람할 수 있으며, 모직제조의 활동도 견학할 수 있다.

한편 21일(토)과 22일(일) 양일간 오전10시 부터 오후6시까지는 19세기 군대기동훈련 시범도 있을 예정이다.

이 행사에는 제1미시간콜로니얼 고적대, 84로열하일랜드 중대, 퀸드랜저스중대, 올루74하일랜드중대와 황실대대의 포병등이 참가 시범한다.

복고풍의 군대훈련, 화기시범, 군악연주관람과 제복을 입어보는 기회도 가질수 있다.

블랙·크릭은 주중에는 매일 오전9시30분 부터 오후5시까지 주말에는 오전10시 부터 오후6시까지 개장되며, 입장료는 성인 $4, 학생 $1.75, 가족당 $8, 노인 $2등이다.

TORONTO BOARD OF EDUCATION
HERITAGE LANGUAGES 1983-84

1983-84 토론토교육성 모국어 교육 교사채용

1983-84학년도 토론토교육성에서는 다른 34개국어의 모국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됩니다. 학급은 매주 2시간30분간 열리며, 무료입니다. 그리고 메트로·토론토에 거주하는 부모의 모든 국민학생들에게 제공됩니다.

프로그램의 학생등록을 위한 책자는 9월초 부모들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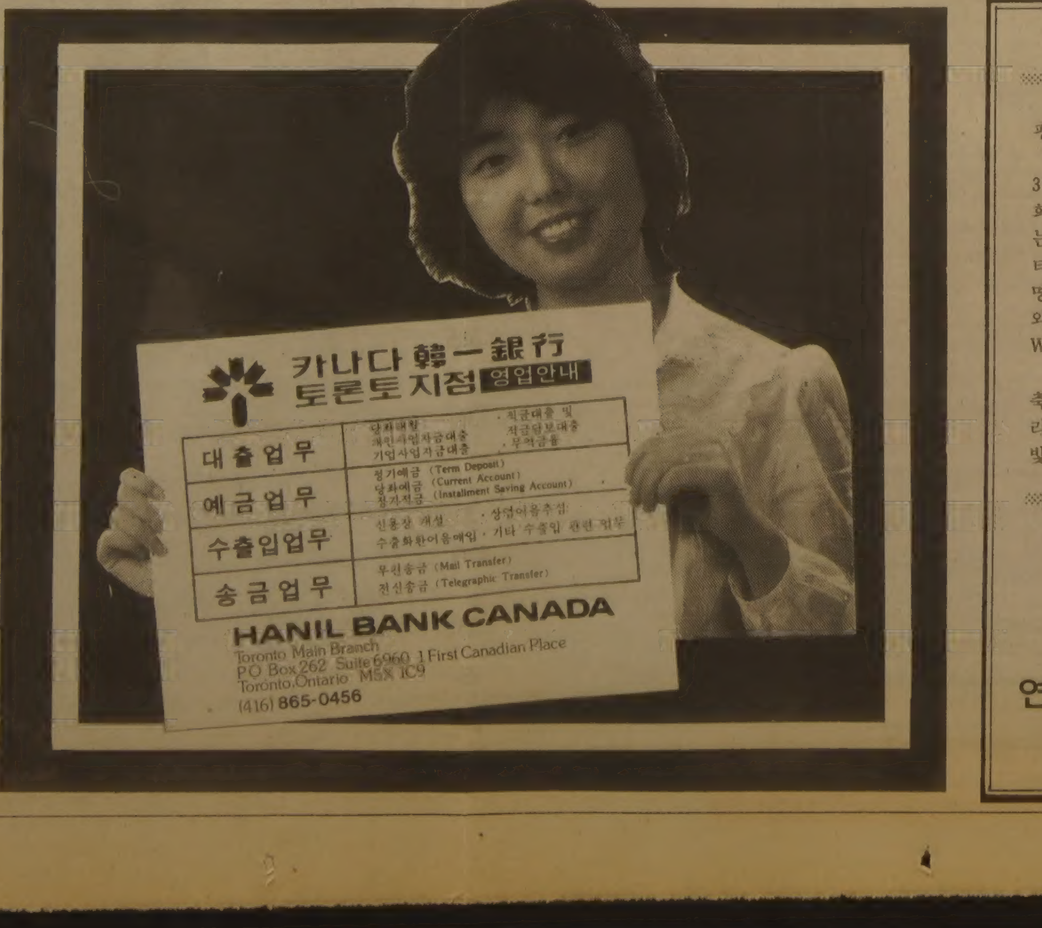
교사진

교사및 안내교사에 대한 신청용지및 프로그램은 다음으로 연락하십시오.

Toronto Board of Education
The Heritage Languages Department
155 College Street, Room 623
Toronto, Ontario M5T 1P6
Telephone: 598-4931, ext.605

프로그램에 채용된 후보자들은 부모와 학교당국에 받아져야 합니다. 선택권은 온타리오 지도증서를 갖고 있거나, 그들의 모국으로 부터의 동등한 배경, 그리고 지도경험의 관계를 고려합니다. 온타리오 증서는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신청자는 신청서를 1983년5월24일까지 완전히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더이상 자세한 내용은 위의 전화로 연락하십시요.



축하예배에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총안에서 여러분 가정이 평안하리라 믿습니다.

저희 펜티코스탈교회를 개척하여 이제까지 3년여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와 눈물로써 온갖 희생을 감수하며 봉사하여온 심상대전도사께서는 지난 5월4일 런던(온타리오)에서 개최된 펜티코스탈서부노회 주관 년차총회에서 약1,500명의 축하객이 참석한 가운데 15명의 남자목사와 함께 목사((MINISTRIAL LICENSE FOR WOMEN)안수를 받으셨읍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촐한 축하예배의 시간을 마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셔서 이자리를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축 하 예 배

일시 • 1983년 6월12(주일) 오후3시
장소 • 본교회(401×JANE S.)
300 QUEENS DR. TOR
전화 • 223-1914 ＊개별초청은 생략합니다.

연합한인 펜티코스탈교회
교우일동

레이저乘用車, 개발

포드社에서 추진, 최신科學장비 갖춰

▲미끈한 차체의 포드모델. 차의 정비상태를 여자의 음성으로 알려주는 장치도 개발중이다.

▲닛산의 미래형 모델내부로 계기판에 붙은 레이저장치가 앞차와의 거리를 조절해주기도 한다.

25년내 시판될 전망 백밀러대신 TV수상기

레이저광선으로 문을 여닫는 자동차, 백미러대신 TV수상기가 달린 자동차, 친절한 음성으로 정비상태까지 일러주는 자동차……

앞으로 25년이내엔 이처럼 최신과학장비를 갖춘 자동차들이 시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너무 초현대적이어서 마치 요즘의 자동차들이 마차나 인력거처럼 낡은 것으로 느껴질 정도라고 관계자들은 장담한다.

레이저키(Laser Key)시스템을 개발중인 것은 뷰익모델.

종래의 자동차열쇠가 필요없이 담배갑크기가 레이저시스템을 사용, 보이지 않는 레이저광선을 차에 비추어줌으로써 차를 열고 잠그게 하는 것이다.

스포츠카처럼 바람의 저항을 막기위해 땅에 착달라붙게 디자인한 납작한 차의 경우, 탈때는 6인치쯤 차체가 높아져 타는데 편하게 해줄수도 있다는 것. 동시에 좌석, 브레이크나 액셀레이터 페달, 핸들 그밖에 내부 운전장치들이 운전자의 기호에 맞춰 자동적으로 조절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모든 것이 레이저시스템으로 이루어지는데 운전자가 바뀌면 또 스페셜코드를 다시 집어넣어 그의 기호에 맞게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운전자가 일단 타고나서 문이 닫기면 차체는 운전위치로 돌아가며 핸들의 한부분에 레이저광선을 비추면 차가 출발한다는 것.

백미러대신 TV수상기가 달려있어 뒤를 쉽게 자세히 볼수 있으며, 점차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 차는 자동적으로 바람의 저항을 줄이기위해 차체의 앞은 낮아지고 뒤가 올라가는 포지션을 취하게 된다.

포드가 개발중인 한모델은 핸들에 경보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다.

핸들에 붙은 버튼을 누르면 상냥한 여성의 음성으로 현재 차의 정비상태를 알려준다.-「오일을 갈아야 하겠읍니다. 브레이크상태는 아주 좋습니다」등등.

포드모델도 역시 컴퓨터화된 좌석으로 버튼만 누르면 미리 프로그램화한대로 좌석, 핸들등 모든 운정장치가 운전자의 기호에 맞게 조절된다.

한편 니산모델의 혁신적 레이저장치는 앞차와의 적정거리 유지, 앞차와의 거리를 측정 만약 앞차가 너무 느리게 가면 자동적으로 차의 속력을 줄여주도록 해주고 있다.

금년에는 유럽여행을 … 영국편①

펍(PUB)은 주막겸 집회소

김창범(신세계여행사 대표)

◆김창범씨

생활의 안정화와 북미관습의 영향을 받아서인지 우리사회에서도 가족끼리의 관광이나 휴가여행 이야기가 자주 나온다. 열심히 일해 돈은 벌었으나 피로가 겹쳐서 짜증밖에 나지않을 때는 여행이 효과적인 스트레스의 치료방법이다.

특히 금년들어 미국의 「달러」가격이 국제외환시장에서 10년래 최고수준에 육박, 미국돈 가치와 연결된 캐나다돈을 가진 우리는 지금 유럽여행을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가능한한 단체관광을 택하되 사전에 방문지에 관한 예비지식을 가지고 떠나기 바란다.

영국

도버해협을 사이에 두고 유럽과 떨어져 있는 이나라는 대륙과 다른 점이 많다. 거므스레한 건물이나 시민들의 옷등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속에 일종의 안정감과 무게가 엿보인다.

그러나 경제적으로는 대영제국의 권위를 상실한채 파운드화의 가치를 지탱해 가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한편 세계적인 「비틀즈」와 「미니 스커트」의 유행을 만드는 등 새시대의 첨단을 달리는 진취적 기상도 있다.

영국은 기원전 55년 「시저」의 침략으로 약450년간 로마의 세력하에 있었다. 서기 450년경 「앵글로」, 「색손」 및 「스캇트」등 제부족이 대륙으로부터 침입하여 현주민인 「브리톤」족을 몰아내고 여러 왕국을 전립했다. 827년 통일된 「잉글랜드」왕국이 되었으나 11세기경 「노르만」족이 대륙에서 침입하여 분쟁을 계속하다가 13세기 유명한 「마그나·칼타」(대헌장)가 제정되었다. 그후 100년전쟁을 거쳐 19세기에 「빅토리아」여왕의 황금시대를 만나 오늘의 영국으로 형성되었다.

일찍부터 입헌군주국으로서 의회정치의 모범이 되었으며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스리·랑카」, 「가나」등을 회원으로한 영연방의 종주국이다. 현 「에리자베스」 2세여왕은 1953년 즉위, 소위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상징적 수반으로 연방을 대표하고 있다.

영국의 대표적 요리는 「로스트·비프」와 「스모크트·샐몬」. 특히 레몬즙을 약간 쳐서 먹는 「스모크트·샐몬」(연기에 그슬린 연어) 맛이란 잊혀지지 않는다. 식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것이 「PUB」의 존재이다. Public House, 즉 대중식당의 약자로서 런던에만도 4천개나 있다. 이곳은 영국지역사회의 집회소이며 지방주민의 안식의 주막집이며 간단한 식당이다. 여행자로서 꼭 볼만한 곳이며 자기특유의 영국요리를 해주는 곳이 많고 가격도 비싸지 않다.

아침식사는 「콘티넨탈」식이지만 양도 많고 종류도 많다. 영국인은 홍차를 즐겨 마신다. 식사중 「크림」을 듬뿍 쳐서 들며 두번, 세번, 더 달라고 할 수 있다. 식후는 보통 커피를 마신다. 술은 「스캇치·위스키」의 본고장이지만 영국인들은 맥주를 즐긴다. 청량음료수는 북미에 있는 것을 대부분 판다.

◆영국 런던시내의 명물중의 하나인 2층 버스. 뒤로 국회의사당의 시계탑이 보인다.

〈연재소설〉

혼돈 ㉕

글·이태준 그림/최미정

제2편 착수

낚싯대를 쥐고 있던 내 손에 툭툭 잡아채는 신호가 왔다. 고기가 입질을 할 때마다 나의 낚싯대의 끝은 휘청거리고, 내 손에는 야릇한 쾌감이 왔다. 그러나 나는 고기가 완전히 미끼를 삼킬 때까지 릴을 감아 올리지 않았다. 한동안 입질만 하고 있던 고기가 더 이상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낚싯대의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 잠잠하던 낚싯대가 갑자기 활처럼 휘며 내 손에는 강한 충격이 전달되었다.

나는 빠른 속도로 릴을 감아 올렸다. 마다거리며 끌려오는 촉감이 낚싯대를 통해서 내 온 몸에 확산되었다.

"아! 큰게 물렸구나."

그대로 계속 감아 올리면 낚싯줄이 끊어질 것같이 줄이 팽팽히 당겨졌다. 나는 감아 올리던 동작을 멈추고 낚싯줄을 다시 풀었다. 빠른 속도로 풀려나가던 줄을 다시 감기 시작했다. 온 몸에 짜릿짜릿한 전율을 느끼며 줄을 감았다. 나는 고기가 지쳐 순순히 따라올 때까지 줄을 풀었다, 감는 동작을 반복했다. 줄을 감으면 팽팽히 맞서고, 풀면 민첩하게 도주하던 고기가 드디어 물위로 부상해서 등을 보였다. 그것은 고기가 지쳐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나는 탄성을 지르며 줄을 감기 시작했다. 흥분과 긴장이 풀린 내몸에도 피로가 몰려왔다.

온 몸에 땀을 비오듯이 쏟으며 절정의 상봉에서 괴성을 지르던 조사장이 내 몸위에서 스르르 미끄러져 내려갔다.

한동안 나와 그의 가쁜 숨소리가 이상한 화음을 이루며 방안의 공백상태를 메웠다. 어느 정도 호흡을 진정시킨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여기저기 방바닥에 흩어진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벌써 갈려구?"

조사장이 쉰 목소리로 물어도 나는 대꾸도 않고 옷을 입은 다음 적당히 머리를 매만지고 핸드백을 들었다.

"잠깐!"

그는 침대에서 내려와 바지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나가려는 나를 제지시켰다.

"다른 용무가 또 있으세요?"

"이거 가지고 가라구."

그의 손에는 돈이 쥐어져 있었다. 그러나 나는 거들떠 보지도 않고 방을 나와 버렸다.

◆

집으로부터 안심할만한 거리까지 빠져나왔을때 영수는 긴장이 풀리고 죄의식이 찾아왔다.

"나는 절도범이다. 나는 절도범이다."

하는 무서운 소리가 그의 내부와 외부에서 외치고 있는 것같았다. 그러나 그의 죄의식은 부모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찬 그의 마음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했다.

(어째서 내가 절도범이냐? 나와 미영이를 이렇게 만든 사람은 누군데)

영수는 죄의식을 정당화시켜도 여전히 마음이 피로웠다. 서로를 이해할 수 있고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와 함께 있고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집을 나와 혼자 살고있는 태영을 만나고 싶었다.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미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영수는 공중전화를 찾아 다이얼을 돌렸다. 자고 있으면 한참 걸리리라고 생각했던 전화의 응답이 첫 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왔다.

"여보세요?"

"태영이니? 나야!"

"오! 영수구나. 웬일이니? 꼭두새벽에."

"갈곳이 없어 전화했어."

"너도 집을 나온 모양이구나."

"나온게 아니라 쫓겨났어."

"가만 있어봐, 지금 나혼자 있는게 아니거든."

수화기 속에서는 태영이의 말이 끊기고 서너명의 남자애들이 수군거리는 잡음이 들렸다.

나의 낚시대의 끝은 휘청거리고

내손에는 야릇한 쾌감이

"됐다. 우리는 만장일치로 너를 받아들이기로 했어."

태영은 얻은 납득이 안가는 소리를 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니?"

"와보면 알아. 그런데 차는 꼭 끌고 와야돼. 차 때문에 너를 받아들이는 거니까."

점점 모를 소리를 지껄이고 태영은 전화를 끊었다.

(만장일치로 받아들이다니? 차를 꼭 끌고 와야 한다니?)

영수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으나 호기심으로 가슴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영수는 차를 세워둔 타번옆 파킹장까지 가지 위해 공중전화박스 안의 옐로페이지를 뒤적거려 택시를 불렀다.

영수가 태영의 아파트에 도착하여 문을 열었을 때, 담배연기가 가득찬 비좁은 아파트 안에는 태영과 세명의 그의 친구가 술을 마시며 회회덕거리고 있었다.

"어서와, 우리는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는 중이다."

"음모라니?"

영수는 태영의 소개로 다른 세명과 인사를 나누고 자리게 앉으며 태영을 쳐다보았다. 그는 술이 얼큰히 취해 있었다.

"우리는 털기로 했어. 침대밑에 깔아두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털기로 했어."

태영은, 영수의 자리앞에 빈잔을 갖다 놓고 술이 철철 넘치게 부으며 큰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어차피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버려진 쓰레기들 아닙니까?"

"힘들게 벌어서 힘들게 산다고 우리를 알아줄 사람은 이세상에 하나도 없읍니다."

"왕창 벌어서 신나게 한번 살아보는 거지요."

태영의 말을 이어 세명의 친구들이 한마디씩 거들었다.

영수는 태영이 철철 넘치게 따라놓은 술잔을 단숨에 비웠다. 독한 위스키가 씁쓸한 맛을 내며 화끈화끈 식도를 자극했다.

"우리 넷은 이미 서약의 잔을 들었어. 그리고 차가 없어서 궁리를 하고 있었던 중이야. 그런데 차를 가지고 있는 너한테서 전화가 왔어. 이것은 우연의 일치만은 아니야. 뭐가 될 징조라고."

태영은 영수 앞의 빈잔을 다시 채우며 영수의 눈치를 살폈다.

"거 심각할 필요 없읍니다. 쓰고 남아서 처치곤란한 돈을 우리가 대신 소비해 주는 것 뿐이니까요."

눈썹이 많고 바싹 마른 만영이라는 친구가 답답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우리는 네가 이 잔을 비우면 우리와 뜻을 같이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박수를 치겠어."

태영은 영수 앞에 놓인 잔을 내려다 보며 은근히 재촉했다.

(어떻게 할까? 내 앞에 놓인 잔을 엎어 버리고 나가 버릴까? 아니면 이 서약의 잔을 들고 박수를 받을까?)

"우리를 실망시키지는 마세요."

눈이 커서 겁이 많아보이는 수한이라는 친구가 영수에게 더욱 가까이 잔을 밀어놓으며 어설픈 웃음을 웃었다.

영수는 잔을 들어 마시기 시작했다. (계속)

에어로빅댄스란

에어로빅 운동이란 무엇인가? 최근 에어로빅 댄스의 열기는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모아 새로운 체력단련의 프로그램으로서 등장했다.

이것은 운동을 잊어버리고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쉽고 재미있게 배울수 있도록 만든 운동이다. 이것을 배우기 위해 특정한 장소에 가지 않더라도 혼자서도 할수 있고 친구들이나 그밖의 온가족이 함께 모여 할 수도 있다.

에어로빅 운동이란 무엇이며 과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에어로빅 운동은 우리가 숨을 쉴때 산소가 체내에서 세포조직에 전달될때 그것을 빠르게 충분히 흡수 할 수 있는 능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킬수 있도록 돕는 운동이다.

이 운동을 할 때에는 끝나는 시간까지 계속해서 호흡을 조절하며, 숨을 깊숙히 들이마시고, 내쉬는 일을 계속 유지 해야만 하며 이것을 반복하는 동안 심장은 보통 때 보다 더욱 빨리 움직이고 많은 땀을 흘리게 된다. 이 운동이 혈액 순환을 도와 심장의 맥관 기능이 더욱 활발해지고 강해지며 폐활량이 좋아지고, 근육과 몸의 세포조직이 보다 유연해 진다.

또한 민첩성, 지구력이 생기게 되고 우리의 몸을 보다 탄력있고 균형잡힌 건강한 상태로 유지 시켜준다.

댄스로서의 에어로빅 운동은 음악과 율동이 한데 어울려 보다 리드미컬 하게 움직이는 운동으로 정신적으로 오는 긴장과 스트레스와 육체적으로 부족되기 쉬운 운동과 피로를 충분히 해소 시킬수 있는, 쉽고 재미있는 운동이기도 하다.

이밖에 온가족이 함께 즐길수 있는 에어로빅 운동으로서는 조깅 줄넘기 수영 테니스 등을 들수 있다. 하루중 약간의 시간을 자신에게 할애해서 보다 건강하고 밝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권하고 싶다.

한국어교사 모집

토론토 교육위원회의 모국어 교육부(Languages Department)는 한국어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

응모자격은 온타리오주에서 교사자격증을 소지했거나, 모국에서 이와 상응되는 경력을 가진 사람, 교사경력이 있는 사람이다.

응모자는 소정의 응모서류를 5월24일까지 155 College St. #623의 토론토시교위 모국어과로 제출하면 된다.

전화번호는 598-4931 Ext. 605이다.

토론토시교위는 메트로·토론토 거주 학생들에 34개의 모국어를 매주2시간반씩 무료로 가르치고 있다.

약력—
1954년 도미
세인 존스대학 졸업
콘코디아 신학교 졸업
시카고 대학에서 신학박사학위획득
뉴욕 콜롬비아 대학
인디아나 VALPARAISO대학
세인 루이스 콘코디아 신학교
워트버그 신학교(현재) 교수등 역임

제1 회 토요강좌 안내

강연과 좌담의 밤

강사 : 강 위조 목사

강연주제 : "기독교도와 막스주의자의 대화"
일 시 : 1983년 5월28일 오후6시30분
장 소 : INN ON THE PARK

위와같이 본회 제1회 토요강좌를 개최코져 하오니 참가하실 분은 조속한 신청을 바랍니다.

회 비 : 1인당 $20(디너포함)
초청인원 : 40명(선착순으로 하고 예정된 인원에 도달하면 마감함.)
연락및 참가신청서 : 뉴코리아타임스사
전 화 : 925-3259, 3250

주최 : 토요강좌를 마련하는 회 후원 : 뉴코리아타임스

실협뉴스
K.B.A.NEWS
ONTARIO KOREAN BUSINESSMEN'S ASSOCIATION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627A BLOOR ST W
TORONTO ONT M6G1K8
533-7923-4
COMPLAINT CENTRE
(HOTLINE)
533-8344

협동조합, 7월개업
『신의상사』 인수로

◆이춘수위원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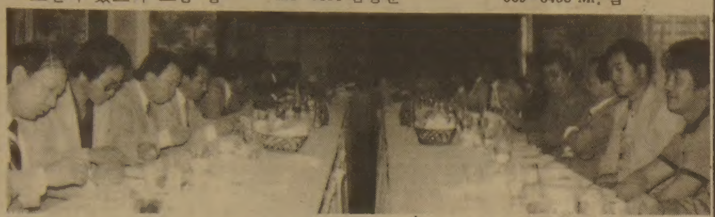
5월17일 하오8시부터 시내 Downtown Holiday Inn에서 개최된 임시이사회에서 한국인이 경영하고 있는 도매상인 「신의상사」(사장 문인식)를 매입할 것을 가결함으로써 필요한 절차와 준비를 거쳐 7월중순에는 대망의 협동조합이 문을 열게 되었다.

장기간의 끈질긴 협상끝에 2~3주전까지만 해도 인수의 관건인 금액의 격차로 거의 절망적이어서, 인수 아닌 신설을 전제로 준비에 착수했었으나, 최근 쌍방의 의견이 전격적으로 접근, 급진전을 보게 된 것이다.

이사회가 승인한 내용은 「신의상사 매입이 협동조합의 모체가 되는 것을 전제로 그 사업체를 $39만 + $6만(Chattel Mortgage)에 매입할 것을 승인한다」는 것이다.

여러가지 세밀한 부대조건이 있으나 그중 중요한 것은 담배「라이슨스」와 ITWAL회원자격의 명의를 협동조합으로 이전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으로 들어있다.

이번 매입성공은 협동조합추진위원 일동과 회장단, 이사장단의 끈질긴 노력의 성과로서 특히 이춘수 위원장의 공이 높이 평가되고 있다.


◆신의상사 인수를 가결한 이사회 모습.

K.B.A. 교환센타

▲Hardware Stock이 많이 있음.
원하는 물품만 소량이라도 염가로 제공함.
(669-6438 Mr. 염)

▲Bulk Cabinet 6 Feet(Scoop Ice Cream Cabinet)구함.
276-3266 김요현

▲Used Cash Register 구함.
421-5151 김용준

▲선반2개(길이 4" × 높이 6")
진열장 1개(길이 5" × 높이 4") 팝니다.
531-7556 오후6시이전
248-2636 오후6시이후

▲잡지 Rack 4"넓이 × 6"높이
Shelves 4"넓이 × 6"높이 팝니다.
669-6438 Mr. 염

제3차 회의개최
백커 담배가격 관계

5월16일(월) 하오4시 협회회의실에서는 벡커의 담배가격문제에 관한 제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12명의 관계회원과 차선겸 회장, 서준경 이사장, 조기연 부회장, 이춘수 부이사장이 합석하였다.

온타리오주 정부의 신예산안에 의해 5월10일부터 실시된 담배의 도매세 5% 인상과 7%의 판매세 징수에 따른 관계회원들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모임이었다.

그동안 거의 원가에 가까운 가격인 $1.49(L)와 $1.19(S)로 양측이 팔아온 담배가격은 싸인을 공동으로 부착한 이후에 5~6개 상점이 서로 철수하여 원상복구하였고, 5월10일을 기하여 벡커측에서는 한두곳을 제외하고는 일률적으로 인상폭 만큼만 가산한 $1.57(L)과 $1.25(S)에 판매하고 있음이 관계회원들의 진술에 의해 판명되었다.

협회측에서는 회원상점 매상의 약30%를 차지하는 담배가 가게운영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심각성에 비추어 같은 피해를 입고 있는 벡커 후랜차이스 협회의 김병진 회장의 협동을 빌어 가능한한 원만한 타결을 보고자 벡커회사의 간부측과 접촉을 시도해 보았다. 그러나 매우 비협조적인 반응을 보였고, 결국 차회장이 직접 벡커사장과 통화하여 5월18일(수) 상오9시 만나자고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였으나, 그 어조가 1,200명을 대표하는 협회장을 대하는 것이 아닌 매우 경시하는 태도였으므로 별로 성과를 기대할 수가 없어서 면담여부를 간부진과 상의하여 재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차회장은 관계회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이에 대처하는 방법을 결정하고, 협회에서 뒷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하였다.

장시간에 걸쳐 각자가 생각하고 있는 의견과 대책을 신중히 논의한 결과 우리의 염원인 협동조합의 탄생시까지 피해회원 각자가 적절히 대응하되 담배의 가격은 큰 싸이즈는 벡커보다 4전이 싼 $1.53으로 하고, 작은 싸이즈는 동일하게 $1.25를 받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Fire Work 판매규정
Fire Cracker는 판매금지

5월23일의 Victoria Day와 7월1일의 Dominion Day가 다가오면 이 축제에 사용하는 Fire Works와 Fire Cracker를 찾는 고객들이 많아지고, 상점에서는 이를 판매하기에 바빠지게 된다.

연전에 「스카보로」지역에서 이러한 상품을 판매하다가 경찰에 입건된 사실이 있고, 근간 경찰관들이 상점을 방문하면서 소지여부를 조사하는 예가 있어 일부회원들이 불안한 나머지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가 상담실을 통하여 들어오고 있다.

협회가 당국에 문의한 바에 의한 Fire Works의 취급규정은 아래와 같으므로 회원들은 착오 없도록 하기 바란다.

(1) Fire Works만 팔 수 있고 Fire Crackers는 판매를 금한다.
(2) 면허나 허가는 필요없다.
(3) 판매허용 기간은 Victoria Day(5월23일)와 Dominion Day(7월1일) 전 7일간에 한한다.
(4) 18세미만의 연소자에 대한 판매를 금지한다.

이상의 규정은 City of Toronto 관할경찰과 Scarborough 관할경찰 당국에 문의한 동일한 답변이므로 기타지역에도 적용되는것으로 보인다.

이밖의 지역에서 상점을 경영하는 회원으로서 보다 정확을 기하기 원하는 회원은 자기 소속 경찰서(Division)에 문의하여 주기 바란다.

전화는 967-2222에 걸어서 주소를 대면 관할 경찰서를 알려준다.

Dempster 빵 공급
후렌차이스 제도로 전환

Dempster빵회사에서 써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route를 재조정한다고 한 조처가 5월9일(월) 첫날부터 큰 혼란을 초래하여 회원가게중에는 1주일내내 빵공급이 없어서 사업에 큰 지장을 초래한 사례까지 발생하였다.

그뿐 아니라 주에 4회 공급하던 것을 2회밖에 못한다고 하여 일주일내내 협회 전화벨이 그칠 사이가 없었다.

탐문한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회사직속운전사들이 배달하던 제도를 「후랜차이스」로 바꿈으로써 초래된 현상이었고, 협회는 문제에 관련된 회원명단과 실태를 그때그때 회사에 전하여 Special Delivery등으로 응급조치를 시도하였으나 「후랜차이스」로 전환된 앞으로의 써비스 개선은 크게 기대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있다.

따라서 현재 가장 회원거래선을 많이 가지고 있고, 협회의 자체빵인 O.K. Bread를 공급하고 있는 「뎀스터」회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밀크나 아이스크림같이 제2, 제3의 공급회사를 물색하여 회원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고, 따라서 써비스가 개선되는 방향으로 협회에서는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협회와 거래하고 있는 회사는 Dempsters와 General Bakeries의 2개회사로서 전자가 360개, 후자가 97개의 Account를 가지고 있다.

Dempsters는 KBA 자체빵인 O.K. Bread를 450G은 60센트에, 그리고 675G은 70.9센트에 공급하고 있고, 기타 빵제품에 대해서는 7%의 리베이트를 3개월마다 지급하고 있다.

General Bakeries는 8%의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있는데, 월매상 $400이상의 거래선에게는 반납이 허용되고, 반납 없는 조건으로는 5%를 추가지급하고 있고, $400이하의 거래선에게는 반납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CROWN LIFE—

치아보험카드 발송지연 사과

2월1일부터 소급 실시하고 있는 단체치아보험이 계약대로 500명을 돌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입회원이 치료시에 의사에게 제시할 카드를 아직 못받고 있고, 현금을 지불하고 치료한 대금의 환불이 지연되고 있어 문의전화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협회는 보험회사에 정식으로 항의하고, 그 이유를 묻는 동시에 명확한 회신을 요구한 바 아래와 같은 회신이 왔으므로 회원제위는 약3주만 더 참아주기 바란다고 한다.

◆◆

KBA단체치아보험의 정상실시와 치료비의 환불이 지연되고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이유는 필요한 500회원의 신청을 접수한 가운데에서 약140건이 수표미수, 부정확한 수표발행, 은행자동인출 서식에의 서명 누락등으로 신청절차가 완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측에서는 모든 신청절차의 하자가 보완되는대로 즉시 실시하겠다고 하나 본인이 5월13일(금) 담당책임자들과 회동한 결과 바로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치료비의 환불은 3주후부터 실시하기로 되었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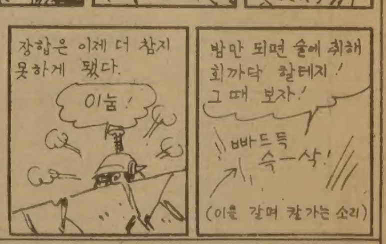
모든 지연과 이로 인한 불편을 다시금 사과드립니다.

한가지 부탁은 환불을 신청하실 때에는 반드시 사업체의 주소를 기입하여 착오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221-2654(B), 826-9138(R)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16일
Craig Heads

THE KOREA TIMES is a Canadian daily in Korean language serving the Korean Canadians, Established 1974, Lawrence Kim publisher, Woon Y. Kim editor, Kwang Song ad. manager, Subscription $110/yr, $10/mo.(구독료 선금, 연 $110, 월 $1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요한화랑·기독교회관
각종종교서적
액자 및 성화
초상화
☎: 532-7909
549 BLOOR ST

광고를 원하십니까
광고국에 문의하세요 도움이 될것입니다.
한국일보 광고국
533-2361

週刊한국
●신문에 안난 事件현장
●김웅신의 「人間市場」
●한국 最新 人脈을 편다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678 BLOOR ST. WEST
☎ 532-0210 손 병 헌

Welcome to K.B.A.

— 금주의 신입회원 —

Clover Leaf Motel	최 우 덕
Dominion Donut	정 창 우
Simon's Coffee Shop	박 화 용
Elsie's Ice Cream Shoppe	김 복 희
Rim's TaeKwon-Do School	임 송 학
Cafe Ja Ya	허 정 자
West Hill Variety	곽 기 문
Step-In Corner Mart	정 상 섭
Pik Kwik	송 병 윤
A & J Tuck Shop	민 병 국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歡 迎

Donut업을 경영하는 동업인들이 실업인협회의 힘을 배경으로 한데 뭉쳐 계속적인 공동구입 활동을 통하여 우리에게 유리한 딜을 추진하고자 하오니 함께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Honey Dip Donut	강 준 남
Donut Shack	조 충 원
Health Bread Bakery	배 용 빈
Bentley's Donut	정 영 식
Donut Castle	호 민 식
Fun Donut	양 운 택
Royal Donuts	이 양 섭
Dutch Mill Donuts	강 영 자
Smile's Convenience Deli	박 원 용
Dominion Donut	전 문 식
Crescent Town Ice Cream Parlour	김 신 기
St. George Donut Shop	최 창 복
Donut Castle	강 태 영
Smitty's Pancake House	이 청 우
Mr. Donut	김 기 백
Donut Man	박 용
Coffee Cave	황 성 봉
Mr. Donut	영동환 이동혁
Donut City	성 창 근
Donut Castle	최 창 림
Smile Donuts	배 석 구
Harold's Deli	이 기 대
Muffin Break	이 훈 모
Jasper's Deli	한 기 연
The Harvest	유 진 선
Harvest Donut	김 기 백
A & A Variety & Snack Bar	김 재 윤
Donuts & Dogs	정 창 판
Town Ice Cream & Donut	김 진 혁
Donimion Donut	정 창 우
Rexdale Snack Bar & Variety	나 상 선
Simon's Coffee Shop	박 화 용
Elsie's Ice Cream Shoppe	김 복 희
Cafe Ja Ya	허 정 자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도나스업분과위원장 강준남

YORK
YORK ICE CREAM
A DIVISION OF CANADA PACKERS LIMITED

PROMOTION

품명 – Canterbury 1 ltr.
종류 – Vanilla
Chocolate
Heavenly Hash
Brickle Peacan Crunch
기간 – 4월21일~6월22일
원가 – 개당 $2.05
4개 $8.20
싸인 – 윈도우싸인과 캐비넷싸인제공

여름철을 앞두고 Premium 아이스크림 스페셜을 장장 2개월간 실시하오니 실협회원의 이용을 바라고 적정소매가격은 $2.39를 권합니다.

首都圈 12개 生活圈으로

10개 都市를 집중개발
91년 서울人口 9백60만으로

國土開發硏、수도권整備 기본계획안 마련

정부는 과밀현상을 보이고있는 수도권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키위해 수도권을 5개圈域、12개地區生活圈으로 나누고 각지구의 특성에따라 개발 정비 보전업무를 추진해갈계획이다。

이를위해 1차성장거점 도시인 大田 光州등의 생활편익기반을 확충하고 利川 平澤등 수도권 10개도시를 집중개발하는 한편 수도권의 광역교통망및 광역용수공급체제를 확충키로했다。

또한 각권역별로는 인구분산、산업배치、도시정비지침등을 마련해서 인구및 각종기능의 집중현상을 규제키로 했다。이같은 계획은 국토개발연구원이 건설부의 용역의뢰로 수립、13일 공청회에 넘긴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안에서 밝혀졌다。

오는 91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한 이기본계획안은▲수도권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인구 산업비중을현수준에서 유지토록 조정하고▲한강이북지역에 인구증가를 초래할산업시설등을 강력히 제한하고 이를 한강이남으로 유도하여 인구의 南進的분산을 실현하며 ▲서울은 수도로서 중추적역할을 담당하되 서울시와주변도시간에 상업 업무 교육 문화 위락기능등의 분담으로 수도권을 多核的廣域 대도시권으로 만드는것을 기본목표로 삼고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91년의 서울인구는 9백60만명、수도권인구는 1천5백72만명으로 억제하여 전인구에 대한 비중도 서울은 21.3% 수도권은35.0%로 현재와 같은 수준을 유지케된다。

수도권기능의 적정배치를 위해 서울엔 국가적중추관리기능은 발전시키되 기타기능은 선별적으로 분산하고 仁川—牛月—牙山灣을 연결하는 서해안에는 이전촉진지역과 제한정비권역서 이전되는 공장을집단배치토록했다。

京釜고속도로軸에는 도시형공업과 비공해성 산업을 배치하며 서울에서 그비중이 낮아진 종합건설업、전기가스및 수도사업、운수보관업종도 서울시주변지역으로 분산 배치토록했다。

이와함께 수도권지역의 利川 平澤은 성장중심도시로、安仲 南陽 發安 朝岩은 신공업도시로、龍仁 烏山 昆池岩은 근교주거도시로 집중개발하며 松炭을 市로승격시키도록했다。이들도시들은 91년까지 2~18만명의 수용도시가된다。

또한 수도권엔 광역교통망확립을 위해▲서울시내의 도시고속도로 신설▲京仁 京釜고속도로의 확장▲牛月—新葛 城南—板橋 仁川—牙山灣간의 고속도로 신설▲城南—仁川 城南—龍仁간 철도신설▲제2공장계획등이 포함되어있다。

被拉機 조기발견 對處

정부、國防委서보고

◇尹誠敏국방장관이 13일하오 국회國防委에서 中共여객기 被拉착륙사건과 北傀 신중철대위의 귀순내용 경위등을 보고하고 있다。

국회 國防委는 13일하오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최근의 中共 여객기 被拉불시착 사건의경위와 우리가취한 戰術조치및 北傀신중철대위의 귀순에대한 정부측 보고를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이날 尹誠敏 국방장관은 中共여객기 사건에대한 보고에서『5월5일 하오1시25분 平壤북방 30마일상공에서 被拉부호를 알리는 문제의 여객기를 포착、同機가 南下함에따라 永宗島상공을 哨戒비행중이던 2대의 F5A의 임무를 전환시킨것을 비롯、F5E 8대를 출동시켰고 이어 DMZ를통과、南下하자 2대의 F4E 팬텀기를 추가로 긴급출동시키는한편 하오2시 民防衛본부에서 경계경보를 발령했다』고 밝히고 출동된『수개의 전투비행편대는 再北上하려는 同여객기의 退路를 차단、하오2시10분 중부전선○○기지에 誘導착륙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는『우리공군은 현대화된 레이다장비로 航體를 早期발견、中共機에 대해 필요적절한 早期戰術조치를 한치의 誤差도 없이 수행하는한편 同機가 휴전선上空을 越境時국방부까지、또 착륙전 장관에까지 상황이 보고되는등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했다』고 말하고『軍은 北傀의 IPU(국제議會연맹) 총회의 방해책동및 綠陰期도발에 대비하여 경계태세와 즉각對應태세를 강화중』이라고 보고했다。

尹장관은『지난6일 귀순해온 北傀軍 신대위의 귀순동기는 그가 11년에걸친 民警부대생활과 과중한 업무에 불만을 가졌고 평소 자유대한의 생활상에 동경을한 나머지 귀순을 결심하게되었다』고 말하고 귀순에대한 자세한내용은 오는17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통해 밝히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運營制度연구 小委」구성

국회는 13일상오 運營委員會를 열고 야당이제출한 국회법개정안의 심사와 전반적인 국회운영제도를 연구개선하기위한「국회運營제도연구小위원회」를 구성했다。

民正·民韓·국민등 3黨은 지난4일 3黨3役회담을갖고 그간 정치적爭點이 되어온 국회법개정문제와 관련、지난4월말로 時限이 만료된 운영위산하의 국회법심사小委를 발전적으로 解體하고 대신 研究小委를 구성하자는데 합의했었다。

국회운영제도연구小委는 尹碩淳의원(民正)을 위원장으로 李致浩 南在斗(이상民正) 朴寬用 金永俊(이상民韓) 林德圭(국민) 白璨基의원(議政) 등 7인으로 구성됐다。

한편 尹위원장은 16·17일께 1차小委모임을 가질 예정이며、6월하순께 美國 英國 日本등지에 小委위원들을 파견、우리제도와 선진제도를 직접 비교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中共 국가主席 李先念

6월 全人代서 선출확실

【北京AP=聯】現중공당정치국상임위원회 위원이며 經濟通인 李先念(78)이 오는6월6일 개막되는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代) 전체회의에서 최근 부활된 국가주석으로 선출될것으로 확실시된다고 중공소식통들이 12일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周恩來前首相의 측근이었으며 현재 黨內서열 5위인 李先念이 최근에 열렸던 黨中央委員會서기처나 정치국회의에서 국가주석으로 최종지명되었다고 말하고 李의 국가주석지명결정은 오는6월6일 개최될 예정인 全人代전체회의에서 승인될것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앞으로 수일내에 黨中央委員會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李先念이 국가주석의 유력한후보로 부상하기전 실권자인 鄧小平이 물망에올랐었으나 鄧자신이 업무과중을 이유로 사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부터 시행된 중공新憲法은 국가주석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15년전 毛澤東에의해 국가주석제가 폐지되기까지 국가주석을 역임한 故劉少奇가 행사했던 권한의 쪽만큼 광범위하지 않다。

果川청사등 순시

金相浹총리

金相浹국무총리는 13일상하오에 걸쳐 지하철 종합사령실및 88올림픽 승마경기장、南서울대공원과현대미술관 공사장등 주요건설현장을 차례로 돌아보고 공사진척 상황등을 살폈다。

金총리는 이날 상오 서울 江南區 方背洞에 들러 지하철2、3、4호선건설현황을 보고 받은뒤『지하철이 완공된후의 안전운행을 위한 시설설치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金총리는 이어 果川정부제2청사에 들러 최근 종합청사에서 이곳으로 이전한 법무부 농수산부및 비상기획위원회를 각각 순시했다。

81년도産 쌀導入확약

李外務訪美때…美 農務省 차관밝혀

【워싱턴=李文熙특파원】미하원농무위 면화·쌀·설탕小委는 12일 한국정부가 81년도 미국산 쌀도입계약이행에대한 청문회를 열고 농무성、국무성、관계회사들의증언을 들었다。

이날 제리·허카비小委위원장은 한국정부가 81년산 미국산쌀50만톤을도입계약한후 82년산쌀이 나오기전까지 도입이행한것은 25만톤뿐이라고 말하고 나머지 계약이행에 대해 美행정부의 대책여부를 물었다。

이에대해 농무성 리처드·림차관은 한국정부의 계약이행문제가 현재 계약사와 경쟁사간에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밝히고 지난3월부터 선적이 재개돼 11만톤이 수출되었으며 나머지 이행에 대해 한국정부에 이를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폴·월포비츠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국무성은 문제해결을 위해 농무성과 긴밀히 협조중이며 이런 美정부의뜻을 지난번 슐츠의 訪韓과 최근 李範錫외무장관의 訪美때 한국정부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한국정부는 이의 이행을 확약했다고 말했다。

월포비츠차관보는 韓·美간의 절충하는 관계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문제가 이렇게 오래끈것은 유감이라고말하고 한국정부가80년도 계약분에대해서는 완전이행함을 유념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과의 쌀수출계약사인 코메트미곡회사사장 제럴드·머피씨는 한국정부는 약속이행을 하려애쓰고 또 우리측에 조속한 수출을 요구하고있다고 전제한했다。

◇"美女탄생"… 감격의 순간 금년도 美의 정상으로 선발 된 순간, 미스·코리아 眞 林美淑양(左)의 감격에 찬 환호。흥분과 기쁨속에 두팔을 쳐들고 눈물을 터뜨리고 있다。오른쪽은 미스 코리아 善 金善美양。

印下院의장 來韓

印度의 발람·자카下院의장을 비롯한 의원단8명이 蔡汶植국회의장의 초청으로 15일하오 來韓한다。

자카의장일행은 滯韓기간중 입법부와 행정부의고위인사들과 양국의 관심사를 논의할 예정이다。

"生産費 보장돼야"

民韓、夏穀價에성명

民韓黨의 睦堯相대변인은 13일 정부·여당이 검토중인 夏穀수매값 4~6%인상방안에 대해 성명을 발표、『우리는 생산의욕고취와 나아가 정부가목표하는 양곡의自給自足 정책을 달성키위해 최소한 생산비만이라도 보장되는 선에서 收買價를 책정해야한다』고 주장하고『정부는 앞으로 收買價 결정에있어 국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韓日 文化교류基金

재단法人발족 예정

【東京=聯】韓日의원연맹의 日本측연맹「회장 야스이·겐(安井謙)」은 13일하오 韓日양국간의 상호이해와 우호친선을위해 추진해온 韓日문화교류기금을 재단법인 형태로 정식발족시킬 예정이다。

地平線

인간은 젊다는것만으로도 즐겁다。젊고 아름다우면 더눈부시다。아름다움이란 우리생활에 깊이 자리잡고 즐거움과 기쁨과 보람을 주는 사랑스런 대상이다。

美學에서 美는 味와 통한다。순수한 우리말로 맛과 멋과도 그 脈을 같이한다。人間美는 人間味가 바탕이 될때 한층빛난다。미인을 바라보는 심경도 비슷할것이다。▼동서양이 함께 美와 善을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영어의「아름답다」(Beauty)는 표현은 라틴어 Bellus에서 나온말로 그어원은 Bonus 즉 좋음·善에 있다。프랑스어나 이탈리아어도 똑같다。孔子는 최고의美와善의 일치를 이상으로 삼았다。두漢字를 풀어보면 똑같이羊자가 들어 있다。美는 羊과 大의 合字로 순탐하고 상서로움을 상징 한다。이런 뜻에서 善은 美의 내면적 가치이며、美는 善의 외면적 가치라고 본는것이 美學的 풀이다。▼「아름다움」이란 우리말의 어원을 미술사학자 高裕燮씨는 이렇게 밝혔다。즉「아름」은「안다」의 변화인 동명사로 美의 이해작용을 뜻하고「다움」은 형용사인「格」으로 가치를 나타낸다。결국 아름다움은 知의 참모습、知的가치를 표현한다는 것이다。

미적 감각은 사람의 아름다움을 키워가고 문화가치를 창조하는 힘임을 알수있다。▼동양의 미녀상은 靜的이며 꽃에 많이 비유된다。解語花나 絕代花容같은 표현이 쉽게 머리에 떠오른다。중국의 漢書에 나오는 나라를 위태롭게한다는 傾國의의미를 담은 傾國之色은 좀 과장스럽기까지하다。오늘의 美人像은 오히려 動的인 조건이 강조되는것같다。용모나 體位의 율동적 측면이 발랄해야 미녀로 꼽힌다。그런가하면 美의 여왕은「미의 사절」역할까지 겸해야한다。▼올해 미스코리아가 다시 환희의 눈물을 터뜨리며 태어났다。한국을 대표하여 각국의美와 우정을 나누며 아름다움의 경쟁을 벌일것이다。세계의 넓은 무대서 한국의 美와 멋을 한껏 발휘하도록 성원을 보낸다。올해가 한국이 세계美「登頂」의 해로 기록되기를 빌어 본다。

社會漫評

分散키로 …

오늘 세계女性의 自覺은 女性으로부터 시작됩니다. 國內唯一의 女性 週刊誌인 주간女性은 [illegible] 기다리고 있읍니다.
❖ 가장 效果的인 廣告媒体
주간女性
(416) 533-2361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축 번 영
한국일보 일간지 발행 2주년을 축하하오며, 더욱 교민을 위해 성장하는 신문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 가구의 전당
◎옥돌가구
◎한국고전가구
◎동양화 ◎액자
KIM'S ART GALLERY
1198 WESTON RD. TORONTO TEL : 247-3226 김석환

균형發展·인구集中 억제

首都圈정비 주요골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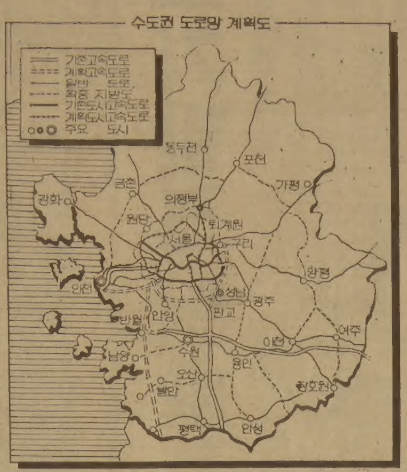
江南·北 52對48비율 分散

金浦~千戶~城南간 수도권 電鐵化

과밀비대상태에 있는 수도권의 재정비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수도권이란 서울을 포함한 仁川市 京畿道전역. 전국토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지역에 전인구의 35.5%가 집중되어 있을뿐아니라 특히국토면적의 0.6%에 불과한 공간에 전인구의 4분의 1이 모여있다.

수도권과 서울에의 집중현상은 인구에서뿐 아니라 지역생산 제조업체 자동차 대학생등 모든 분야에서 수도권은 전국의 40%, 서울은 30%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같은 수도권에의 과도집중은 한정된 국토공간과 부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수 없을뿐아니라 농촌지역등 다른 권역과의 격차가 날로심화되어 수도권으로 밀려드는 인구이동 압력이 가중되고있는형편이다. 정부는이같은수도권집중현상을 해소키위해 지난 70년 건설부가 수도권인구집중에관한 기본지침을 마련한것을 비롯, 71년엔 제1차국토종합개발계획의수도권구상(건설부), 73년에 대도시 인구분산책(경제기획원), 75년에서울시인구분산계획(서울시), 77년에 임시행정수도건설구상 (대통령비서실), 77년에수도권인구재배치계획 (제1무임소장관실), 82년에공공청사및 대규모건축물 규제계획 (건설부) 등 각종시책을 행정지시로 추진해온바 있으나 주관부처가달라 일관성이 결여됐다.

이에 정부는 중앙정부차원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추진을위해 작년말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제정했고, 이법에의한 수도권정비 기본계획을 작성중에 있는 것이다. 이번 공청회에 내놓은 수도권정비시안은 건설부의 용역을받은 국토개발연구원이 마련한것으로 종합적인 조정을거쳐 7월말까지는 정부안을확정 실시하게된다.



整備기본방향

수도권 정비 기본전략은 수도권을 5개정비권역, 12개지구생활권으로 나눠 지역의 개발 정비 보전등을 위한 기능을 분담하고 인구집중을 억제키로 했다.

서울시및 漢江이북 京畿道일부를 이전촉진지역으로 설정해서 인구집중을규제하고 漢江이남및 京畿일부는 제한정비권역으로 지정, 과밀을 억제하는 한편 江北기능의 분산을 피하고 있다.

또 제한정비권역 남쪽은 개발유도권역으로 이전촉진 제한정비권역의 인구및 기능을 분산수용하도록 했다.

楊平 驪州등 한강상류지역을 한강보호와 휴식공간으로서의 자연보존권역으로 설정했다. 이전 촉진지역 북쪽은 개발유보권역으로 안보및 현주민에 필요한 적정수준의 제한적 특수개발만 도모토록했다.

분산수용을 위한 새도시 개발은 ▲서울~利川 서울~水原~平澤을 축으로한 軸上인구분산 ▲安養 城南 議政府 九里 神道 富川 光明등 위성도시 중심분산▲利川 半月 平澤등 삼각형을 중심으로 서울인구를분산하는 성장중심 도시개발 ▲축상인구분산과 성장도시중심개발을 촉진하도록 4가지 방안이 제시됐다.

서울시와 주변위성도시를 통합한 수도권광역행정체제를 도입, 서울시를 1개 특별시 3개 직할시로 나누고 제2차 행정기관국영기업체 연구기관의 지방이전을 피하는 방안도 제시되고 있다.

교통망정비

수도권인구분산을위해서는 광역시설정비를 통해 서울과의 연계기능을 강화해야한다는 취지로 고속도로신설 고속전철등을 구상하고있다. 서울의 강변도로 남부순환도로 淸溪川 고가도로 등을 연결한1백71km의 도시고속도로를 신설한다. 半月-新葛, 城南-板橋, 仁川-牙山댐 (서해안고속도로) 간등 1백56·2km의 고속도로가 91년까지 신설된다. 京仁 京釜고속도로가 4차선에서 6차선, 嶺東고속도로가 2차선서 4차선으로 확장된다.

水原-道界 城南-廣州 議政府-葛末 서울市界-道界(국도6호) 서울市界-道界 (국도46호) 서울市界-江華간 평균 폭10m의국도가 20~30m 폭으로 확장되며 龍仁-利川-道界-梅花-水原-廣州간 도로를 신설하는등 서울을통과하지않고 지방과 연결되는 순환체제를 갖추도록했다.

철도도 金浦-文來洞 千戶-城南간 지하철과 수도권교외선을 전철화한다. 城北-議政府 龍山-水色 水色-陵谷 城北-退溪院 清凉里-八堂-楊平 富谷-陶農간 철도를 전철화또는 신설하고 서울-京畿道界까지를 고속전철화하며 城南-利川 城南-龍仁간도 교외전철을 놓도록 구상하고 있다.

12개지구生活圈

이전촉진권역은 3개생활권으로 나눠 서울江北지구는 중추관리 기능, 江南지구는 江北기능분담, 議政府 元堂지구는 근교주거기능을 맡도록 했다.

제한정비권역은 3개로 나눠 仁川 富川지구는 기존공업기능, 水原 城南지구는 도시형공업기능, 廣州 新長지구는 근교주거기능을 맡겼으며 개발유도권역은 3개로 安中 發安지구는 신공업거점기능, 平澤 烏山지구는 배후서비스 경공업기능, 利川 龍仁지구는 주거 문화기능을 맡겼다.

자연보전권역은 加平 驪州지구를 휴식공간 서비스기능으로, 개발유보권역은 2개로 나눠 東豆川 江華지구는 농업기능, 海洋島嶼지구는 어업기능을 맡도록했다.

圈域別정비지침

移轉促進권역=▲전문대학이상 각급학교, 사설강습소, 도시형공업이외 공장, 백화점, 쇼핑센터, 연건평4천8백평이상이나 11층 이상건축물, 카바레, 나이트클럽및 3백석이상 공연장, 연건평 9천90평이상 업무용건물이나 21층이상 건축물등의 신증축을 억제, ▲공장의 신증설을 계속 규제하고 공업단지를 단계적으로 이전▲사무소 백화점등 시설을강남으로 유도, 江北과 江南의 인구비율을 현재의 60대40에서 91년엔 48대52로 조정. ▲서울강북지역의 건폐율 용적율을 하향조정 ▲서울외곽지역에 방향별로 여러개의 버스여객터미널 설치▲서울주변및 議政府에 품목별 상품유통기지건설 ▲전문대학이상교육기관의 증원금지 ▲지방대학생의 서울편입학억제및 전가족이 서울로 전입한경우 이외의 他市道 중고교생의 서울전입학 억제.

◇制限整備권역=▲기존인구집중시설은 제한적 증설만 허용하고 신규입지확대는 규제 ▲仁川 水原은 서울주민이 출퇴근할수 있도록 경제기반구축 ▲城南 光明은 많은 노동력을 활용할수 있도록 시설확충 ▲安養 富川에 대규모 쇼핑센터와 종합병원등 생활편익시설 확대▲果川 新川 廣州 新長은 근교주거도시 특화도시로 육성 ▲임야 농경지등의 개발행위억제 ▲전문대학이상 교육기관 신설및 증원금지

◇開發誘導권역=▲牙山灣지역을 공업유치지역으로 지정, 수도권이전 공장을 집단화▲烏山 松炭 平澤에 내륙형 중공업과 牙山灣이전공업의 부품산업 유치▲安城 長湖院의 구릉지 낙농단지 육성및 무공해산업단지 육성▲서울시내 사립대학분교 적극유치

◇自然保護권역=▲대단위택지공업용지 공해공장 신증축억제▲읍지역에 공동하수처리시설 우선설치

◇開發留保권역=▲도시화촉진하는 모든 사업규제 ▲고등채소 원예등 경제작물과 축산 낙농업육성▲東豆川의 서비스기능강화▲汶山 漣川 金谷 抱川 金村은 소도읍기능을 활성화하도록했다.

公聽會의견

地方分權制·수도廳 신설
서울轉入 稅重課 주장도

수도권문제 전문가들은 수도권의 과도한 인구및산업집중을 막기위해서는 地方分權制 실시, 수도청신설, 서울大 이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3일 국토개발원이 마련한 수도권 정비 기본계획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수도권을 다핵적 광역 대도시권으로 정비하고, 서울전입인구에 대해서는 높은 流入稅를 부과해야한다는 주장도 개진됐다.

金源교수 (서울市立大)는 개발촉진권역에 고속도로 전철과 연결되는 대규모 고급주택단지를 조성하고, 고속득층을 우선 유치해야하고 유입인구에 대한 각종 혜택지원을 중단하고 流入稅 (住民稅)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金仁교수 (서울大)는 관계부처간 수도권정책의 조화를위해 전담기구를 국무총리실에 신설해야하고 서울大 관악캠퍼스를 지방으로 이전하고 이자리에 종합청사를 옮겨 행정업무지구로 개발하고 北漢山공원지구를 시민공원지구로 개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白永勳원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은 수도권을 분리대상으로만 보지말고 보완적인면에서 보아야 하며 강원도 일부와 忠南北일부까지 수도권에 포함, 개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朴炳柱교수 (弘益大)는 기본계획상의 5대권역과 환경권과의 관련, 江北과 江南을 구분하는 개념을 재검토해야하고 경부고속도로변에 인구배분의 중점을 두어야한다고 주장했다.

康炳基교수 (漢陽大)는 그린벨트안에 스포츠·위락시설을 설치, 활용방안을 좀더 신중히 검토해야하고 교통망이 서울중심방사선 체계로 되어있는데 순환체계를 강화하는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尹明照소장 (현대환경관리소)은 먼저 환경영향평가를 한후 정비와 개발을 해야하고 각종 오염방지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玄英鎭논설위원 (中央日報)은 2천년대에는 도시의 쇠퇴현상이 발생할것이므로 이를 예상, 수도권정비계획을 보완해야하고 고속도로보다 전철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말했다.

메아리

첫 선생님

인구가 고작 1천명정도의 조그마한 섬이었다.

육지에서 10여마일, 당시의 통통여객선으로는 두시간이 걸렸다.

인근의 더 큰섬에서 아침에떠난 여객선은 이 섬을 들러 육지로 갔다가 저녁에 다시 육지에서 싣어온 손님과 짐과 소식들을 풀어놓고 뱃고동을 뚜우 울리며 섬 모퉁이로 돌아나가 사라졌다.

여객선이 들어올적마다 섬어린이들은 밥을 먹다가도 숟가락을 내던지고 달음박질하여 우르르 선창가로 모였다. 육지를 다녀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보고 싶었다. 육지에서 물건을 잔뜩사서 싸가지고 오는 보따리속이 궁금했다. 육지는 그토록 아득하기만한 곳이었다. 육지에서 온것이면 무엇이든 신기스러웠다.

어느날 이 여객선에서 낯선 손님이 한분 내렸다. 섬에서는 드물게 보는 양복차림이었다. 어린이들은 신바람나는 구경거리라도 생겼다는 듯이 몽성거렸다. 그 손님은 섬의 학교에 부임하는 선생님이라고 했다.

선생님. 섬어린이들에게 선생님은 그저 하늘같은 사람이었다. 里長이 제일 어른이던 섬에서 선생님은 里長보다 훨씬 높은 사람일 것이었다. 선생님은 세상의 모든 책을 다 외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육지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일 것이었다. 그런 선생님이 새로 왔다. 어린이들은 이 선생님이 선창에 내리자 떼를 지어 졸졸 뒤따라 나섰다.

학교라지만 講習會라는 이름의 私設學堂이었다. 지금은 이 섬에 국민학교가 생겼겠지만 당시는 어느 독지가가 세운 간이학교여서 3학년 과정밖에 없었다. 학생이 통틀어 40명가량 되었다.

철이면 동백꽃이 온통 빨갛게 덮이던 南國의섬은 외로왔다. 이 섬의 복판쪽, 인근에 민가가 한채도 없는 산중턱에 교실 두칸짜리의 학교가 덩그러니 외따로 서있었다. 교실에서 창밖을 내다보면 손바닥만한 운동장 너머로 언제나 바다가 푸르렀다. 학교뒤쪽의 산능성이를타고내려오는 솔바람에 교실앞의 종은 종일 댕그렁거렸다.

이 학교에 입학하자 여객선을 타고 육지에서온 그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왔다. 아, 그 높은분이 나의 선생님이라니. 그후로 3년동안 이선생님은 내내 우리선생님이었다.

선생님은 국어시간에 한課의 공부가 끝나면 그課를 반드시 외어오게했다. 이튿날 교실에서 그것을 외지못하면 집에 돌려 보내주지않았다. 밤늦도록까지 불을켜놓고 읽히고 또 읽혔다. 도깨비가 나올것같이 무서운 산밑의 밤길을 혼자 내려오지 않으려면 집에서 밤을새워서라도 외어가야했다.

金聖佑
【編輯委員】

선생님은 또 매주일 차례로 단상에 나오게하여 옛날 이야기를 하나씩 시켰다. 아버지 어머니를 졸라 들은이야기가 동이나면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옛날이야기를 찾았지만 좁은 섬에서 이야기나올 구석은 뻔하여 얼마안가 결국은 이야기를 지어낼수밖에 없었고 본는것이라고는 바다뿐인 어린이들로서 이 상상력연습은 국어과목 외기보다 더 힘들었다.

학기가 바뀔때마다 선생님은 새교과서를 내주었다. 교과서외에 딴책이라고는 한가지도 없던 섬학교에서 새교과서를 받았을때의 냄새, 그향긋하던 새책 냄새를 잊을수가 없다.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를 나는 그후로 지금까지 맡아본적이 없다.

명색이 학교여서 운동회도 열렸다. 운동회때면 선생님은 육지에서 사온 새 러닝셔츠를 나누어주었다. 그셔츠 빛깔, 눈부시도록 새하얗던 그빛깔이 또한 잊혀지지않는다. 그렇게 흰 빛깔을 역시 지금까지 보지못했다.

그 새책냄새와 셔츠빛깔은 곧 나의 첫 선생님의 이미지다. 첫선생님의냄새요 첫선생님의 빛깔이다. 지금도 그런 芳香과 그런 色調로 나의 첫선생님이 가슴속에 남아 있다.

그 섬을떠난 후로 나는 그 선생님을 한번도 만난적이 없다. 그뒤의 소식도 모른다. 얼굴은 또렷이 기억나지만 이름조차 잊어버렸다.

12일부터 교육주간이 시작되었고 내일 15일은 스승의 날이다.

한 친절한제자가 스승의 날을 맞으며, 실로 오랜만에, 그 외딴섬까지 와서 나의 모든것을 시작하게해준 첫선생님에게 잊어버렸던 감사를 드린다.

記者의 눈

不倒翁의 退陣인가

중공여객기가 우리나라에 불시착한탓에 요즘은 중국대륙이 한결 가까이 보인다. 해방이후 30여년간 적성국가라는 「체제」 뒤에 가려져있던 「인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장점과 단점을지닌 중공인들의 체취도느껴지는듯하다.

10일 발표된 제6기전국인민대표대회 (全人代·우리의 國會) 명단에서 실력자인 당부주석 鄧小平의 이름이 빠져있을뿐 아니라 12일 밝혀진바로는 그가물망에 오르던국가주석직이 李先念 중공당정치국 상무위원에게 넘어갈 것이라고한다.

그렇다고 鄧小平이 권력일선에서 완전퇴진하는것은 아닌것이다. 그는 현재 당부주석으로당을 통제할뿐아니라 중앙군사위원회주석으로서 軍을 장악하고 있다.

鄧小平은 그가 추진하는 4化중의 하나인 「年輕化」원칙에 따라 젊은세대에게 수상직과 당주석직을 물려주었다. 또현대화한 현대국가체제를 갖추기 위해 권력분립의 원칙에 맞도록 국가주석직을 李先念에게 양보한 것으로 해석된다.

鄧小平은 그의 전세대인 毛澤東이 강조하던이데올로기 (紅) 보다는實事求是의 합리적 능력(專)을 강조하며 중공의 현대화를 자신의시대적 사명으로 여기고있는듯하다.

프롤레타리아독재의원칙에 충실하다는 명분아래 소련에서뿐 아니라 중공의 毛澤東세대에서도 평화적인 정권교체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鄧小平은 노령을 내세워 권력에서 차츰 물러나 젊은 세대가 정치에 참여할수있는 전통을 세우고 있다. 이것이 그가 믿는 順理이며 국가의 현대화일 것이다.

이런전통은 鄧小平뿐 아니라 연조에 全人代상무위원장직을 사임한 葉劍英, 이번 6기 全人代에서 역시 이름이 빠진 정치국원 陳雲등에 의해서도 다져지고 있다.

이번 6기 全人代에서 중공이 현대화라는 이름에 답하는 개방된 정책으로 향하고있다는 증거는 非공산당원인 대표들이 지난번 5기때보다 10%나 증가한 37·5%에 이른다는 사실에서도 찾아볼수있다.

일본이 「가깝고도 먼나라」로 표현되는데 대한 대칭표현으로 중공은 우리에게 있어서 「멀고도 가까운 나라」인지도 모르지만 아직은 「멀다」는 감정이 강조되고있다.

뒷물결이 앞물결을 밀어내어 長江을 이루듯이 긴 강처럼 세대교체를해가는 중공인들의 지혜가 보다 눈에 선명히 보이는것은 중공여객기가 아직도 ○○기지에 그대로 남아서 역사와정치를 보는 새로운 시각을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朴來富외신부기자】

韓中共관계의 새章 <4>

미국의 視角

뜻밖의 機會…급속한 發展예상
앞으로 非公式접촉 늘어날듯

중공여객기 납치사건을 보도하면서 미국의 한신문은 이번사건이 한국의 중공과의 관계에 「뜻하지않은행운」을 안겨주었다고 보도했다.

또다른신문은 이번기회가 양국관계에 정치적 好機가 될수있을것이라고했고 사실상 승인이라는 보도도 했다.

이러한 신문들의 보도와는 관계없이 워싱턴관계자들은 이것을 바로 횡재니 호기이니하고 말할수는 없지만 관계개선을향한 의미있는 진전, 적어도 계기가 될수있으리라는데는 모두가 동의하고있다.

동의의 근거는 이미보도된대로 양국간의 첫공식접촉이 었다는 점과▲이접촉에 따른 합의문서에 상호 공식명칭을▲사용했다는 표면적인점 ▲그간 양국이 비공식 간접 접촉을통해 표명해온 「관계개선의 희망」▲이번사건의 협의에 이르는 과정등을 모두 통틀어 이렇게 보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진전무드」를 강조하는 견해들은 이번에 중공이 보인 일련의행동은 오랫동안 중공이지녀온 생각을 그야말로예기치않은 사건을통해 남김없이 표현했다고 말하고있다.

한국을 방문해 공식접촉을 갖는다는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수 있으리라는 예측을 쉽게 할수있는 상황에서 선뜻방문을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자 그야말로 공식접촉을 갖기에 이르렀다는점을 지적하면서 물론 승객의 송환이 시급한것이지만 한국과 중공사이에는 접촉을 간접적으로 소화시킬수 있는길이 얼마든지 있는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교섭이 갖는 의미는 강조될수있을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들이 설명하는 오랜 중공측의 감춰진 희망의 변화과정은 아래와같다.

중공은 30년전 북한을 지원, 한국전에 참전했지만 1958년을 기점으로 한반도에 대한 자세에 서서히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이기간인 1958년 10월 북한에서 소위 그들의 의용군을 철수시켰고 행동이나 말속에 극렬한 군사적요소는 줄어들었으며 소련비난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같은 中蘇분쟁은 1969년 中蘇군사대결로 나타났고 소련견제를 위해 미국에 기우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에게 관심있는것은, 중공은 한국전에서 행한 자신들의역할을 거의 내세우지 않았을뿐 아니라,중공과북한의 관계는 실질적인것보다는 명목상의 뉘앙스를 현저히 풍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이런분위기는 1971년 시작된 南北대화를 뒤에서 격려하는 태도로 나타났으며, 70년대초중공은 간접적으로 한반도 안정을 위해 駐韓미군의 유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표현하기에까지 이르렀다.

이와동시에 북한의 또다른 전쟁시도때 지원을 하지 않을것이라는 점을 중공은 거의 공공연하게 표현했었다.

이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중공의시각은 방향을 잡은것으로 이들은 보고 있다.

중공이 이런 자세를 추구하는것은 對蘇견제라는 요인보다는 국내적인 는 大前提가 있기때문이다.

美日외에한국과의접촉확대는 한국의 방위능력이나 美日과의 관계로보아 對蘇견제와 중공의태평양진출을 위해 절대긴요하며 여기에 한국과의 경제적교류, 즉 기술및 상품의 교환내지 도입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생각까지 했을것이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간접교역을 가능하게해주었고 북한대신 한국경유 항공로의 개설을 요구하게된것이며 결국 북한으로부터 시비를 각오하고 공식접촉을 서슴지않은 이유라고 이들은 말하고있다.

하지만 이들자신도 이런무드가 당장에 외교적 승인으로 연결되리라고는 보지않으면서 그러나 비공식접촉은 착실히 늘어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한국을 승인해야한다는것이 지금 北京의생각이라고 보고있다.

이처럼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견해와는 달리 이번만으로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도 강하다.

이들은 한마디로 현재의 북한과중공과의 관계가 그런전망을 불가능하게 하는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중공과북한은한국전당시와같은戰友的관계는이미 아니지만 서로가 우선해서 생각해야할 상대인것은 명백하며, 중공산기름과 군수물자의 부품공급등 지원과 교류는 여전하다고 이들은말하고있다.

이들은 이와같은 중공의 북한에대한 자세고수는 미묘한 中蘇관계때문에 더욱 불가피한것이라고 말하고있다.

한때 소련에 기울어졌던 북한은 1979년의 中越전쟁과 소련의 아프간침공 과정을 거치면서 中蘇 어느한쪽에 기울지 않으려는 자세에 더욱 힘쓰고 있으며 이런 상황은 바로 중공으로하여금 섣불리 북한의 불만을 자아낼일을 자제하게 하고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중공이 이번의 한국과의 접촉을 사전양해하기 보다는 적어도 사전통고는 했을것으로 보고있으며 이번사건후 잠잠한 북한의 반응이 이를 말해주고 있고 보고있다.

'이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또다른 근거는 한국과 臺灣과의관계이다.

이들은 중공 테니스선수 후나 (胡那)의 미국망명등 美·중공간에여러가지 불만스런요소가 있긴하지만, 보다 큰 불만의근원은 臺灣에대한 미국의 계속적지원임을 들면서, 현상태의 한국과 臺灣과의 관계는 중공의 한국과의 관계개선 시도에 제약요소임은 틀림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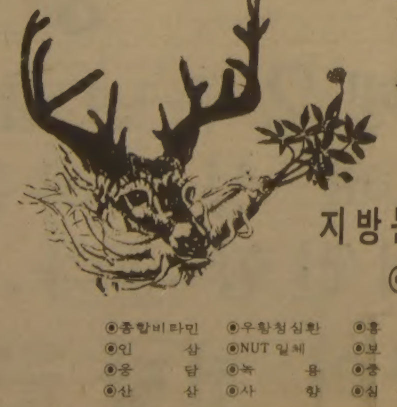
보는 시각은 다르지만 이들자신도 이번이 두나라관계를 위해 새로운 계기내지 전환점이 될것이라는데는 이의를 제기하지않고있다.

다만 그진전의 정도와 내용은 앞으로있을수 있는 또다른 접촉의 기회에서 그윤곽을 하나하나 드러낼것이라고 이들은 말하고 있다. 〈끝〉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미국 신문들에 실린 서울의 중공인。UPI통신사가 찍어 배급한 이 사진은 양국 건국후 처음으로 밝은 웃음과 함께 손을 잡은 서울의 交歡을 잘 담고있다.

(일본의 유명가수 토론토에 오다)
고바야시사지꼬 쇼!!
小林幸子
일자·1983년 6월3일(금요일)
장소·CNE내 퀸에리자베스홀
(7시 입장 8시부터 시작)
판매처·NIPPON VIDEO CENTRE
1993 DANFORTH AVE
(전화 : 698-0633)

아세아한약방
Health Food Center

길림산녹용, 진품웅담
원녹용, 야생녹용
특별세일
지방문의환영
⊙관절염 특효약
⊙산삼 도착
⊙자동전자약탕기
⊙종합비타민 ⊙인삼 ⊙웅담 ⊙산삼
⊙우황청심환 ⊙NUT 일체 ⊙녹용 ⊙사향
⊙홍삼 ⊙보약 ⊙중풍 ⊙심장병
⊙간장병 ⊙비만증 ⊙신경통 ⊙고혈압
⊙부인병 ⊙양기부족 ⊙위장병
645 BLOOR ST. W. TORONTO
☎ : (416)530-0522, 530-4900

Masa
진짜 일본음식
Japanese Restaurant
스시, 스끼야끼, 뎀부라둥
977-9519
All major credit cards accepted
195 Richmond West

MARVIN STARR
※여러분에게 가장 적절한 차를 구입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조의문
☎ 264-2311(B)
439-5030(R)
3132 Eglinton Ave. E.
Markham×Eglinton

Pendex Business Machines Ltd.
1436 QUEEN ST. W. (& LANSDOWNE) TORONTO
(창립7주년) $595.00
분납가능
SANYO
취급품목
한글, 영문 타자기
금고, 캬비넷, 책상,
각종 계산기, 각종도장
Tel. 532-0111
622-6754
교포 경영
김성수

"月100萬원 收益보장" 계약보증금 꿀꺽

대리점詐欺 무더기拘束

9개社 21명… 7億원 가로채

서울지검 특수1부는 13일 영세민, 주부, 정년퇴직자등을 상대로 대리점을 모집한다고 속여 계약금, 보증금, 물품대금등 7억여원상당을 상습적으로 가로채온 하이패션 부룩스(서울中區南倉洞세원빌딩2층) 사장韓文守씨(29·서울江南區狎鷗亭洞 현대아파트A동20의 1005)등 9개업체 간부21명을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대리점 모집사기범들은 외무사원을 동원, 대리점운영희망자들을 모집해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받아낸후 피해자들이 자세히 검토해보지도않은 계약서내용을 악용, 계약금을 가로채는 숫법을 써왔다. 이들은 계약서에 「구두상약속은 책임지지 않는다」「잔금을 지급하지않을때는 계약금은 몰수한다」는등의 독소조항을 넣어 계약자들이 나중에 외무사원이 계약당시 한말이 거짓임을 알아차려도 더이상 손해를 보지않기 위해 계약금을 포기해버리게하는 악질적인 숫법을 써왔다.

이들은 계약때는 ▲소액의계약금만으로도월50만~1백만원수익이 보장되고 ▲상품은 정부에서 품질을 보증한 우수상품이며 ▲판촉사원을 파견, 판매와 운영을 회사에서 해주고 계약자는 상품을 보관, 관리만 하면된다고 속여 계약금을받아놓고 영세한 자기공장의 조악한 물품이나 영세조업자들로부터 사들인 싸구려물품을 공급, 계약자들이 할수없이 영업을 그만두도록 했다.

검찰에 의하면 구속된 하이패션부룩스 사장 韓씨와 부장 金東培씨(37·서울城東區中谷洞91의18)등은 지난1월부터 3월사이에 이봉애씨등 대리점운영희망자 96명에게 『하이패션부룩스제품인 여성의류대리점계약을 체결하면 시장가보다 20~30%싸게 공급해주고 물품값의 40%의 이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속이고 대리점설치자금명목으로 2억8천9백55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한국골든비상사 사장 金世運씨(40·구속·서울城北區下月谷洞285)등 구속된 이회사 간부3명도 지난81년9월19일부터 지난4월까지 사이에 대리점운영희망자 이정우씨등47명에게 『우리회사는 일본과 기술제휴로 仁川에있는 최신시설의 대규모공장에서 일본에서도 폭발적인기를 얻고있는 보디린스를생산하고있다』면서 대리점계약만 하면 월수1백만원을 올릴수있다고속이고 계약금명목으로 8천5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사기범들이 개별적으로 형사고소를당해도 계약서를 내세워 민사상 분쟁에 불과한것처럼 변명하고 빠져나가거나 민사소송을 당해도 이미 재산을 빼돌린뒤라 계약자들만 계약금이나 보증금을송두리째 빼앗겨왔다고 밝혔다.

구속된 업체간부들은 다음과같다.

◇한국골든비상사(서울中區小公洞 센타빌딩1103호) ▲金世運(40·사장)▲金榮完(48·전무·서울鍾路區齋基洞203의2) ▲鄭仁秀(31·차장·서울銅雀區舍堂3洞山24)

◇아주식품(서울江東區城內洞 삼원빌딩411호·콩밀용청량음료) ▲林平國(35·대표이사·서울江東區遁村洞주공아파트417동203호) ▲魚永德(30·기획실장·서울江東區梧琴洞267의8연립주택101호)

◇썬코리아(서울江東區城內洞 삼원빌딩306호·화장지) ▲朴魯源(43·전무·서울江西區新亭洞20의5 시영아파트113동305호)

◇하이패션부룩스 ▲韓文守(29·사장)▲金東培(37·부장)

◇뉴코리아물산(서울江東區千戶洞358의12·의류) ▲徐京錫(33·대표·서울江東區城內2洞142의12) ▲金榮培(44·영업부장·서울江東區千戶洞290의21)

◇금성식품판매주식회사(서울東大門區典農洞26의33·간장·밀가루) ▲姜吉太(38·상무이사·서울城北區貞陵4洞771의58)

◇서울포장유통(서울江東區城內洞삼원빌딩305호·육류) ▲李壽三(49·사장·서울道峰區上溪洞107) ▲邊榮吉(42·영업부장·서울道峰區雙洞435의32)

◇한일구판(서울鍾路區崇仁洞 서진빌딩206호·생필품) ▲尹明善(42·대표이사·서울江東區岩寺洞 율산아파트6동106호) ▲朴基滿(51·부장·서울西大門區弘恩1洞43의15)

내일 아침 離陸키로

피납中共機 최종결정 安全대책·점검 끝내

【春川=姜秉泰기자】 중공피납여객기는 15일상오7시께 비상이륙을 시도하기로 최종결정된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12일 교통부 金徹容 항공국장과 대한항공 洪淳相 운항상무등 한국측기술진과 중공측 기술진들이 기체및 활주로에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를토대로 관계당국이 주민안전대책등을 종합검토한끝에 나온것. 일요일인 15일을 이륙날자로 결정한것은 주민대피와 차량통제가 쉽기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피납여객기는 14일 최종점검을 다시실시한후 15일상오7시께 ○○기지를 이륙, 金浦 공항으로 옮겨질것으로 보이는데 金浦공항에서 객실의자등 기내시설물을 다시 붙이는데 최소한 4~5시간이걸려 중공귀환은 하루뒤인 16일이나 17일이될것같다.

春川市는 비상이륙 5시간전에 비행장주변의 槿花 昭樂洞등 5개洞주민 1천4백가구 7천여명을 인근 교회·학교등에 대피시키고 차량통행을 전면금지시키는등 비상이륙에따른 주민안전대책을 마련해 놓고있다.

한편 劉巡遼 중공민항기술부국장등 피납여객기 인수요원12명은 13일하오 雪嶽山관광을 마치고 상경, 1泊한뒤 14일 하오 다시 春川으로 갈 예정이다.

百弗짜리僞幣 9장

바꾸려던 20代여인 "大邱서 훔친것"

【釜山】 지난12일상오12시 부산시中區中央洞 외환은행 부산지점 환전계직원 양춘애양(22)은 최해경(23·大邱市 北區 大明洞)이 환전키위해 내놓은 미화1백달러짜리 9장이 모두 위폐임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양은대구 모女專 하숙집에 기거중인데 지난7일 하숙내외가 도미하면서 집열쇠를맡기자 11일 집안금고를열어 안에있던 5천달러가운데 1천9백달러를훔쳐 부산에 내려와 이날 환전하려했다는것. 【聯】

오늘민방위 훈련

내무부는 5월중 민방위훈련을 14일상오11시부터 30분간 전국에서 실시한다.

거액 公金횡령 畜協간부 拘束

【全州】 全州지검은 13일 거액의 조합공금을빼내 착복한 全州축산기업협동조합 조합장 金漢允씨(54)를 업무상 횡령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조합상무 徐宗玉씨(58)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金씨등은 82년2월부터 지난4월말까지 조합원들로부터 소 마리당 8천4백원, 돼지는 1천4백원씩 모두 9천여만원의 도축비를 받아 이중 조합원들의 소득세를 납부하고 남은 잔액6천3백69만원을 각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가로챘다는것. 【聯】

"이처럼 아름다운山 처음"

中共기술진, 어제 雪嶽山관광

【束草】 피납중공 여객기를 인수하기위해 우리나라에 남은 劉巡遼 중공민항기술부국장등 중공기술진 12명은 13일설악산 관광을 마치고 이날하오1시30분 江陵을거쳐 서울로떠났다.

한편 중공기술진들은 12일밤 雪嶽파크호텔에 투숙했었는데 호텔에서의 저녁식사때 白景休기장(54)은 『외국은 많이 여행했으나 雪嶽山처럼 아름다운 산은 처음본다』고 감탄했다. 또 白기장은 『한국인의 환대에 감사한다』며 『이곳에는 어릴때는 절간으로만 알았는데 산속에 이처럼 훌륭한 시설이 돼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聯】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올해의 美女들 금년도 한국의 美를 대표할 6명의 미녀들。왼쪽으로부터 吳淑姬, 金終中, 金善美, 林美淑, 徐珉淑, 鄭泳順양。

'83 미스·코리아 眞 林美淑양(서울)

善 金善美(大邱) 美 徐珉淑양(서울)

◇83년 한국美의 정상으로 뽑힌 林美淑양。

本社·太平洋化學주최 12일 화려한 本選대회

83년 한국의 美를 대표하는 美의정상에 서울출신의 林美淑양(21)이 탄생했다. 12일하오6시 서울 世宗문화회관에서 4천여관중이참석한가운데 베풀어진 83년도 미스·코리아 선발대회는 미스·코리아 眞에林美淑양(21·미스 서울)을, 善에 金善美양(21·미스大邱)을, 美에 徐珉淑양(19·미스서울)을 각각뽑았다.

또한 미스 한국일보에는 金終中양(20·미스서울)을, 미스太平洋化學에는 吳淑姬양(18·미스全北)을, 미스 보령에는 鄭泳順양(20·미스서울)을 선발한 후 2시간반여에 걸친 미의제전은 막을 내렸다.

미스한국일보 金終中양(서울)
태평양화학 吳淑姬양(全北)
보령 鄭泳順양(서울)

한국일보社와 太平洋화학이 주최하고 보령제약이 특별협찬한 금년도미스·코리아선발대회는 전국각지역과 해외동포를 대표하는 45명의미녀가 참가한가운데 KBS·TV의 金東鍵·徐東淑아나운서의 사회로 화려한 막을 올렸다.

이날대회는 미인들의 평상복, 수영복, 야외복심사를 거쳐 6명의 미녀를 선발한후, 금년도 미의 정상을 가리는 순으로 진행됐다. 심사위원들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미스보령, 미스太平洋화학, 미스 한국일보등 역순으로 미녀들이 호명되자 장내는 긴장과흥분의 도가니에 빠져들었으며 관중들은 박수갈채로 미인의 탄생을 축복했다.

열띤분위기속에 미스美가 결정되고 두미인가운데 金東鍵아나운서가 『금년도 미스·코리아 眞에 26번林美淑양…』을 호명하자 林美淑양은 기쁨과 감격속에 두손을 한숨놓이 추켜들고 눈물을터뜨렸으며 최후까지 미의정상을 겨루다 善으로뽑힌 金善美양은 林양을 껴안고 우정어린 포옹을 나누었다.

금년도 미의 정상을 차지한 林양은 충남唐津출신으로 건축업을하는 林光國씨(57·仁川市南區龍峴5洞)의 2남1녀가운데 외딸. 唐津의 송악고교를 졸업했으며 몸매는 신장1백71cm, 체중55kg에 36·24·36의 늘씬한 체격. 장래희망은 인테리어·디자이너.

이날대회는 金康寶악단의 미녀 탄생을 축하하는 「미스·코리아의 노래」연주로 폐막됐다.

이밖에 이날대회에서 특별상을 차지한 미녀들은 다음과같다.

◇우정상▲金美先(18·미스경남善)▲金美助(21·미스뉴욕眞) ◇매너상▲李美仙(21·미스南加州眞)▲金省美(19·미스仁川美)▲裵文英(22·미스경남眞) ◇木蓮賞(鄕土美賞)▲李玄淑(20·미스충남眞) ▲金明淑(23·미스강원眞) ▲梁光美(19·미스釜山眞) ◇인기상▲金終中(20·미스서울) ◇포토제닉상 ▲金善美(미스大邱眞) ◇스타상▲林美淑(미스서울) ◇탤런트상▲車承禧(18·미스워싱턴眞)▲徐貞卿(18·미스경기美)

국교생 殺害犯은 이웃女人

怨恨살인 可能性도

【釜山】 속보=국교생피살사건을 수사중인 부산海雲臺경찰서는 13일 피살된학생의 이웃집에사는 강분이씨(42·여·海雲臺區盤如2洞산4의11)를 범인으로 검거, 살인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의하면 강씨는 12일 새벽2시께 술에취해 4년간 같이산일이있는 조월자씨(42)를 찾아갔다가 조씨는없고 아들 우수석군(12·반여국교6년)혼자 자고있는것을깨워 어머니의 행방을 물었으나 우군이 잠을깨운다고 짜증을부리자 화가나 가위로 목을 찔러 숨지게했다는것이다. 【聯】

대낮主婦피살사건

설 江西區木洞 30대주부인방화사건을 수사중인 서울江西경찰서는 숨진 沈씨집에서 도난당한 것으로 알려졌던 캐논카메라와 1,20만원이든 예금통장을 응접실 소파쿠션밑에서 찾아냈다.

경찰은 미에따라 범인들이 카세트 라디오와 미놀타카메라가 있었는데도 아기들반지 7개등 금붙이10여점만 훔쳐갔고 또 숨진 沈씨가 차고있던 목걸이와 반지등을 그대로두고 달아난점등으로 미루어 강도를 위장한 원한살인일 가능성이 높은것으로 보고있다.

캐나다 巡航艦隊 어제 鎭海입항

【鎭海】 캐나다 순항단대가 13일하오1시친선방문차 진해항을입항, 우리해군장병과 진해시민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聯】

北傀도발 沮止지침 示達

내무부, 全國 민방위국장會議

내무부는 13일 전국시도민방위국장회의를 소집, 녹음기를틈타 예상되는 북괴의 각종도발및 책동행위를 사전에 저지하기위한 지침을시달했다.

내무부는 이날지침에서 북괴는 특히 오는10월서울에서 열릴예정인 국제의원연맹총회(IPU)개최를 방해하기위해 비정규전책동과도발을 시도할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이를사전에 저지하기위해서는 민방위대를 중심으로한 주민신고태세를 대폭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군·관·민합동 모의신고훈련을 매분기별로실시, 미비점을 보완해 나가기로 했는한편 새마을지도자 정화지도위원등 41만명을 주민신고지도위원으로 위촉했다.

「부처님 오신날」봉축 統一기원탑

愛妓峰정상서 點火式가져

「부처님오신날봉축통일기원등탑점화식」이 13일하오7시 吳慶煥해군참모총장을 비롯한 해군장병과 朴完一불교전국신도회장, 黃山德불교진흥원이사장등이 참석한가운데 西部전선 최전방고지인 愛妓峰정상에서 거행됐다.

해군 해병靑龍부대가 마련한 이날점화식에서 20여m의 대형등탑에달린 1천여개의 오색등이 북녘땅을 훤하게 밝혔는데 장병들과 불교신자들은 부처님의 자비와 법력으로 이땅에 하루빨리 평화통일이 이뤄지기를 기원했다.

5行뉴스

◆배터리로수렵…感電死

【南原】 12일밤10시30분께 전북淳昌郡 八德面 淸溪里 강천 저수지밑 2백m지점 냇가에서 배터리로 고기를잡던 박춘율씨(21·淳昌군八德面淸溪里416)가 감전돼 숨졌다. 【聯】

◆트럭에 받혀 5명死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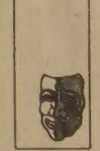
【大邱】 13일상오6시50분께 경북盈德郡江口面烏浦2洞 江口정류소앞 도로에서 浦項삼일운수소속 경북7바6413호 트럭이 운전부주의로 장보러가던 安자옥씨(54·여·盈德郡寧海面 城內1洞)등 3명을 치어 그자리서 숨지게하고 李상철씨(52·江口面花田洞)등 2명에게 중상을입혔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美女메이커

마샬미용실 河貞順원장

미스코리아 21명 만들어낸 「별난솜씨」



태어날때부터 美人이란는 말은 옛날 이야기. 지금은 美女가 만들어 지는 시대다. 할리우드의스타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으로 빚어진 인조미인이란게 통설。미스코리아도 예외는 아닐것이다.

그런점에서 河貞順씨(46·사진·서울中區明洞마샬 미용실원장)는 「미인 제조간」가 아닐까. 河원장은 지난 70년 미용실 문을연 이래 지금까지 모두 21명의 미스코리아를 만들어냈으며 지난77년부터 금년까진(82년을 걸고) 해마다 한국최고의미녀인 미스코리아 眞을 탄생시킨 실력자다.

12일하오 서울世宗문화회관에서 베풀어진 83년미스코리아선발대회에서 미스코리아眞에 林美淑양(21)이 뽑히자 河원장은 언제나 그랬던것처럼 가슴을 쓸고 총총걸음으로 집으로 향했다. 미스코리아 眞이 신문과 TV의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있을때 그녀는 무대뒤에서 조용히 사라졌다. 남녀주연배우를 스타덤에 올려놓고 회심의 미소를 짓는 막후의 프로듀서 같다고나 할까.

그녀는 우선 自薦·他薦의 미스코리아 후보생 가운데서 10여명을 골라 1년간 「미인」으로 가꾸어간다. 거의 무료로 봉사해주지만 그녀는 이일에서 생활의 보람을 찾는다. 河원장에의하면 바탕만 「괜찮다면」어지간한 여자라면 한달안에 때묻은 먼지를 털어내고 그럴듯한 미녀로 만들수있다. 그러나 최고의미녀급이 되려면 최소한 1년은 가꾸어야 한다는 주장.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우유마사지, 야채食을 하도록해야하며 또 차밍·스쿨(Charming S-chool)에 들어가 옷입는 표정도, 걸음걸이도 배워야한다. 河원장은 미녀가 되기위해선 이같은 고생을 참을수있는 인내력부터 가져야한다고 강조한다.

河원장이 말하는 최고의 미녀는 키 1백67cm, 몸무게 51~52kg에 35·24·36의 사이즈. 그러나 숱한 미녀를 만들어냈음에도 그녀에게는 능력밖의 일이 두가지가있다. 하나는 미녀들의 「교양」。그것은 어렸을적부터 길러져야하며 배움으로 축적돼야하기때문에 速成이 불가능하다. 또 다른하나는 「중이 제머리 못깎듯」그녀 자신은 미인제조가 다운 미인이 아니라는 점이다. 【丁韓기자】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Tom Hwang Real Estate Limite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TELEPHONE 449-8644, 449-8446 449-8645, 445-1516

금주의 새 리스팅

●버라이어티 스토아
◉Variety Store
(1)주매상 9,000 asking 110,000+stock(이헌영) D/P 75,000
(2)주매상 14,500 asking 200,000+stock(이헌영)
(3)주매상 14,000 asking 200,000+stock(이헌영)
(4)주매상 9,000 asking 70,000+stock(이헌영)
(5)주매상 14,000 asking 250,000(황용현)
◉Tuck Shop
(1)Good Potential, Subway, Condom근처 askig 35,900(유웅복)
(2)미시사가에 있는 주매상 2,500 askig 25,000 (좋은 lease와 rent 조건)(임윤식)
◉Gift Shop
(1)big mall에 들어있는 asking 159,000(이헌영)
(2)연매상 473,000 asking 159,000(이헌영)
◉Variety & Grocery Store
(1)주매상 8,000 asking 93,000(황용현)
(2)주매상 9,000(브램튼에 있음) 리스4년 포스트오피스 있음, 렌트 900,00(임윤식)
◉Discount Store
(1)주매상 6,500(주6일및 좋은 렌트)(토론토)(임윤식)
(2)주매상 5,700(주6일) asking 79,000(임윤식)
(시외 1시간거리)(Store의 건물까지도 매입가능)
◉Dry Cleaner
(1)주매상 $1,800, Asking $69,000(황용현)
(2)아파트밀집지역 프랜트와함께 연매상 $240,000, Asking $189,000(유웅복)
◉Donut Shop
(1)주매상 6,500 asking 275,000 50% D/P Good-location lease 10/10years(유웅복)
(2)주매상 4,000 asking 117,000(유웅복)
(3)Donut 및 햄버거 Shop 주매상 6,000+Video인컴 4,000(월) 보장 asking 215,000, D/P 50,000(황용현)
◉VIDEO ARCADE(Plaza내에 있는 좋은 조건) 28개 Game 기계 asking 85,000(유웅복)
◉Fish & Chips(downtown shopping centre에 있는) 주매상 $8,000 asking 279,000(황용현)
◉투자용건물
(1)프라자(4개의 스토어를 갖인) asking 525,000 D/P 120,000(이헌영)
(2)Chicken & Mac's가 있는 Plaza asking 625,000 D/P 200,000(이헌영)
(3)Shopping Plaza 스토어 5개 Net lease 년수입 52,000 asking 570,000(황용현)
(4)Shopping Plaza 년수입 300,000 asking 3,000,000(황용현)
(5)2 Stores+2 Apts Corner Building Near Eaton Centre 80,000 다운 asking $279,000(황용현)
(6)버라이어티와 그로서티가게 딸린 건물. 주매상 4천5백, Appraisal 가격으로 함, 다운 $35,000(유웅복)
(7)버라이어티스토아 딸린 건물, 주매상 $4,000, Asking $115,000, 다운 $77,000(유웅복)

주택상담실 설치

그동안 저희 회사를 통해 주택을 구입하신 교민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금번 저희는 많은 분들의 요구에 의해 주택상담실을 설치하였읍니다.
현재 소유하고 계신 주택을 파실 계획이시거나 새 주택을 마련코저 하시는 분들께 아래와 같은 사항들에 관한 상담에 기꺼이 응하고저 하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좋은 조건의 모게지 알선
(2)가옥의 가치 평가
(3)가옥의 구조변경에 관한 문의
(4)가옥의 투자 상담
(5)가옥 구입시 필요한 제반 지식 제공

황용현 (R)286-1548

이헌영 (R)686-0207

강정숙 (R)244-8918

임윤식 (R)636-7950

임분옥 533-9061

유웅복 (R)447-9395

멕시코세계青少年축구 한국代表팀 17일出發

"이번엔 8強高地 점령한다"

"4·2·4戰法、화끈한 攻擊 펼터"

◁세계8강의 문을 두드리는 한국축구청소년대표팀。―백%의 실력을 발휘하겠다고 다짐했다

제4회 세계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하는 한국청소년대표팀이 17일 장도에 오른다.

한국팀은 오는 6월2일부터 19일까지 멕시코서 열리는 이번대회에 대비、4월1일부터 泰陵 선수촌에서 40여일동안 강도높은 합숙훈련을 쌓아왔다.

세계의 축구열강들이 한지리에 모이는 이번대회에서 한국의 1차목표는 8강진출.

그러나 이대회에 참가하는 16개국이 모두 6개지역예선서 험준한 관문을통과한 강호들이어서 8강에 오르기가 쉽지않다. 더우기 한국은 제2·3회 대회서 계속 8강진출에 실패했고 이번대회서도 4개조중 가장 강한팀들이 모인 A조에 속해 예선돌파를 낙관 할수없다.

『8강에만 오른다면 4강진출은 오히려 쉬울지모른다』고 청소년대표팀을 3년간 이끌어온 朴鍾煥감독의 말이다.

한국과 첫대전을 하게될 스코틀랜드는 유럽지역예선1위팀. 본선에 함께진출한 폴란드에 2―0、체코에 3―1로 승리를거둔 강호다.

또 두번째 싸우게될 멕시코역시 부담스럽다. 개최국의 텃새와함께 79년제1회대회때 준우승했고 지난해11월열린 제2회 아벨랑제국제청소년대회서는브라질을 3―1로 꺾었으며 아르헨티나와 2―2로 비긴 강팀. 한국은 이들두팀과 아직 한번도 겨뤄본경험이 없고 정보역시 캄캄하다.

세번째 겨루게될 호주도 예전과는 달리 강팀으로지목되고있다. 멕시코진출까지의 경기전적은 피지에7―0으로 대승한것을비롯、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이스라엘 코스타리카등을 모두 제압、전승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 81년 호주세계대회때도 대진운이 없어 브라질 루마니아 이탈리아등 강호들과 한조(B조)에 속했었다.

그러나 한국선수들은 사신감이 넘쳐있다. 우선 선수들이 잘 단결돼있으며 정신력과 투지만은 나무랄데가 없다고 朴鍾煥감독은말한다. 지난달 26일 브라질 프로축구팀 포르투게사와 대전때 1무1패를 기록한것은 선수들이 일시적으로 슬럼프에 빠졌었기때문.

12일 훈련경기서는 서울信託銀行을 6―0으로 대파했다.

매일새벽6시부터 2시간동안 지구력을 기르는훈련과 팀전술 부분전술을익히고 하오에는 개인전술과 실전을 쌓아왔다. 선수들은 멕시코의 高山지대에적응할수있는 특수훈련으로 단련돼 있다.

朴鍾煥 감독은 『체력 기술 전술훈련을했으나 인조잔디에서만 한것이 마음에 걸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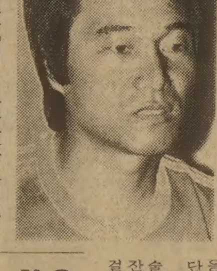
朴감독은『질때 지더라도 격렬한 공격위주의 축구를 구사하기 위해 4·2·4 전법을 80% 사용하겠다』고 말하고 부분전술도 6가지를익혀 81년 호주대회때보다는 전체적으로 전력이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18명의 선수들은 개인기의 차이가 거의 없어 어느 한두사람을 위주로한 훈련은 피했다. 청소년 대표팀의 베스트11은 金豊柱(GK) 金判根 文元根 張政 兪炳玉(이상FB) 盧仁佑 金鍾建(이상HB) 李太炯 申連浩 李基根 李承熙(이상FW)등. 부상선수가 한명도없이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있는 한국팀은 예선첫경기가 열리는 토루카市에 훈련캠프를 설치、10여일간 고지적응훈련을 할 계획이다. 【安泰煥기자】

高山地적응 訓鍊도

A組에 스코틀랜드등 強豪즐비

8強오르면 4強은 오히려쉬워



◁朴鍾煥감독은『질때 지더라도 화끈한 공격위주의 경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대표팀

위치	성명	소 속	나이	신장
감독	朴鍾煥	서울시청		
코치	元興載	조흥은행		
GK	金豊柱	大宇	20	190
〃	李文榮	東北高	19	180
FB	金判根	高大	18	175
〃	文元根	東亞大	21	170
〃	盧仁佑	高大	21	179
〃	兪炳玉	漢大	20	177
〃	張政	亞洲大	20	178
〃	崔益煥	서울市廳	20	175
〃	鄭鍾先	永工	18	177
HB	金鍾建	서울市廳	20	172
〃	金興權	全南大	21	170
〃	姜才淳	成大	20	167
〃	金相鎬	東亞大	20	171
FW	李太炯	漢大	20	171
〃	申連浩	高大	20	176
〃	李基根	漢大	19	171
〃	李承熙	江陵農	19	174
〃	崔洛吉	延大	19	170
〃	金鍾夫	高大	19	181
〃	李賢喆	東國大	20	172
〃	金亨烈	國民大	20	174

◇예선조 편성

A 조	B 조	C 조	D 조
한국	폴란드	중공	소련
호주	아이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멕시코	우루과이	체코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미국	오스트리아	브라질

올림픽 支援위해 50억엔 募金운동

在日同胞

【東京=聯合】88서울올림픽 개최를 지원하기 위한 재일동포들의 50억엔 모금운동이 본격적으로시작됐다.

88올림픽대회 在日 한국인후원회(회장·李熙健)는 10일 民團中央會館에서 현판식을 갖고 경기장과 각종시설 건설및 우수선수발굴과 육성을위해 가능한한 조속히 50억엔 모금목표를 달성하기로 다짐했다.

이날 현판식에는 張聰明민단단장과 崔慶祿 駐日대사등이 참석했다.

雄飛、6번째 覇權

鐵道廳 7-0완파 柔道大·飛鳳高·大邱中央中 우승

會長旗 전국 단체유도

雄飛、柔道大、飛鳳高、大邱中央中이 제9회 회장기쟁탈 전국단체 유도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13일 잠실종합체육관서 폐막된 대회 결승전서 일반부의 雄飛는 鐵道廳을 7―0으로 완파、2連覇했으며 이 대회서 6번째 우승을 차지하며 최다우승팀이 되었다.

한편 대학부 결승서 柔道大는 尹容勃과 趙容徹이 徐東英 羅景雨를 한판으로 누르는등 國民大를 6―1로 제압、4년만에 패권을 탈환했다.

고등부에서는 경기 飛鳳高가 신예 金山體育高를 6―1로 꺾고 우승、새로운전성기를 예고했다.

중등부서는 大邱中央中이 飛鳳中을 6―1로물리쳐 2년만에 패권을 되찾았다.

◇최종일 결승전

▲일반부 웅비 7―0 철도청

▲대학부 유도대 6―1 국민대

▲고등부 비봉고 6―1 부산체고

▲중등부 대구중앙중 6―1 비봉중

有望株 중순부터訓鍊

體育部 내년2월까지 8백80명가려

체육부는 86년아시안게임과 88년 올림픽에 대비、지난해 3차례의 선발검사를통해 발굴한 신인유망선수 4천3백59명을 이달중순부터 기초훈련、내년2월까지 [illegible] 26개 종목)을 선발키로했다.

체육부는 이들가운데특히 메달획득 가능성이높은 유망종목의 선수 1백50명을 다시 선발、국내에서 강훈련을 시키고 필요에따라 단기간 해외전지훈련도 실시할방침이다.

이미선발된 4천여 선수들은 소속학교에서 기초훈련을받고 여름방학때 15일간、겨울방학때 20일간의 합숙훈련을 거쳐 8백80명으로 압축된다.

첫지방순회 경기 14·15일 釜山서

슈퍼리그蹴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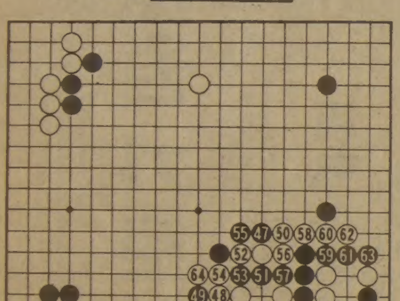
슈퍼리그 지방순회 첫경기가 14·15일 이틀간 부산구덕경기장서 열린다.

14일 하오2시30분 입장식에이어 펼쳐지는 경기는 할렐루야―油公간의 두번째 대결、하오4시45분부터 大宇―國民銀行이 겨룬다.

대한축구협회는 부산경기에 입장하는 팬들을위해 맵시승용차 1대、VTR 오토바이 컬러TV 냉장고 세탁기 카세트 손목시계 축구공등을、또 5개구단은 T셔츠 4만벌 축구공9백개 볼펜 병따개 각5천개、책받침3만개 지금봉 5천개 차양모 1만개등 선물을 준비했다.

당초21~22일로예정됐던 슈퍼리그大邱경기는하루씩연기、22~23일개최된다.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5譜 47~64

白(7段)徐奉洙<3勝1敗>

黑(4段)李相澈<1勝3敗>

(각5시간·덤5집반)

현재 徐7단은 4승0패인 張秀英6단을 뒤쫓고는 있으나 1패를 안고있는만큼 불리한 입장이다. 만약 이바둑을 지고 張6단이 나머지 2국중 1승을 더올리는 날이면 그것으로 끝장이 난다.

따라서 절대로 져서는 안되는 한판인데 상대는 「상수」에게만 강완을 발휘하는다크호스、섣불리 다툴수가 없다. 徐7단의 1패는 河燦錫7단에게당한것인데 李4단은 그 河7단에 패승했다.

국면은 黑47의 강수로인해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판. 여태까지 다소 손해를본 것도 우하白을 노려온 때문이다. 이렇게되어서는 白도 일전불사의 결단을 내릴밖에 없다. 48에서 50이 바로 강력한 반격.

黑51은 맥점이다. 그러나 당연한 수순인 黑55、57이 국후에 문제거리로 등장했다. 『55는 직접 57에 이어야했다』。다시말하자면 黑55로 白56을 두게하지말고 참고도처럼 黑1이하 白8까지 실전과같은 수순을밟았을때 黑9로 끊어 싸워야했다는 얘기다.

실전은 白58이하 62까지 선수하고 64로 달아나게되어 黑은 닭쫓다가 지붕쳐다보는 꼴이되었다. 【一凡】

못잡겠다 白大馬

땅끝에서오다 <56>

金成一 作

길 잃은 새 ④

『……전화를요?』

『그래、지난 크리스머스날 밤이야』

문 영실은 고개를 갸웃 거리며 생각에 잠기고 있었다.

『영실이는 그 때 목소리로 보아서 꽤 취해 있더군』

영실의 볼이 비로소 약간 상기하고 있었다.

『……그랬었군요. 제가 뭐라고 하던가요?』

『뭐 별다른 말은 없었어. 내가 궁금한것은、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느냐는 점이야』

『술이 취해서도 전화를 걸 수 있을만큼 말씀이죠?』

영실은 허전한 웃음을 웃고 있었다.

『그만큼 늘 오빠를 생각하고 있었나봐요』

그 말을 그녀가 처녀일때에 들었었다면 얼마나뛸듯이 기뻤을것인가. 그러나 이젠 공허한메아리처럼 그의 텅빈 가슴속에 흩어지고있을뿐이었다.

『고마운 일이군』

『궁금하시다니까 사실대로 말씀드리죠』

영실은 담배 한개를 또 뽑아서 입에물었다. 형사가 기계처럼 라이터를 집어 불을 붙였다.

『남편이 지난번 서울에 들르러왔을때 저에게오빠의 전화번호를 적어주었어요. 혹시 도움을받을길이 생기면 오빠에게 전화를하라구요. 저는 그때부터 쭈욱 오빠의 전화번호를 들여다보며 도움 받을일이 생기기를 기다렸어요. 사실 저는 언젠가 한번오빠에게 전화를 하고싶었거든요. 그러나 결국 저는 매일 오빠의 전화번호만 들여다보았을뿐 걸지를못했지요. 그러다가 아마 술이취했을때 갑자기 용기가생겼던 것인지도 몰라요』

영실은 담배연기를 한숨처럼 길게 내뿜고 있었다.

『그랬었군. 그런데…어째서 세원이는 무슨일이생겼을때 내게 연락을 하라고 한 것일까. 그리고 무슨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일까?』

『저도 그것이 이상해서 그에게 몇번씩이나 그 이유를 물어보았지만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세원이가 서울에 왔던것은 언제였지?』

『작년 가을이었어요. 9월27일에 들어와서 사흘후、그러니까 9월30일에 출국했지요』

그녀가 어째서 9월27일을 잘 기억하고 있는지 준호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그들의 결혼기념일이었고 그 날은 준호에게도 잊을 수 없는 날이었던 것이다. 부모도 친척도 없는 이 세원의 결혼날이어서 친구들 모두가 일을 거들 수 밖에 없었는데 공교롭게도 준호가 맡은것은 접수부의 축의금 회계였다. 식장안에서 진행되는 순서를 마이크를 통해 들으면서 그는얼마나 마음 속으로 울었고、얼마나 쉴새없이 「그대결혼식에서」란 노래를 속으로 불렀던가.

張吉山 <1740>

黃晳暎 作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200)

원향은 무릎을 흔드는사이에 잘튼 여문이를 살그머니 놓았다. 그리고는 배시시 웃으면서 말하였다.

『마음은 누구에게서 배우는게 아니지요. 그냥 저 높은 산이나 물가에나 아니면 마당에 서서 푸른 하늘을 바라보느라면 자연히 알수 있어요. 그냥 저절로 전해지거든요. 그렇지만…』

하면서 원향은 말을 흐렸다가 다시 환하게 웃었다.

『저는 알아요. 이 터전의 많은 혼령들이 갈데가 있지요. 세상 지으려는 이들을 많이어요. 우리는 그이들께 연이 닿아서 지으려고 애쓰다 가게 되거든요. 이 뒤로도 수없이…그러는 사이에 정이 지은 세상이 오게 되지요』

『언제쯤에나 오게 되나요?』

묘옥이 그 어린 만신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원향은 한숨을 푹 내쉬었다.

『글쎄요. 마른 나무에 꽃 필제 오려느냐고 상여 나갈제 노래를 하지요. 세상에서 이루어진 것들이 다 말라버릴 즈음에 그 속에서 새 속잎이 나오는 철이 되겠지요』

『다 없어지고 말라 죽으면 어떻게 속잎이 나오나요?』

원향은 부끄러운듯 고개를 숙였다.

『몰라요. 그건 저두 잘 모르겠어요. 헌데 어찌 새 봄에는 언 땅에서 보리가 피어 나는지두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지나야 할텐데 뭘하러 세상을 지으려고 애를 써야 하나요』

묘옥의 물음에 원향은 다시 되돌려 주었다.

『가뭄이 들어 천리가 적지가 되고나서 소나기는 어째서 오지요?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삼천초목이 모두 죽어요.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비가 되어 떨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땅은 다시 회생하고、또 가뭄어 파파하고 또 비가 오고…』

묘옥은 중얼거렸다.

『참으로 용녀부인이십니다』

사랑에서 남정네들은 송도 얘기며 금화 얘기며 양주 얘기를 제각기 논의하고 있었다. 이경순은 모시 적삼에 부채를활활부쳐 바람을 넣으면서 말하였다.

『그저께 송도서 사람이 왔읍니다. 병장기와 군복은 거기서 준비하여 거사전까지 우리여각에 장치한다 하였소. 해서 군사와 양주 사람들이 쓸수있을 겝니다』

『아닙니다. 양주에서는 공연히 무기를 나른다 어쩐다할 필요가 없읍니다. 환도 스무 자루면충분합니다. 양주목에 근기일대의 백성들이 몰려들어 무기고와양곡 창고를 털어 병장기 군량을 장만할수가있읍니다. 다만 한양이문제지요.』

황회가 걱정하니 이경순이 말해주었다.

『검계의 일은 아마 영평 정 대덕이 시동이와 함께 조처를 할 모양입니다. 살주계에서도 한양 은거처를 정해 두었다고 합니다. 아마 영길이가 전갈을해 주겠지만 한양에 주인가를정한 모양입디다』

황회도 그제는말하였다.

『응 시동이와 정대덕이 손을 썼다면 모신이네 서강 객점밖에 더있겠나. 검계는 그쪽으로 정하면 되었군』

한국일보

구독신청·광고

(416)533-2361

운전학교

PRINCIPAL DRIVING SCHOOL

* LEARN DEFENSIVE DRIVING *

●이론과 실기 그리고 안전교육을 철저히, 빠르게 습득하도록 지도함.

CPDEA MEMBER

☎ 221-7783, 789-1679

Grant Brown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내고향메뉴

우동	$2.95	오멩백반	$3.50
짜장면	2.95	칼국수	3.25
냉면	2.95	생선초밥	3.95
통만두	2.95	불고기백반	4.95
곰탕	2.95	갈비백반	4.95
김초밥	2.95	떡만두국	3.25
비빔밥	2.95	생선찌게백반	3.95
빈대떡	2.50	두부찌게백반	3.50
		순두부찌게백반	3.50
		된장찌게백반	3.50
		곱창전골 2인분	9.00

CHARGEX VISA

□거리에 따라 주문배달합니다.

□VISA 카드로도 지불됩니다.

내고향통닭집

658 1/2 BLOOR ST. W.

537-0432

KANATA

컴퓨터·싸이언스코스

학생모집

저희 Kanata학교는 Minis, Micros and Main frame컴퓨터 시스템을 갖춘 컴퓨터사이언스 코스를 가르칩니다.

Diploma in Business Computer programing & systems analysis

우리들의 집중적인 6개월 프로그램은 Cobol, Rpgii, Basic, Data Base and Systems Design을 훈련함을 특징으로 삼습니다.

매 새학급은 5주마다 편성되어 시작합니다. 직장도 알선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직장 알선을 을 알아보십시요.

1983년 수업시작일은 6월27일, 8월22일, 9월19일, 10월11일.

자세한 사항을 알기를 원하시면 960-8708 또는 장거리 무료전화 1-800-387-1235로 전화하면 됩니다.

※외국학생, 국내학생 환영함.

Kanata Institute of Computer Science Inc.

10 St. Mary Street, at Yonge, Fifth Floor. Toronto, Ontario M4Y 1P9

Telephone (416) 960-8663

풍성한 식탁을 마련해 드리는

한인식품

한인에 필요한 식품 생활필수품 일체

연중 무휴 아침10시부터 밤10시까지

시내 전역과 근교 무료배달

15 West Deane Pk. Dr. (east mall Plaza)

Etobicoke Tel. 622-2643 대표 손덕수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가수 배성

□권순근과 ADD·K악단

월~목 오후2시-새벽1시

금·토 오후2시-새벽2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742 1618

한국일보

土地거래 申告制 빠르면 年内실시

投機지역 부분적으로

法개정안 6월國會에 대상規模도 축소

정부는 부동산투기억제를위해 토지 거래신고제를 토지거래허가제처럼 부분적으로 지정해서 실시키로 했다. 또한 토지거래 신고제의 신고대상규모도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기준보다 낮추기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토지거래신고제등의 발동요건을 완화하고 신고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부동산투기가 일어날때 기동성있게 대처키위한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이미 국토이용 관리법개정안을 마련, 6월 임시국회에 올려 확정키로하고 필요하다면 연내에라도 실시할수있도록할 방침이다.

12일 건설부가 마련한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에 따르면건설부장관이토지의투기적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토지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 그지역내에서의 권리의 종류, 면적용도, 계약예정금액등 제약내용과 그토지의 이용계획등을 관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토록하고 있다.

현행규정으로는 투기억제를위해 일정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 그지역내의 모든 토지거래에대해 허가제를 실시하게되면 그이외지역 가운데 기준지가가 고시된 지역은 전부자동적으로 토지거래신고제가 실시되도록되어있다.

따라서일부지역에대한토지거래허가제를 실시하려할경우 현재 우리국토의 46%인 기준지가 고시지역에선 모두신고제가 실시되어야하므로 쉽게허가제를 실시할수없는 입장이었다. 따라서 이번 법개정으로 허가제가 실시될 경우에도 기준지가고시지역가운데필요한 지역만을 별도지정해서 신고제를 실시할수있고 허가제는 실시않더라도 부분적으로만 신고제 실시가 가능해진다.

한편 건설부는 토지거래신고제신고대상규모를 현재의 국토이용관리법 대신 시행령(대통령령)에서규정토록 개정, 국지적인 지역실정에 맞도록 거래신고대상규모를 쉽게 정하도록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고대상 규모도 현행법에는 ▲도시계획구역중 시가화 조정지구내에서는 2백40평초과 ▲시가화조정지구이외 도시계획구역서는 3백평 초과하는 토지로 되어있으나 이를 축소조정키로했다. 토지거래 신고제가 실시되면신고된 토지거래는 도지사가 거래가격이나 이용계획을 사전에 검토, 지방자치단체및 정부투자기관등이 우선 매입하거나 거래당사자들이 합리적인 가격및 이용계획아래 거래할것을 권고하게된다.

현재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안은 차관회의 의결을거쳐 13일 경제장관회의에올릴예정이며경제장관회의와 국무회의의결을거치는대로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夏穀값 4~5%線 引上

26일 黨政회의協議, 出荷量 全量수매도

정부와 民正黨은 오는26일저녁 서울三淸洞총리공관에서 月例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올夏穀收買價인상률조정및 수매시기등에 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民正黨은 올보리 收買價를 작년도에비해 4~5% 정도 인상하되 出荷희망농가에 대해서는 全量을 수매하는 방안을 정부측과협의중이다.

黨의 한관계자는 12일『현재농민들은 夏穀價인상률이 높고낮은것 보다는 全量수매여부에 더큰관심을 보이고있다』면서『夏穀수매가 인상률은 지난해 소비자물가인상률이 4·8%였던점을 감안, 이수준에서 농민이 희망하는 全量을 수매하는線으로 정부와 타협이이루어지게될것』이라고말했다.

그는 또『금년은 보리播種면적이 지난해보다 훨씬 늘어났고 作況도 豊作인만큼 지난해에 지급했던 장려금등은 일체지급치않고 다만수매가에 물가상승률만큼인상을 반영토록 할방침이라고 덧붙였다.

◇許光建

中共대표중엔 外交官

許光建 外交部부국장 錢文榮은 新華社 간부記者

中共여객기 被拉사건처리를위해 來韓했던 中共대표단 가운데는 中國民航관계자들외에도 外交部條約局간부, 新華社통신중견간부, 정보기관및 公安관계자수명이 포함돼 있었던것으로 알려졌다.

한소식통은 12일 그간여러경로를통해 확인한결과 民航직원으로 한국에 통보됐던 대표단중 許光建은 中共외교부 조약국의 副局長級이며 錢文榮은 新華社통신기자, 劉遠藩등 수명은 정보및 公安관계기관원인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이소식통은 許는 수년전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海洋法회의에 외교부조약국부국장자격으로 참석한 일이있고 美·中共간 上海공동성명작업에도 참여한 인물이 거의틀림없으며 錢역시 新華社통신의 중견간부일 가능성이 높다고전했다.

이소식통은 許등 외교부조약관계자가 대표단으로 온것은 合意文書작성등에 전문적인외교지식을 자문하기위한것으로 보인다면서 체한중 우리외교진과접촉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와 회담장에서 만났던 한국측 한대표는 許가 유엔·東京등지에 근무하는 中共외교관들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있었으며 한국에대해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관심을 표명했다고전했다.

北傀대표 入國허용 政策변화는 아니다

日, 政府에 통보

日本정부는 오는16일부터 20일까지 東京에서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法律諮問위원회(AALCC) 제23차총회에 참석하는 北韓대표단에 入國을 허용한데 대해『北韓대표의 入國을 인정하는것은 일본정부의 對北韓정책의 변경을 의미하는것은 아니다』라고 駐日한국대사관에 통고해왔다.

외무부는 12일 일본정부가 北韓대표단의 入國을 허용한 이유로 ▲이번회의는 실무적 국제회의이며 정치적 성격의 회의가 아니라는점 ▲국제회의에 未承認國의 참석을 인정하는 것은 일본의 종래의 방침이며 새로운 정책이 아니고 ▲국제회의 이기 때문에 특정대표에게 특수한취급을 한다는일은 있을수없다는점등을 설명해왔다고 밝혔다.

日外相주최 歡迎宴 北傀대표 공식招待

亞·阿法律자문회의

【東京=聯】일본외무성은 아시아·아프리카법률자문위원회에 참가하는 각국대표단원을 17일저녁 아베(安倍)외상주최 환영리셉션에 초대함으로써 일본에서는 이례적으로 南北韓과 美·中·蘇의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될것같다.

요미우리(讀賣)신문은 12일 일본정부가 주최하는 회합에 북한대표를 공식초대한다는것은 처음이라고 1면 머리기사로 보도했다.

나까소네首相 特使 15일派韓, 巡訪설명

【東京=宋孝彬특파원】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5개국순방을 끝마친 나까소네(中曽根)일본수상은15일 스노베(須之部)前외무성사무차관을 특사로 派韓, 순방결과를 全斗煥대통령에게 전달한다.

스노베특사는 15일부터 17일까지 2박3일간 한국을 방문, 나까소네 수상이 아세안5개국수뇌와 가진 頂上회담내용을 全대통령에게 전달하는 한편 오는 6월 윌리엄즈버그에서 열리는 서방7개국 정상회담에 대한 한국측 의견을 들을 예정으로 있다.

◇全斗煥대통령이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은뒤 어학실습실을 둘러보고 있다。【崔東完기자찍음】

全대통령 滅共83훈련시찰

北傀 대규모奇襲 만반對備

發電所 水源池등 警戒강화를

全斗煥대통령은 11일밤부터 12일새벽까지 4시간에 걸쳐 멸공83 훈련상황을 순시, 적의 수도권침투에 대한 대응태세를 점검하고 훈련중인 관계장병및 경찰관들을 격려했다.

11일저녁9시20분 청와대를 출발한 全대통령은中部전선의 멸공83 훈련통제본부에 도착, 상황실에서훈련상황등을 보고받고『앞으로 敵은 非正規戰인지全面戰인지 판단하기 어려울정도로 증강된 대규모병력을 침투시킬것이 예상된다』고 지적하고『이번 멸공83훈련을 계기로 이에대한 만반의 대비태세를 완벽하게 갖추어나가야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방송시설·水源池·발전시설·통신시설및 주요작전지휘부·교도소등이 그들의 주된공격목표가 될것』이라고 말하고『이들 시설과 기관에 대해서는 당해기관의 자체요원이 일차적 경계경비를맡고 인근 군경의 신속한 지원도 받을수있도록 평소부터 긴밀한협조체제를 갖추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全대통령은 특히『대규모 地上병력을 동원한 적의 야간침투가능성에 대처하여早期발견·차단·섬멸등의 다각적인 대응책을 세우도록 하라』고 지시하고『어떠한일이 있더라도 敵이 서울시주변에 근접하기전에 이를 격퇴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敵이 공중침투를 기도할경우 그침투지점은 서울 또는 서울후방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하고『이럴경우 그들은 특정지역의 점령보다는 고속도로를 차단하는등의 방법을 통해 사회의 혼란과 민심의 동요를 노릴것』이라고 지적했다.

全대통령은『이번「멸공83」훈련이 끝난뒤 여러가지예상되는 침투類型을 감안하여 문제점과 미비점을 보완,『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토록하라』고 지시했다.

"公務員 나라의 견인車"

共産主義의 허구성 일깨우도록

全대통령, 地方行政연수원등 시찰

【水原=尹國炳기자】全斗煥대통령은 12일 상·하오 水原에 있는 내무부 지방행정연수원과 果川의 중앙공무원교육원을 차례로 순시, 張炳九원장과 孫璨鎬원장으로부터 각각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全대통령은 업무보고를 받은뒤『공무원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중심세력의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전제,『공무원에 대한 교육은 단순히 職能지식을 전문화시키는 차원을넘어 공무원에게 국가를 이끌어나갈 향도적역할을 다할수있도록 정신적 도덕적품성을 함양하는데 역점을 두어야한다』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北韓과 思想이념면에서 대결하고있는 우리로서는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교육은 있을수없다』고 말하고『공무원에대한 교육내용에 공산주의의 허구성, 北韓王朝세습체제의 실상등을 포함시켜 공무원들이 이러한교육을받고돌아가면 국민들에게 교관역할을 할수있도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全대통령은『공무원교육은 外來강사에의한 교육보다 각부처별로 정부시책을 상세히설명, 이해시키는교육에 힘써야한다』고 말하고『교과내용을 현실에 맞게 편찬해 그것을 바로 실천에 옮길수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全대통령은 또『공무원연수원의 교관은 공무원가운데 가장 우수한 사람들이 맡아야한다』고 말하고『전국의 각급공무원연수원을 상대로 1년에한두번씩 교관연구競演대회를 열어 우수교관을 선발, 표창하고 이를 인사에도 반영시켜 교관의 자질향상을 기하도록 하라』고 배석한 관계관에게 지시했다.

全대통령은 내무부지방행정연수원을 시찰한뒤 消防학교에 들러 劉奉植교장으로부터 금년도 훈련계획을 보고받고『소방학교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소방관을 양성한다는 각오로 소방교육을 철저히시키고 소방관들이 자기가하는일에 명예와보람을 느낄수있도록 긍지를 심어줄수있는 교육이되도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레이건, 슐츠「中東보고」傾聽 로널드·레이건 美대통령이 11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최근 中東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조지 슐츠국무장관을 접견, 순방결과에 관해 보고를 받고있다。

社会漫評

뭐가 어떻게 돼 가는건지…

도미니카 首相 내일 공식訪韓

東部카리브해의 도미니카聯邦 메어리·유제니아·찰스수상이 金相浹국무총리의 초청으로 14일부터 17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찰스首相

찰스수상은 訪韓중 金총리와 首相회담을 갖고 양국의 공동관심사에 관해의견을교환한다.

도미니카聯邦은 인구 8만3천명의 小國으로 중부카리브해에 위치한 도미니카공화국(수도·산토도밍고)과는 별개의 나라인데 한국은 78년에 修交한이래 기술연수생 [illegible] 하여 훈련을 시키[illegible] 며 승용차, 트럭, 경운기등을 원조한바 있다。首都는 로소。

地平線

『어야지야 어서가자 모든 풍파무릅쓰고/ 문명계와 독립계로 어서빨리 나아가지/ 망波에 뜬자들아 길이 멀다 한탄말고/ 희망키를 굳이 꽂고 실행돛을 높이달고/ 부는 바람 자기전에 어야지야 어서 가자』—島山 安昌浩가 1908년 발표한「心形歌」는 이민족의 암흑기에 등불을 밝힌 선각자의 집념을 보여주고 있다。▼마흔 한살 때인 1919년 내무총장겸 국무총리서리로 上海임시정부에 참여했던 안창호는 눈코 뜰새없이 바쁜 중에서도『務實力行』과 인격수양을 위해 자신을 채찍질했다。20년1월에서 이듬해 3월 초하루까지 이어지는 일기에 의하면 이무렵 그는 국무회의, 각국 영사와의 면담, 강연회, 기자회견등 공무로 스케줄이 차있다。▼공무가 아무리 바빠도 안창호는 매일 아침 냉수욕을 쉬지않고, 靜坐會에 참석했다한다。밤이면 야학교에서 일본군과 싸우기위해 군사학 강의를 들었던 그가「務實力行」이라는 인격개조운동으로 일관했던 것은 유명한일이다。『인간은 개조하는 동물』이라고 규정했던 그는 또 한『꿈에라도 성실을 잃었거든 痛悔하라』고 채찍질했다。평생에 3개의 학교를 만든 이유이기도하다。▼『나는 밥을 먹어도 독립을위해 했고, 잠을자도 독립을 위해서했다。내게 목숨이 있는한 나는 독립운동을 할것이다』35년 대전형무소에서 옥고를 치르고 나온 안창호는 일본인형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한다。▼서북출신의 안창호는 기호지방의 月南 李商在와함께 이민족의 암흑기를 빛낸위대한 지도자요, 희망의 등불이었다。▼전통적인「衛正斥邪」운동과 달리 이상재와 안창호는 근대화와민중의 조직화에 눈뜬 徐載弼의 독립협회정신을 이어받은 선각자였다고 할수있다。안창호가 꼭70년전오늘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든 興士團은 민족독립의 바탕이될 근대적인간의 창조운동 조직이었다。그70돌(13일)을 맞아 영웅과순교자의 시대를 빛냈던 위대한 선각자의 유산을 [illegible] 다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영숙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보석개조
교환매매
215 YONGE ST.
Toronto
Jewellery exchange 구내
368-7961(B)
690-5217(R)

축
일간지발행 2주년기념
○교민사회의 목탁인 한국일보·토론토
○정의를 위해 불굴의 투지로 더욱 힘차게
뻗어나가길 기원합니다.
IATA
신세계 NEW WORLD TRAVEL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국내, 국제항공표 일체
*이민, 방문 초청안내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7525

韓中共관계의 새章 <3>

選擇의 幅 넓어진 對韓관계

北京의 視角

三面蘇勢가 「對北蜜月」 가속
마찰땐 "특수한경우" 突破口

上海市는 11일 春川불시착 중공여객기승객의 무사귀환을 환영하는 대회를열었다. 新華社통신에의하면 이자리에 중공정부 대표로 참석한 국무원 副秘書長吳慶彤은 피납당시 승객과승무원이 보여준'영웅적이고 애국적인' 자세를 찬양한뒤 이사건에 대한 한국정부의 협조에 감사한다고말했다. 吳는 국무원 辦公室주임으로 중공대표로 서울에 왔던 沈圖와 비슷한 수준의 각료급.

吳의 발언은 여객기사건등 한국에대한 중공의 첫번째 공식발언이라는 점에서 주목할만한가치가있다.

이사건을 통해 중공이 韓·中共교섭의 성격을 극력제한하려 했으면서도 이것으로 중공의 對韓관계에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을 보여주고있다.

중공의 몸조심은물론 북한과의관계때문이다. 최근 북한의 對中共관계는 소련과의관계보다 더 우호적이라는것이 외교전문가들의 거의 일치된 견해다.

중공은 金日成-金正日「세습체제」의 용인이 自國의 체제유지를 위해 위험한 요소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월 鄧小平、胡耀邦의 평양방문에 이어 9월 金日成의 北京방문으로 이를 간접적으로 인정하고있다. 북한과의 교류도 최근들어 크게 늘어나고있는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에서 한창 교섭이 진행되고 있던 8일 新華社통신은 北傀노동당학교대표단이 北京에서 중공측이 베푼 만찬에 초대됐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北京의 일부관측통은 한국과의 회담이 이례적으로 실현된것도 이처럼 중공-북한 관계가 蜜月관계에있기때문에 오히려 가능했던 것으로 보고있다.

중공이 북한과의 우호관계유지에 부심하는 이유는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중공 북쪽의 「蒙古인민공화국」은 소련의 완전지배하에있고 소련은 여기에 방대한 군사력을 배치해놓고 있다. 이 군사력의 철수는 국경병력의 감축과함께 중공측이 요구하고있는 中·蘇화해의 전제조건이다.

남쪽에는 소련과 밀착한 베트남이 중공에 극렬한 적대자세를 보이고 있으며 서쪽역시 소련에 점령된 아프가니스탄과 親蘇관계를 유지하는 印度가 국경을 위협하고있다. 만약 북한이 소련쪽으로 기울어버리면 중공은 동쪽에 또 하나의 적대적인 전선을 갖게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불안속에서도 중공외교는 평화공존5원칙을 외교지침으로 밝힌 이후 미국, 일본과의 修交등 對西方접근을통해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축성을 보여왔다. 중공외교의 변화는 鄧小平의 實用主義노선으로 가속화됐고 지난해9월 중공黨 제12기 전국대표대회(12全대회)에서 원칙이 정해졌다.

鄧小平에 이어 중공을 이끌어 갈 黨總書記 胡耀邦은 이대회에서 정치보고를통해 중공외교정책의 대강을 다음과같이 진술하고 있다.

『중국이 각국과의 관계발전에서 지침으로 일관한원칙은 「주권과 영토보전의 상호존중, 상호불가침, 상호내정불간섭, 평등互惠, 평화공존」의 5원칙이다. 평화공존 5원칙은 사회주의각국을 포함, 모든 나라와의 관계에 적용된다. 지난 33년동안 우리는 이 원칙에 따라 세계1백25개국과 외교관계를 맺었다.

우리와 북한,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등 우호적인 사회주의 각국과는 긴밀히 협력, 단결과 우정을 강화발전시켜왔다. 우리와 아시아, 아프리카, 南美의 많은 발전도상국과는 서로共鳴하고 지원하면서 각방면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왔다. 중국과 많은 西方측각국과는 사회제도를 달리하고 있기는 하지만, 세계평화를 지키기위한 공통의염원을 갖고, 경제적 문화적 협력을 증진시킨다는 점에서, 공동의 이익과 거대한 잠재적 가능성을갖고 있으며, 오랫동안에걸쳐 좋은 관계를 유지해왔다.』

胡耀邦의 이 보고는 중공의 對북한 관계와 제3세계, 西方측 내지는 한국에대한 외교원칙을 짐작케 한다. 중공의 對韓관계는 북한과의 관계를 결정적으로 해치지 않는선에서「경제적·문화적 협력을 증진시킬 잠재적 가능성」을갖고있는 셈이다.

최근 南北韓주변의 몇가지 변화는 이「잠재적가능성」이 현실관계로 韓·中共간에 구체화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준다. 우선 국정전반에 걸친 實用주의노선에 따라 중공은 서방문물에 개방적인 자세이며, 개발도상국가운데 선두주자로 평가받고있는 한국만 여기서 언제까지나 제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上海서의 被拉승객 10일 서울을 출발, 上海에 도착한 피납중공여객기 승객들이 꽃다발을 한아름씩 안고 공항버스에서 내리고있다.

실제로 韓·中共간에는 제3국등을 통해 상당한양의 교역이 이루어지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일본 나까소네 수상의 한국, 미국, 중공방문을계기로 다시 나온 남북한 교차승인案과▲미국외교관의 북괴외교관 비공식접촉 허용▲東京에서 16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아프리카 법률자문위원회의에 일본이 북괴대표단입국을 허용한것등이 열거될수 있다.

이런 변화들은 중공이 對韓관계의 폭을 넓히는 과정에서 발생할 북한과의마찰을 줄일수 있는 여건이 될수도있다.

중공의 조심스러움은 對북한관계만이 아니라 당사국인 한국에대해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어쨌든 이번 사건으로중공은 한국과의 정치관계를 시도할 경우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음은 분명하다. 앞으로 관계를 진전시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이번의 예를 따라 접촉할수 있는 길이 생겼기때문이다. 북한과 마찰이 생기면 이번 경우는 여객기사건과 마찬가지 성격의 「특수한경우」라고 설명할수있는 여유가 생긴 것이다.

【朴贊式외신부차장】

메아리

다시 「沈阳」

우리나라에 불시착했던 中國民航機의 기장은 그의 비행기가 「沈阳」에서 上海로 가던 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그가 말한 항로를 瀋陽~上海라고 보도했다. 일본 신문들도 마찬가지.

사건이 나자, 센·투라는 사람이 쫓아왔다. 우리나라 신문들은 그가 「沈圖」라고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그를 「沈图」라고 적었다. 그러나 中共式簡字로 하면, 그의 이름은 「沈图」다.

여기 보인 것은 中共式 簡字와 日本式略字의 몇가지 예다. 흔히들 韓中·日세나라를 한가지 漢字文化圈, 더나아가서는 「同文同種」이라고 까지 하는데, 정작 맞대놓고보니, 달리 쓰는 글자가 많더란 얘기다.

中共이 簡字를 쓴지는 벌써 근30년이다. 그러나 「沈阳」은, 알고 볼수록 난감한 글자다.

우리가 알고 있는 瀋陽의 「瀋」은 「或作 沈」이라고 사전에 나와있다. 「瀋」이 「沈」으로 된 연유를 알것같다. 그런데 「氵」를 뺀 「審」의 簡字는 「审」, 따라서 「瀋」의簡字는「渖」이다. 瀋=沈의 簡字化는 「沈阳」만을 위한 예외인 것이다.

이 경우의 의문은, 簡字아닌 원래의 「沈」은 어찌 되느냐는 것이다. 우리의 발음으로 「沈」은 「심」 또는 「침」, 중국音은 「센」 또는 「천」이다. 뜻은 「심」 「센」이 姓氏, 「침」 「천」은 「가라앉다」이다. 여기서, 「沈」을 瀋陽에다 떼어준 中共사람들은, 「가라 앉다」의 「沈」을 마찬가지 일곱획인 「沉」으로 다시 고쳤다. 그래서 「沈沒」은 「沉没」. 그러면서도 姓氏의 「沈」은 그대로 적는것이 그들의 簡字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온 사람은 예전 그대로의 「沈」 아무개인 것이다.

좀 어거지같은 이것이, 급작스런 文字改變의 한 단면이다. 결국 簡字는 어디까지나 中共字일뿐, 우리로서는 「沈阳」을 瀋陽으로 옮겨 적을 도리밖에 없다.

그러면 일본사람들이 제정한 略字는 어떨까.

이 역시 日本字일뿐이라 해도 그만이지만, 이 경우에는 좀 미묘한 문제가 끼어든다.

그 첫째는 일본 略字중 상당부분이 우리와 공통된다는 것, 그리고 저들과의 교류가 잦은탓으로, 알게 모르게 저들 투의 略字를 우리 글 쓰기에 襲用하는 일이 흔한 것이다. 그러다 보니, 저들 略字의 어느 것이 日本字인지의 분간조차 어렵다.

다음은 우리도 편함을 좇아 略字를 쓰자는 논의가 끈질기고, 이에 대한 反論 또한 드센 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서울의 어떤 신문은 독자적으로 90字의 略字를 골라, 본문기사와 제목에두루 쓰기 시작했다. 그 當否는 접어두더라도 교과서와 다른 모양의 漢字가 신문지면에 등장함은 語文정책不在의 징표로 지적되어야 할것이다.

이같은 문제의 일단은 어떤 신문의 略字사용을 보도한 일본신문에도 반영되고 있다. 그중 한 신문의 제목은 이렇게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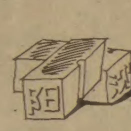
『XX일보에 日本의 略式漢字 편리함이 民族主義를 이기다』 (아사히新聞 4월27일字)

본문에서는, 이 신문의 略字 90字중 한字를 뺀 모두가 日本式 略字라면서, 그 신문의 내력을 곁들였다. 크게 다룬기사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일본사람다운 文化쇼비니즘을 엿보인 지면이다. 적어도, 日本式略字란것중에, 우리나라에서 건너간것, 본디부터 韓·中·日 세나라에공통된것이 있음을 이신문은 눈감고있다. 「國」의 略字가 세 나라에서 모두 「国」이요, 中共式 簡字에서도 마찬가지임을 모른체 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略字문제가 일본신문에서 받은 불쾌감, 같은 연유에서 오는 시비거리의 소지를 안고 있음은 부인 못한다. 그래서 더욱 아쉬운 것이 분명한 語文정책이다.

이쯤해서, 우리도 이제 漢字 簡略化를 심각하게 검토해 볼 때가되었다. 賛反이 엇갈려 있다고 正字와 略字, 교육용 漢字와 實用 略字의 혼란을 더 이상 버려둘수는 없다. 略字의 장점과 단점을 가늠하고, 한글전용의 추세, 漢字교육의 의의를 살펴, 略字를 쓸지, 안쓸지를 확정하는 것이 혼란을 막는길이다.

그리고 略字를 쓴다면, 우리의 漢學전통을 살려, 우리다운 略字의 개발을 꾀해야 한다. 그 일부가 일본의 略字, 中共의 簡字와 공통될 수는 있겠으나, 우리가 쓰는 略字는 어디까지나 「韓字」일수밖에 없음을 생각하는것이다.



金昌悅 【編輯委員】

땅끝에서 오다 <55>

金成一 作 / 宋龍 畵

길 잃은 새 ③

준호는 계속해서 그녀의 자존심을 상하게 함으로써 충격요법을 쓰기로 마음먹었다.

『노, 늙었다는 뜻이 아니라 쓸만큼 익었다는뜻이야』

『오빠 쪽에서도 세월은 흘렀었군요』

옛날처럼 날카롭지는 않았지만 반응이 오고 있었다. 준호는 더욱 용기를 얻어 옛날의 문 영실을 불러내기 위해 머리를 짜내고 있었다.

『많은 것을 배웠지. 특히 여자는 남자의 인생을 보람있게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사실같은 걸 말아야』

『나쁜 것을 배웠군요』

『아주 유익한 일이지』

준호는 담배를 뽑아 물고 형사의 라이터로 불을붙였다.

『그러나…영실이의 경우, 유익하지 못한 일을 했더군』

『언제나 남는 장사란 없으니까요』

의외로 영실의 반격은 강하였다. 너무 긁었나 싶어 준호는 속도를 늦추었다.

『갑자기 영실이와 함께 보았던 영화가 생각나는군. 엘리어·카잔의 초원의 빛이었던가…』

『초원의 빛과 꽃의 영광을 되돌릴 수는없어도 오히려 그 뒤에 남는 힘을 구하리란』

『맞았어. 기억력이 좋군. 정말그래. 경찰서 취조실에 초원의 빛이나 꽃의 영광같은건 없는 것 같군』

공연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준호는 그것을 억지로 참고 있었다. 그러고 보면 과연 여자는 남자보다 독한것인지, 문 영실의 표정엔 아무런 갈등도 스쳐가지않고 있었던 것이다.

『나, 한가지 궁금한게 있어』

『아직도 여자에 대해서 덜 배운게 있나요?』

『음…알다시피 난 본래 수재는 못되거든』

한이 맺힌 한마디였다. 오랜 세월을 두고 이 세원에게 수석을 뺏겨온 준호의 자학같은 대답이었던 것이다. 그것을 물론 잘 알고 있는 문영실이었다.

그녀 앞에서는 죽어도 이세원의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던것도, 그리고 불타는 복수심까지도 잘 짐작하고 있는 문 영실이었다. 그 자학적인 한마디가 효과적이었는지 영실은 담배를 비벼끄고 나서 손을 뻗어 준호의 한 손을 잡는것이었다.

『오빠, 인생이 머리로 사는 것만은 아닌가봐요』

처음 그녀와 등산을 가서, 그녀를 부축하기 위해 그 손을 잡았을 때 준호의 가슴은 얼마나 뛰었었던가. 발을 헛 디뎌서 넘어질 정도로 그는 정신이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오히려 그녀쪽에서 손을 잡아왔는데도 그의 마음속에는 썰렁한 바람이 불고 있었다. 시집보낸 귀여운 동생이 소박맞고 돌아와 끈끈대며 우는것 같은 처량함을 느끼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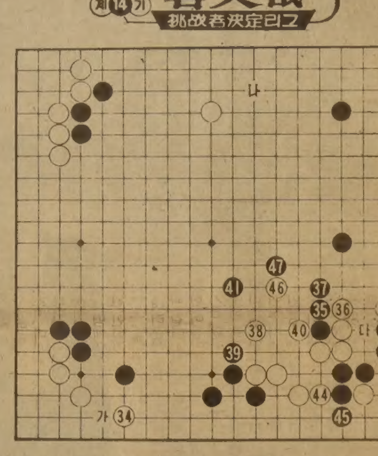
『영실이, 내가 궁금한 것은…』

그러다가 준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얼른 말을 바꾸었다.

『영실이, 동경으로 나한테 전화한 것을 기억하고 있어?』

名人戰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6局 第4譜 33~47 (각5시간·덤5집반)

白(7段) 徐奉洙 〈3勝1敗〉
黑(4段) 李相激 〈1勝3[illegible]〉

黑33은 다음 黑35를 노[illegible]지만 지금당장은 급하지 [illegible] 黑「가」쪽을 선수할 찬스[illegible] 한다.

白이 34에 선착하고보니 [illegible] 손해를 본셈이고 또 35[illegible] 너무 무거워서 뜻대로 白을[illegible] 할수 있을는지 의문이다.

『35는 보류하고 상변을 黑「나」로 육박하든지 좌우간 달리 신천지를 개척해야 온건했다』는 중론이다.

이것은 물론 국후의 결과론이지, 당시의 李4단은 상당한 자신을 가졌던 모양이다. 그래서이하 黑41까지 맹렬한 공격을 가했[illegible]

[illegible] 11이면 白6다음 5로 [illegible] 수순중 黑5로 [illegible] 째는수가 있는등 하여간 뒷맛이 고약하다.

黑47로서 마침내 결전상태다.

【一凡】

張吉山 <1739>

黃晳暎 作 / 崔然石 畵

第四部 逆謀
第一章 彌勒 (199)

『아 그러면 만행을 떠나신 뒤군요. 저는 그때만 하여도 철이 없어서 저분이 주워준 조약돌을 무슨 의미인지 몰랐지요. 그 암자의 신도였나요?』

묘옥은 원향의 손을 놓았다. 그리고는 가볍게 웃었다.

『어떤 이가 참수당하여 바다에 버려졌다는 말을 듣고…자진하려다가 만났답니다』

『혈친이었나요?』

묘옥은 더 이상 원향의 곧은 물음에 답할 수가 없었다. 미닫이가 열리며 사람에서 건너온여문이가 아장아장 걸어들어왔고 묘옥은 얼른 아이를 잡아당겨 안았다.

『응 우리 여문이…그방에가니까 안놀아주데?』

원향이 손을 뻗쳐 아기의 볼을 살그머니 만져보았다.

『그런 이들은 이렇게 가까운 이들 살을 빌려 환생한다던데』

원향이 내민 손을 아기가 잡아 흔들어 보더니 그쪽으로 갔고 점점 무릎에 앉았다. 계화는 아기가 낯가림을 않는다고 감탄하였다. 원향이 아기를 무릎으로 흔들어 주면서 나직하게 읊조렸다.

『아강아강 우지마라 오는장날 장에가서 엽전한푼 얻거들랑 고초양념 엿사줄라 엿두 싫어 엿두 싫어 울어마 젖을내라 아강아강 우지마라 해를 따고 달을 따다 색동옷을 해입고서 무지개로 다리놓아 미륵님전 마중가자 산높아서 못간단다 산높으면 기어가지 물깊어서 못간단다 물깊으면 헤쳐가지 길몰라서 못간단다 길모르면 물어가지』

묘옥은 어느 사이에, 고개짓으로 노래의 가락을 따르고 있었다. 노래가 어찌나 맑고 슬픈지 묘옥은 원향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순간을 잘랐다.

『꼭 내 동생 같애』

『아니어요. 이런 아이들이랑 여자만 사는 세상이 있다면…』

『보살님, 우리네 세상은 원래 이런 것이랍니다. 하늘에서두 이와같지요』

『내게 좋은 말 좀 해주어요』

원향은 칭얼거리는 아이의 장난을 받아 주느라고 다시 무릎을 흔들면서 말하였다.

『좋은 말이 따루 있겠어요? 세상에 있는 느것 한가지를 하늘에는 빠진것이 없다지요. 꼭 그대루 다 있답니다. 그리구 산천초목 짐승 벌레 미물까지두 거기선 염마와 아기처럼 다정하지요. 온갖 귀한 신 천한 신 할것없이 신령은 모두 같지요. 풀에깃든 신령두 미륵님이나 하늘님에 못지 않아요. 모두가 귀하지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님 미륵님 뜻이지요. 이렇듯 다정하게 지내는 세상을 지으려고 사람이 낮지만, 사람은 하늘님 뜻을 지키지 않아요. 그전에는 하늘에서 사람에게 세상을 지으라고도 하지 않았지요. 지금 세상은정이 지은게 아니라 원세가 지은 것이랍니다. 그래서 세상사람 누구나가 어머니가 그립지요. 한울 마음은 어머니 마음이 맞으니까요』

묘옥이 원향에게 나직이 물었다.

『그런 것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스님이나 안무당께서 이르셨나요?』

記者의 눈

아마 스포츠의 苦悶

프로의 열풍은 점점뜨거워지기만한다. 프로야구, 프로축구, 프로씨름, 프로복싱…. 휴일이 아니더라도 프로구장에 몰려드는 많은 인파를 보고우리나라의 프로스포츠도입이 뒤늦은감이 있다고 느끼게 된다. 경기수준이 어떻고, 운영이 어떻고하는 얘기는 둘째이고 「프로」라는 자체가 팬들을 사로잡는 묘한 매력이 있는가보다.

그러나 즐거워하는 팬들의 모습을보면서도 한가지 아쉬움을 갖게 된다. 빈사상태로 빠져가고있는 아마추어 스포츠에 대한 우려때문이다.

프로야구의 출범으로 강타를 당한 아마추어스포츠는 프로를표방한 축구슈퍼리그가 시작되면서 휘청대는 모습이 더욱 완연해졌다. 蠶室의 프로야구장과 아마야구(대학)가 벌어지고 있는 서울운동장의 분위기를 살펴보자. 서울운동장하루관중은 1천명내외. 이 관중들도 대부분 각학교의 응원단이고 보면 아마야구도 이제 팬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된다. 적자속에 치러지고 있는 쓸쓸한대회가 얼마나 더 지속될수있을까 하는 두려움도 생긴다.

팬들의 관심이 프로스포츠에 몰리는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관중들은 보다높은 수준의 경기를 원한다. 70년대의 비정상적으로 높았던 고교야구 열기를 생각하면 오히려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느껴진다.

이제는 보다넓은 안목에서 프로와 아마가 공존할수있도록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기이다. 국민레저의 측면에서는 프로스포츠의 번창이 급선무이겠지만 86·88년대회를 앞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비인기아마추어 스포츠 종목에 대한 처방이 필요하다.

프로의 활성화도 아마스포츠의 저변 확대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마스포츠의 침체를 놓고 체육인들은 매스컴의 편중보도에, 매스컴은 팬들의 편향된 흥미에 책임을 전가할 경우 문제는 해결될수 없다.

당국은프로야구육성책의하나로 세금, 구장사용료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제는 아마스포츠에대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할때가됐다. 아마추어스포츠가 빈사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는것을 보고만 있을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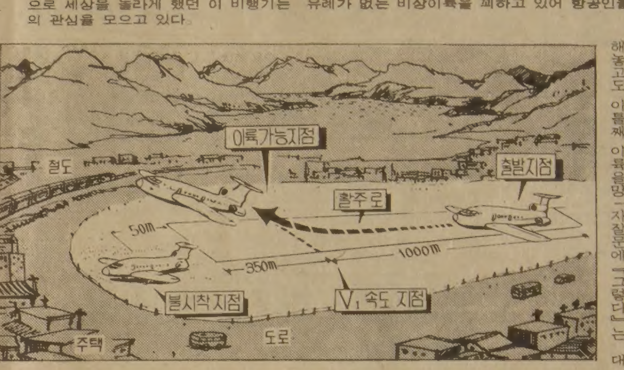
【兪爽根체육부기자】

한국일보
533-2361

"離陸"고민… 피납中共機

重量줄이고 修理끝내놓고도 망설여

모든 기체점검을 마치고 활주로에 대기한 피납 중공여객기 트라이던트. 비상착륙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이 비행기는 유례가 없는 비상이륙을 꾀하고 있어 항공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滑走路 너무짧아 「안전」 불확실

事故나면 엄청난 결과

"가장 안전한것은 解體뿐"

【春川=姜秉泰기자】중부전선○○기지에 주저앉아 있는 중공피납여객기는 이륙이 가능한것인가. 아니면 불가능한가. 뜰수있다면 언제쯤 떠날수있을까.

12일로 피납7일째를 맞는 이여객기(英製 트라이던트)는 그동안 중공인10명을 포함한 한·중공 합동기술진에의해 기체 정밀검사도 받았고 고장부분도수리됐으며 바퀴10개도 새것으로 갈아끼웠다.

또 현지 이륙을 전제로 자체중량을 줄이기위해내부의자를 모두 떼어내 비행기 무게를 당초 40·5톤에서 33톤으로 대폭 감량했다.

이같은 이륙준비를 완료해놓고도 이륙째 이륙을망설이고 있는것은 현재와같은 활주로 여건에서 제트여객기가 이륙을 시도했던적이 없는데에 문제가있기 때문이다.

12일 양국기술진과 회의를 끝낸 金徹容교통부항공국장은『이륙 못하는 이유가 기술적인 문제냐』는기자질문에『그렇다』는 대답뿐이었는데 공식적인 기술진단결과는 전혀 알려지지 않고 있다.

들리는 얘기로는 이비행기를 몰고갈 中共의 白景休기장(54)이 방한에 앞서 北京서 시뮬레이터(연습용설비)를 통해 9백m활주로에서 이륙하는 훈련을 받았다며 이륙을 고집하고 있는것으로 전해지나 한국측기술진으로서는 만약의 사고를 예상하지않을수 없고 그사고는 만만치않은 문제들을 안고있는게 사실이다.

트라이던트가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륙할수있는 활주로길이는 2천2백90m. 현재 이비행기가 계류하고있는 활주로는 1천3백50m로 9백m이상이 모자란다. 물론 기술진은 활주거리를 짧게하기위해 기체중량을 대폭줄이긴했지만 감량에 비례해서 소요활주로길이가 줄어드는것은 아니라는게 일반론이기도하다.

국내 항공전문가들도 이비행기의 이륙가능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아무도 이륙중 벌어질수있는 비상사태에 대해서는 장담하지못하고있다.

비행기가 뜨려면 활주로를 달리며 이륙에 필요한속도를 얻어야하는데 V1속도(이륙결정속도)에서 조종사는 이륙여부를 결정해야되고 만약 이때엔진고장등 기체에 이상이 생길경우 정규활주로에선 멈출수가 있으나 문제의 트라이던트기는짧은활주로에서 V1속도와V2속도(이륙속도)를구분해서계기조작을할수가 없다. 즉 V1속도에 도달하면 이상이생겨도 무조건 뜰수밖에 없다. 안뜨면 활주로를 벗어나며 곤두박질할것이고 계속해서 뜨면 실속(失速)으로추락할가능성이 높다.

활주로 사용거리를 짧게하기위해 활주로끝에서 정지상태로 최대출력을 내는 이륙방법이 이 비행기에는 적용되는데 엔진의 무리한작동이 이륙중 고장을일으킬 가능성도 쉬어보지않을수 없다.

지난 81년9월 KAL점보기가 마닐라국제공항을 이륙중 엔진스톨현상으로 사고가 났을때도 V1속도에 도달하기전이었기때문에 그나마 참사를 막았다는 사실을 상기할필요가있다고 항공전문가들은 지적하고있다.

또 만약의 사고가 발생할경우 파생될 문제도 심각하다.

우선 ○○기지활주로 주변엔 7천여명의주민이 1천4백채의주택에 살고있는데 재산또는 인명피해는 기체값과 비교가 안될정도로 막대할 것이다.

또 값비싼기체와 조종사를비롯한 승무원의 안전도 큰문제다. 특히 항로를안내할 KAL기장이 탑승해야되는데 이런항공기에 무리하게 기장을 내몰수가 있을지도 의문이다.

이들의 실패는 곧 사고이고 이사고는 복잡한 국제문제를 야기할수도 있으며 특히 韓·中共양국 항공기술수준의 취약성을 세계에 드러내는 결과가된다.

또 비행장주변이 높은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고 이륙방향의 활주로 끄트머리에 철도가 가로막고있는 점등도 생소한 탑승승무원들에게 심리적부담이 될게 분명하다.

만약 항공용어에도 없는 「비상이륙」이 결정된다면 어떤 대책이 필요하고언제 떠나야하나.

우선 이륙전에 주민을대피하고 차량통행을 중지시켜야 한다. 春川시는 이륙이 결정되면 5시간전에주민에 통보하고 주민대피책등 비상대책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같은 특수한 여건에서 비행기가 뜨기 위해서는 양력(揚力)과 부력(浮力)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기온이 낮고 고기압일때 부력은 높아지고 시속40노트의 맞바람이 불때 양력은 최고가 된다. 현재 이 활주로사정으로는 하루중 기온이 낮은 상오7시전후가 최적이륙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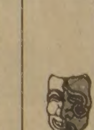
그러나 이 시간대는 학생들의 등교시간등으로 주민활동이 활발할 때이므로 대피에 문제가 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때 일요일인 14일아침이 가장 적절한 시기로 잡히고 있다.

한편 비상이륙을 포기하고 기체를 해체하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수없다. 항공전문가들 사이에는 정작 이런 상황이 비행기제작국가인 美·英에서 일어났다면 무리한 이륙보다는 해체한후 다른 비행장으로 옮겨 재조립할 것이라는견해가 지배적이다. 물론 엄청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지만 만분의1비율의 사고라도 없앤다는 제로·디피시트(Zero Deficit)에 의거, 항공기를 다루기 때문이다.

피납중공기는 비상착륙으로 세상사람들을 놀라게했지만 또 비상이륙시도로세계항공인들의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되고 있는것이다.

"역시 他鄕" 국제방송 中國語아나 李信愛양

무뚝뚝한 中共人에 鄕愁도 잠시…



中共人을 맞고 보내면서 사람마다 느낌이 달랐을 것이다. 외교를 생각하는 사람의 반응과 감성으로 그들을 바라본 사람과의 사이에는 커다란 간격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국방송공사 국제방송국 중국어과 아나운서 李信愛양(27·사진)만큼 미묘한 기분을 느낀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녀는 中式服 퍼레이드 속에서 사라져가는 「고향」을 보았던 것이다.

李양은 그들의 불시착뉴스를 듣는 순간 『중공에 혼자 남은 언니가 타고있지 않을까』『소꿉친구나 학교선생님은 없을까』하는 생각이 퍼뜩 떠올랐다고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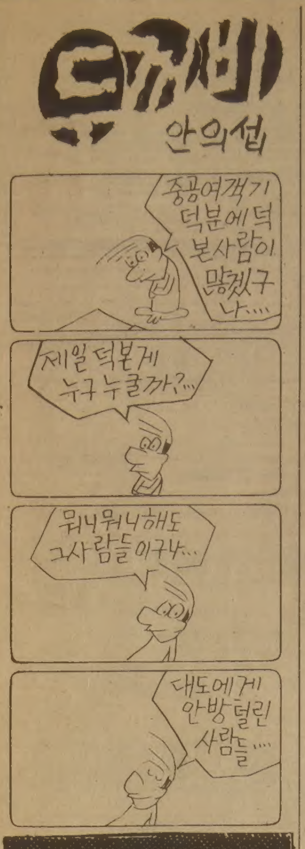
李양은 56년 天津에서 태어나 꿈많은 시절을 그곳에서 보냈다. 독립운동을 하다 중국에 처졌던 부모로부터 고국의 이야기를 듣곤했지만 천진스런 중국소녀로 자랐다. 제61중고등학교를 다니며 만리장성으로 수학여행도 갔고, 친구들과 부둣가와 시내공원을 거닐기도 했다.

한때 부모는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떨치지 못했다. 64년 귀국신청을 했다. 회답이 없었다. 거의 자포자기를 했던 지난79년 귀국허가가 나와 중국인과 결혼한 언니를 남기고 귀국했다. 고국은 포근하고 좋았으나 소녀적 「그리움」까지 떨칠수는 없었다. 80년부터 중국어 아나운서로 마이크를 잡아 그런대로 괜찮았지만 역시 마음은 한상 허전했다.

9일 서울 成福 오주바랍회장에서 피납승객을 만났을때 고향사람들과 관광이라도 온듯한 기분에 휩싸였다는 그녀. 하나 그들은 그녀를 대만사람으로 알고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들의 한국나들이 모습을 열심히 방송하면서도『나의 고향은 과연 어디인가』를 자문자답했다.

농묘지원들이 되돌아간뒤에도 우두커니앉아 점점 희미해져가는고향을 되살려보려 했지만 무뚝뚝한 중공사람들의 얼굴이 먼저 눈앞에 나타나곤했다. 태어나고 자랐다해서 모두 고향은 아니다. 그녀에게 중국은 역시 타향이었다. 그녀가 「착각」에서 깨어나는데는 오래시간이 필요하지않았다. 【韓基泰기자】



殺人부른「시동생과의 不倫」

變心앙심 술에毒타 함께마신 친구숨지게

40代여인 구속

작년엔 눈치챈 시어머니 毒殺

【木浦】시동생과 맺은 불륜의 관계를 눈치챈 시어머니를 독살하고 변심한시동생마저 소주에 극약을타 독살하려다 엉뚱한 사람을 숨지게한 姜권순씨(42·여·전남新安郡 智島邑 白東里)가 12일 木浦경찰서에 살인등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에 의하면 姜씨는지난9일하오 2시께 불륜의 관계를 맺어오던 시동생金영준씨(27)가 지난해 다른 여자와 결혼한데 앙심을품고 金씨를 살해하기로 결심, 金씨집 부엌에있던 소주병에 극약을탔었다는것.

시동생 金씨는 이날하오 7시께 농사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이웃에 사는 친구 崔득주씨(39)와 소주를 나눠마셨는데 모두복통을 일으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崔씨는 숨지고 金씨는 중태다.

姜씨는 金씨의형과 결혼했다가 15년전에 사별, 혼자 살아오다 2년전부터 金씨와 불륜의 관계를 맺어왔다는것.

경찰은 또 이사건을 수사하면서 姜씨가 지난해 1월 시어머니 李蓮任씨(67)가 시동생과의 불륜관계를 눈치채고 이를 추궁하자 알사탕에 청산가리를 발라 먹여 살해한사실도 밝혀냈다. 【黔】

江東카바레사건 관련여부 수사

살롱서 호스티스와 毒탄술 함께먹고

20代남자 死亡

11일 밤11시20분께 서울 鍾路區 貫鐵洞13의12 향로 살롱(주인朴喜淑·34·여)에서 손님 張鎭鳳씨(20·공원·주거부정)가 술잔에 극약을풀어 이살롱호스티스 金姬蓮양(21·서울麻浦區孔德洞105의158)과 동반자살을 기도, 張씨는 숨지고 金양은 중태에빠졌다.

살롱 종업원 李在春씨(28·웨이터보조)에 의하면 張씨는 처음본손님으로 이날하오 10시께 혼자들어와 3번룸으로 들어가면서 호스티스를 불러달라고해 金양을 룸에넣어 주었다는 것. 한시간여후인 밤11시 20분께 갑자기 金양이 홀로 뛰쳐나오면서 쓰러져 성모병원으로 옮기고 안으로 잠겨져있는 3번룸을 열어보니 張씨가 목을 뒤로젖힌채 숨져있었다는것이다.

張씨의 형成鳳씨(25·가구점종업원·서울 江東區梧琴洞398의19)에 의하면 張씨는 충북堤川 D국민학교 2학년때가출, 인천 S수녀원에서 자란뒤 선반공장등을 전전했는데 자살할 이유는 없었다는것.

경찰은 張씨의 하의오른쪽주머니에서 청산가리 3g을 찾아내는 한편 술을 마시던 테이블위에서도 청산가리조각3개를 발견,張씨의 생활무대가 江東이고 江東카바레 근처에서 張씨가 돌아다니는것을 많이보았다는 江東카바레근처 백조 카바레삼무 宋順根씨(37)등의 진술에따라 지난3월17일 발생했던 江東카바레 야쿠르트독살사건범인이 아닌가보고 수사하고 있다.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 W B536-1692 H245-3539

도사견 물려 老人숨져

【禮山】11일 하오 5시40분께 충남 禮山郡 禮山邑 舟橋里 410 朴동규씨(56)집에서 사육하던 3년생 도사견 1마리가 묶여있던 나일론끈을 이빨로 끊고 우리를 뛰쳐나와 마침 朴씨집에 놀러와 마당에 서있던 옆집 李초우씨(68)의 목과 가슴등 8군데를 물어 숨지게했다.

이마을 金한순씨(59·여)에 의하면 朴씨집 울타리밖을 지나가는데 개짖는소리와함께 외마디소리가나 대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도사견1마리가 갑자기 李노인에게 덤벼들어 목뒷부분을 물어 쓰러뜨린뒤 계속 가슴등을 물었다는것.

李씨는 동네주민들에 의해 곧 天安市 順天鄕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덜미에 입은 치명상으로 치료를받다 숨졌다.

朴씨는 작년2월부터 도사견9마리를 사들여 사육해오고있다. 【黔】

미감어린이들 초치 李順子여사 격려

대통령 영부인 李順子여사는 12일하오 나병치유자 정착촌어린이 54명과 인솔교사4명등 58명을 청와대로초치, 다과를 베풀고 격려했다.(사진)

李여사는 이자리에서『최근 나병에대한 사회의 그릇된 인식이 바로잡히고있다』고 말하고『특히 미감아 여러분은 다른 어린이들과 같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어린이들이기 때문에 용기를 잃지 말고 열심히 공부해 훌륭한 일꾼이 돼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다과에 참석한 어린이들은 지난75년부터 대통령 비서실이 나환자돕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경남 晋陽郡의 소아농원, 전북 金堤郡의 신흥농원과 비룡농원어린이들로, 이들은서울에 수학여행중이다.

國校生찔려 숨져

【釜山】12일 상오2시께 부산시 海雲臺區 盤如2洞산4의11 조월자씨(42·여)집 안방에서 조씨의 아들 우수석군(12·盤如국교6년)이 예리한 흉기로 목을 찔려 실신해 있는것을 이웃에 있는 강미애여인(42)이 발견, 백병원으로 옮기던중 숨졌다. 【黔】

지문·머리카락 찾아내 감정

대낮主婦피살 낮털이소행 추정

속보=서울 江西區 木洞 沈敏子씨(39) 살인방화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12일 인근주택가를 무대로한 낮털이 절도범들에의한 우발적 범행으로보고 沈씨집 안방 장롱서랍손잡이 등에서 지문2개와 빗에 묻은 머리카락 4개를 찾아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은 이날 ▲사건발생 1주일전인 지난4일에도 낮12시30분께 20대청년 1명이 沈씨집담을넘어 나오는것을 보았다는 이웃 車모군(10·Y국교3년)의 진술과 ▲범행에 사용한 흉기와 끈등 범죄공용물이 모두 沈씨집에있던 것이며 지난 78년11월 이사온이후 지금까지 沈씨집에만 2번이나 도둑이 든것외에도 평소 沈씨집주변에 강·절도 사건이 많았다는 주민들의 진술을 들었다.

경찰은 이와함께 沈씨가 차고있던 목걸이와 반지등을 그대로두고 달아난점으로보아 강도를위장한 원한살인일 가능성에 대해서도 아울러 수사중이다.

商銀거액 引出사건

친구가갖고 행방감춰 수배

"집에 전해달라" 맡긴 1천만원

【全州】속보=상업은행群山지점최성동대리(36)거액인출사건을 수사중인 전북도경은 12일 최대리로부터 사건당일 친구 김모씨(35·全州市鎭北洞·건축업)에게 부탁, 김씨의 전북1가5725×호 포니 승용차로南原까지 달아났다는 자백을받았다.

최씨는 승용차안에서 김씨에게 1천만원을 全州자기집에 전달해달라고 부탁한뒤 南原에서 서로 헤어졌다고 진술했다.

김씨는 그러나 이돈을최대리의집에 전해주지 않고 행방을 감춘것으로 알려져 경찰이 수배에 나섰다. 【黔】

전국유명 自然資源 1백가지 현상 公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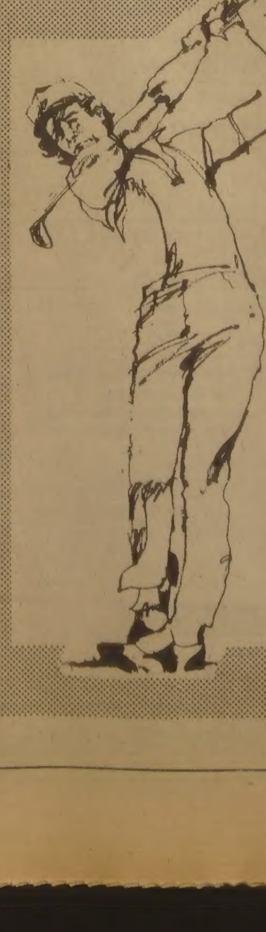
내무부는 12일 자연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해 전국의 대표적 자연자원1백가지를 현상모집키로 했다. 84년 4월까지 공모할 대상은 경관이 뛰어난 산과강 호수 계곡 해변 동굴 진귀한동식물 등이다.

상금은 당선작 1명에게 1백만원 우수작 4명에게는 50만원씩이다.

一家 연탄가스中毒

1명死亡 4명重態

【仁川】12일 새벽4시5분께 인천시 中區松月洞3街5 정인호씨(65) 집 건넌방에 세들어사는 강영창씨(40)등 일가족 5명이 문틈으로 새어든 연탄가스에 중독돼 신음중인것을 주인 정씨가 발견, 인천시립병원으로 옮겼으나 강씨는 숨지고 강씨의처 박규씨(37)등 4명은 중태다. 【黔】



제7회 교민친선 골프대회

장 소: GLEN EAGLE GOLF CLUB
시 일: 1983년 6월 11일 12시
참가자격: 한인 골퍼
참가인원: 72명에 한함(선착순)
참 가 비: 35불(저녁식사 포함)
심사규정: HANDYCAP SYSTEM
연 락 및 접 수 처: 홍진표 낮 751-9236 저녁 282-5387
김용기 B. 266-6358 R. 291-0915
J. C. GOLF ENTERPRISE
정정홍 671-4555
MUNAMI TROPHY & SPORT
이기훈 298-3584

✣ 시 상
- GROSS CHAMPION - 5등까지 (ANNUAL TROPHY)
- NET CHAMPION - 5등까지 (ANNUAL TROPHY)
- LADY GROSS 1, 2, 3등
- HONEST GOLFER
- NEAREST HOLE
- LONGEST DRIVER
- HOLE-IN-ONE(세계일주비행기표)
- CP AIR - 한국여행사 제공

✣ 행운권 추첨
특등: BEAUWOOD PASSAGE-RE METAL WOOD
1등: 한국일보 (1년 구독권)
2등: CART (BAG BOY)
3등: DECORATO CLOCK
4등: PASSAGE BRONZE WEDGE
5등: ALARM CLOCK RADIO
6등: PASSAGE PUTTER
7등: GIFT 1점
8등: GOLF SHOES(ETONIC)
9등: 골프장갑(5명)

기증업체

J. C. GOLF ENTERPRISE	정정홍
한국일보	김명규
MUNAMI TROPHY & SPORT	이기훈
IMPERIAL LIFE	김홍량
NORTH YORK AUTO BODY	송대헌
아리랑식당	장순채
다우스꽃집	이동환
미도파백화점	장추신
CITYLITE SIGNS CO.	홍진표
한맘골프협회	

※ 시합 당일 현장에서는 접수치 않읍니다.
TEE OFF 순서는 LOW HANDY 순으로 정하며 TEE OFF TIME과 심사위원은 6월초 신문에 발표함.

주최: 토론토한인천주교회 한맘골프클럽 후원: 한국일보사 · 토론토한인골프협회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Rockwood Mall 안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전화 : 533-8110, 533-7966
660 Bloor St. W. 대표 : 김 영 철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페인트,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 전화: 425-8585, 535-4441(R) Mr. 김

CUSTOM WORK.
수리-가게, 집, 캐비넷, License No. B-2532
전화: 653-3105 Charles

KW Electrical Services Met. Lic.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목공소(FINE WOOD WORK) : 캐쉬 카운터, 각종 진열장및 가정용 책장등 가구를 주문 제작합니다.
전화: 676-1173(B), 251-2966(R) 조덕근

안 경 점

불루어 안경점(구진모)
635 Bloor St. W. 전화: 531-2236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클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 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피자(RESTAURANT & TAVERN)
▲피자 $50~$100주문-10% 할인/$100이상-15% 할인.
5310 Yonge St. 전화 : 226-1146 Mr. 정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남 강(구 그라나다) 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한식·일식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오 ! 인천 식당(O'Inchon Restaurant)
한식·일본식·양식·주류일절 취급. ※ 칼국수전문.
1112 Yonge St. 전화 : 921-4468 박승홍

마쵸레스토링(월-토: 4pm-1am, 일: 4pm-11pm)
각종 한식·중국식·양식 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Victoria & Steeles-1 Block South) 498-1300

동궁식당(Oriental Castle)
전통적인 광동식 중화요리. 연회석 완비.
1416 Victoria Pk. Ave. 전화 : 757-6334 Mr. 최기주

Valley Village(금천루). 영업시간 오전8:00~새벽1시.
양식, 중국식(사천요리). 단체손님환영.
예약전화 : 491-4058, 3030 DonMills Rd.

AKASIA HOUSE(아까시아 식당) KYOTO
1067 Midland Ave. Scarboro. (Oriole Plazza) 일식전문
전화 : 755-3010(B) 267-4383(R) Mrs. 리(곽순자)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533-2361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 갈비, 밑반찬, 김치등 맛이 최고인 삼복식품!•
★품질과 신용이 최고인 삼복식품을 많이 애용해 주세요.
전화 : 743-8270 2437 Finch Ave. W. Weston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243-9544

한인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페인트·벽지

페인트 또는 벽지때문에 걱정하십니까? 안심하시고 저희에게 맡겨보십시요.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기술로 성심껏 모시겠읍니다. 전화상담도 환영 전화 : 731-4204 (Mr. 신)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Kim's Art Gallery 액자, 동양가구, 유화, 동양화 전문.
1286 Weston Rd.(에그린톤 × 웨스톤)
전화 : (B)243-0233 (R)247-3226 김석환

SUNKIM INDUSTRY LTD. 액자공장-그림재료.
2446 Cawthra Rd. unit 4-Block 4 Miss. Ont.
전화 : (B)272-0068 Mr. Kim

요한화랑 · 기독교회관
각종서적, 액자및 성화·초상화.
549 Bloor St. W. 전화: 532-7909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전화 : 636-1430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숙녀복전문집 미라지
디자이너 드레스/파티복/스포츠웨어/평상복
676 Bloor St. W.(한국비데오옆)530-1870 Mrs. 권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252-1638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 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세 방 관 광 여 행 사
720 SPADINA AVE. SUIT. 104
전화 : 928-3335(B), 532-9581(R), 유승민 유문원

코 라 메 관 광
(나이아가라폭포, 1000 Islands 일일관광)
649A BLOOR ST.W. (제일여행사내)
전화 : (416)535-0853, R)265-4842 함영호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경보 장치

경보장치.
가게, 주택을 위한 각종 경보장치·도난방지기등 설치.
전화: 924-7696 Mr. 정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운전학교(토론토 동쪽) 한국교포 특별 우대. 18년간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십니다. 스카보로 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블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5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의 드라이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후 41%까지 보험료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 수 있음. ★이광고를 가져오면 $20할인해드림. 시간당 $10로 특별운전교습 할수 있음 2387 Eglinton Ave.E.Unit 2
전화 : 431-2596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Clover Printing Co.
3351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N1
Bus : 251-9587 위정남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E & J 오토바디 숍.(B)766-3122 (R)439-6548
-토잉무료. -각종 보험일 처리. -철저한 신용.
104 Osler St.(Dupont×Dundas. W.) 이영두

North York 오토바디
◉20년 경력. ◉24시간 토잉써비스
◉완전수리, 페인팅. ◉수리중 차량 대여.
◉보험관계 일체 처리.
215 Toryork Dr.(웨스톤×휜치 북쪽)
전화: (B)749-0555, (R)881-4053 송 대 헌

O. K. Auto Body
◉완전수리 ◉신용으로 책임 ◉토잉 써비스
138 Sixteenth St. Tor. 전화 : 251-9889 김희삼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길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 AUTO SERVICE
▲라지에타 ▲히타 ▲개스탱크 ▲워터펌푸수리
◉Radiator Service (B)245-1978, (R)248-6032 김용한
◉Auto Service (B)245-2024, (R)759-9753 유선만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주말출장 자동차수리
(Licensed Mechanic)
전화 : 299-4238 Mr.리

장 의 사

장의사(McDougall & Brown)
성실과 신뢰로써 봉사합니다.
646 St.Clair St. W. Tor. 전화 651-5511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 · 카텐

카텐이라면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카텐카페트상사로. !
◉16년경험 ◉분납가능 ◉무료견적 ◉품질다양
전화 : (B)252-4857 (R)252-6602 Mr. 유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쉐어 · 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281-4650 Mr. 박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416)537-6685 8am~6: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Yonge St.에서 Bayview 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국제한약상사. 각종 한약재 수입도산매 전문.
원로중국한의사 진영의 봉사. 수입보약재 할인판매
(녹용, 웅담, 해구신, 십전대보탕)
55 Kensington Ave. (츄이시 시장내)
전화 : (B)593-5238, (R)759-4012. 최호권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경희한방원 (진료시간: 월-금 6pm-10pm, 토,일 10am-5pm)
경희의대 한의과 졸업. 한의사 면허증 소지.
10 FOLCROFT AVE. SCAR. (Kennedy×Kingston) 266-1386 정세 철

하르빈한약상사
전 중국한의대교수. 전 중국의대졸업.
하르빈한의대졸업. 한의학과 침구연구 20년.
한약으로 암치료연구 20년. (중국어, 일어, 한국어 능통).
각종한약 중국에서 직수입 도산매전문. 20년간 임상경험을 토대로 한약치료에 도움을 드리고저 하옵니다.
643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춘봉.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카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IN KYU KIM R.I.A.)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BUSINESS TAX AND ACCOUNTING SERVICES
Accountant 김희체(David). 15 Jansusie (Albion & Kipling)
전화: (B)677-3270. (R)743-0782

이명윤회계사무소(스카보로지역)
44 Gil Roy Dr. Scarboro(Kennedy & Ellesmere)
전화 : 752-9332(R) 오후5시반 이후

이영철 회계사 M.B.A., R.I.A.
ACCOUNTANT & CONSULTANT
344 Bloor St. W. #304 전화: 921-1294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 편리한 자동 전자약탕기 보급.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고급레스토랑 남강
● 한식 ● 일식전문
스시— 바 오픈!
연회석 110석 완비(단체예약환영)
920 YONGE ST. 923-3060

구 인

Dishwasher 급구함
월~금(AM11:30~PM2:30)전화문의는 2:30이후 요망
114 Laird Dr. 전화 : 421-6016

지렁이 잡으실분 구함
1,000마리에 $25
전화 : 766-8876

유경험자 가게헬퍼 구함.
전화 : 741-1465.

주말 버라이어티 스토어
캐쉬어 구함(Etobicoke 지역)
전화 : 231-7944(가능한한 오전중 연락)

경험있는 캐쉬어와 써브마린 하실 여학생 구함.
교통편리, 블로어 & 하이팍 Area.
전화 : 762-6578.

영문타자와 영어에 능통하신 분으로 사무실에서 일하실 성실한 여자분.
연락처 : 767-1702(오후7시~9시 사이만)

구 직

Store Manager가 필요하십니까?
성심껏 일해드리겠읍니다. 다년간 각종의 Store에서 Manager 경험 있음. Mr.박 530-1838 오후6시이후 요망.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CHARGEX VISA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5-2091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77-1888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44-3716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영남향우회	249-6830
숭공문화협회	444-3658
온타리오한인맹인후원회	593-8943
무역인협회	535-3305
'88 올림픽후원회	622-3674

매 매

2베드룸달린 그로서리스토어 매매.
주매상 : $5,000 리스 : 5년 + 5년.
3226 Eglinton Ave. E. 전화 : 261-0739

1에어콘디쇼너 매매.
35,000 BTU Window Unit. 4 year-old.
4 Food 카드랙 매매. 전화 : 763-1358.

2층 벽돌집(방이 6개)
Only $59,900
Call Gino 전화 : 654-1010

레스토랑·타번(42좌석) 서쪽 40마일
아주 좋은 이익의 가족비즈네스로 적당. 주인이 은퇴하므로.
전화 : 1-519-853-2990 또는 토론토 839-1315(저녁6시이후)

턱숍매매, 리스 5년+5년 옵션
주매상 $6,000, 좋은 조건으로 양도하겠음.
230 Oak St. Tor.

버라이어티가게 매매(건물포함)
가족비지네스로 적당.
버링톤지역 전화 : 1-639-7322(Mrs. Best)

1)야채및 파일가게
주매상 $5,000이상, 리스 5+5+5년.
계속 발전되고 있는 동네안의 깨끗한 Plaza내에 위치.
가정형편상 급매코저함. 유경험자나 대가족을 가지신 분은 꼭 한번 보십시요.
2)Fast Food
Bloor & Yonge의 바쁜 Shopping Center안에 있음.
주매상 $4,500, 리스 3+5년, 짧은 시간, 같은 주인이 7년간 운영, 본국으로 돌아감, 아스킹 $129,000
3)Fish & Chips-Bargain!!!
주5일(35시간) 영업, 일, 월휴업.
Rent $750/month ; 주매상 : $4,500이상(일요일도 영업시엔 $1,000이상 매상가능) 35석.
Fish & Chips 와 Coffee만 취급.
Take out 함. 월순수입 $8,000이상
가격 $139,000(All Cash Only)
현싯가보다 훨씬 싼 가격이니 이 좋은 기회를 먼저 잡으십시요.

SINCERE REALTY 채춘성(David Chae : B)497-8900)

Becker's 후렌차이스 Store 매매.
314 Painted Post Dr. Scarboro, Ont. 직접 내방 요망.

도넛숍 매매.
전화 : 1-666-1164(오후6시 이후) 1-668-4073

버라이어티가게 개인사정상 급매.
살림집 포함된 전망 밝은 가게.
자세한 내용은 왕림하셔서 확인바람.
주매상 $3,000, 많은 권리금 기대치 않음.
230 Ontario St, St. Catharine, Ont.
전화 : 1-685-5863

위치좋은 장소에 있는
아이스크림 도나스 숍 매매
전화 : 466-3995 Asking Mr. Lee

Yonge & Eglinton 좋은 장소에 있는 레스토랑.
리스 길고, 76석, (L.L.B.O.)라이센스 있음.
전화 : 483-3831 Mr. Bill or 484-0921 Mr. Lee

전망좋은 빵가게 매매
276 Dundas E.
전화 : 961-2780

Mall 안에 있는 Fast Food
아스킹 $22,000. 패트릭·호 부동산
Call Jack 전화 : 593-8967, 245-2836

오타와 중심가 성업중인 그로서리 가게
타사업 관계로 급매. 주매상 : $7,000
렌트 : $650 전화 : 1-613-238-3837

1) 드라이 크리너 매매.
좋은 장비, 매우 좋은 수입.
누구나 쉽게 작동할 수 있음.
아스킹 : $13만5천.
2) 레스토랑 150석, L.L.B.O.
좋은 리스, Banquet Eat-in, Take-out 써비스.
아스킹 : $82,900.
Mercury Realty Ltd.
전화 : 492-9031, Waymond Tam.

드라이크리닝(Depot) 매매
전화 : 781-6774(B)
746-0981(R)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건물포함)
주매상 $6,000, 경쟁없는 코너스토어.
2층에 3BR, Apt딸린 건물.
아스킹 $17,500+Stock
Hamilton 1-547-0841 Mr.조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6,500+Ticket
3BR, Apt 딸린 건물매매
#25,900+Stock
Hamilton 1-383-1011 Mr.전

버라이어티 스토어 매매
리스 5+5년, 다운타운지역.
전화 : 920-0539(오전9시-오후9시)

버라이어티가게 매매, 아스킹 3만5천+스탁, 리스 2½+5년.
Rent 월 $500, 주매상 $3,500보장, Video 머쉰있음.
전화 : 469-1521

일년 사용한 Taylor Slush Machine 급매.
(신품 1만불함) 현재 $2,500에 판매함.
전화 : 284-9325

새로운 각종 비데오게임 매매.
이익은 50%씩 나눔, 좋은 Terms.
전화 : 247-3713

Tuck Shop 매매 (옥빌지역)
년매상 17만불, 권리금 290,000+스탁.
연락은 오전10시30분 이전 또는 저녁8시이후 요망.
전화 : 844-5719

아파트, 가게달린 빌딩 매매.
아주 바쁜 지역, 전화 : 654-1010
Security Real Estate, Call Mike Cosco

피아노, 소파, 디쉬워셔, 월유닛 매매원함.
전화 : 661-4581

도시생활에 짜증이 나십니까?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맑은 공기와 자유가 필요하시다면 여기 해답이 있읍니다.
써비스 스테이션-레스토랑-New 3 bedroom home
1/2 Million in Sale, asking : $22만5천
전화 : 705-636-5952(오전10시~오후4시)

매트리스가게 매매, 낮은 렌트.
가게가 크고 건조지하실 있음. Bloor & Christie
전화 : 531-1730(오전10시~오후2시) or 656-5765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살림집 이층에 있음, 주매상 $3,500~$3,800
전화 : 243-2337

세탁소와 2개 아파트 딸린 건물 매매
전망 좋은 사업체
킹과 더프린 지역 전화 : 638-0781

그로서리 Store 매매, 주매상 $7천($1만 가능)
아스킹 : $98,000 리스 : 10년 렌트 : $500
토론토 북쪽 50Km, 전화 : 1-852-7907

꽃및 잡화 취급가게(미시사가 초입)
리스 : 3년+5년, 아스킹 $17,000+스탁
전화 : 624-7597 Mr.리

결혼 상담

남·녀 연령불문 한국내에 결혼환영
(시간 AM9~12, PM7~10)전화 : 751-3628 Mr.최
10 SUNRISE AVE. #411 TOR.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Mr. 김

댄 스

-배워도 자신이 없는 분. -특별개인지도함.
-를 준비되어 있음(출장지도는 밤11시이후)
전화 : 271-0741 Mr. 명

DANCE STUDIO
로맨틱 탱고, 룸바, 차차, 스윙등…
2 for 1 봄철특별할인. 전화 : 781-0691

가 구 점

에코시 가구점
21 Vaughan Rd.(1440 Bathurst St.)
전화 : 657-1785(김 만 구)

모드가구점 (MOD ADDITIONS FURNISHINGS)
2300 Yonge St. Tor.(Yonge & Eglinton Centre) 고급가구전문
전화 : B)486-0397 홍애연 (9:30am~9:00pm)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2-5754(R) 이 동환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960-6265 Mr. 김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내)
◉각종 어레인지먼트, Plant, Gift.
◉주문배달함(토론토 전역 및 세계각국)
◉화환 특별할인 봉사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875 Jane St. Toronto. M6N 4C4

꽃집 욕-다운 (York Downs Florist) ◉각종 어렌지와 Plant, 기타일체, 특히 분재(Bonsai)취급및 문의 환영, 배달함-이한균
◉3901 Bathurst St. Downsview 전화: (B)635-9794 (R)635-1288

Lotus Florist And Gifts(메트로 전역, 캐나다및 미국 주문당일 배달, 영국·유럽은 3일전, 한국·기타지역: 1주일전.)
792 Bathurst St.(at Bloor) 전화: 533-3884·533-0705 Mrs. 김

정손꽃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B)622-8516, (R)279-3719 허소피아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H), 463-7423(B) 이송원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 ◉화/오후5시-6시30분 아동미술교실, 7시-9시 성인미술교실 ◉수/오후7시-9시 인체뎃상(성인)
58 Wade Ave. 전화 : 537-7630, 961-9780

미 용

킴스미용실· ◉(일요일 휴무)
1)머리에 제일 중요한 정확한 헤어카트 시도
2)전파달리 기다리지 않게 해드림
3)헬퍼에게 마끼지 않고 직접해드림
4)저렴한 가격과 고급양 서비스(노인 25불)
5)신부화장하신분에게 고급드레스 대여
668 Manning Ave. 전화 : 532-7094(B) 248-2437 Mrs. Kim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 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전화 : 741-4410, 화~토: 9am~8pm. ◉매주 월요일만 동부영업
*1353 Danforth Rd. 전화 : 261-1533, 월 : 10am~7pm.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소피고미용실
1133 Dundas St.E. Missi, Ont.
B)270-4684, R)277-8985, Mrs. 고.

빵 집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Pro Insurance Brokerages Inc. (강학수종합보험)
P.O.Box 126, Etobicoke, Ont. M9C 4V2
전화 : 622-5147

김 종 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298-0398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섬
투자전문(IC & I)
전화: (B)497-0600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 유웅복 (R)447-9395
★임윤식 (R) 636-7950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533-9061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순일 전화 :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춘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SKYLINE REAL ESTATE LTD.
김종조 651A BLOOR ST. W. TORONTO.
전화 : 535-0028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복덕방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CANADA PERMANENT TRUST CO.
주택·사업체등 부동산 취급, 몰게이지 상담.
김평(Paul Kim) 전화 : 488-2444(B) 491-5962(R)

사무용구및 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JOA STUDIO(결혼사진및 비데오전문)
아름다운 순간을 영원히! 231-5351
499-3893

생 선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CANADIAN FISH MARKET
수십종류의 싱싱한 생선및 회감.
658 Bloor St. W. 전화 : 535-2431 박용곤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60 Bloor St. W.
전화 : 533-7966 533-8110

T. V.

한국비데오센타 ◉각종비데오테프 대여전문
◉품질보장, 신용본위, ◉비데오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678 Bloor St. W. 손병헌

SONY Video, T.V., Stereo
Bayview Electronics, Bayview Village Centre
(Bayview & Sheppard) 전화 : 224-1622 김향섭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잎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T.V. 수리는 431-0102
ZENITH, R.C.A., PANASONIC, 각종제품. Mr. 박

크린톤에서 만납시다 CLINTON HOUSE
○각종 모임을 위한 대·소 별실 있음.
○아늑하고 조용 —— 마이크시설 있음.
693 BLOOR ST. W.
535·9541 MR. 김

축

토론토
한국일보

일간발행 2주년기념

항상 꿋꿋한 자세로

불의에 굴하지 않고

공명정대한 기사로

한걸음 앞서가는

토론토 한국일보

LUCKY DRAPERY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 625-0698